E 11-2017-06

2017 제6권 제6호

해외곡물시장 동향

World Grain Marke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 동향」은 농업관계자 및 일반인이 해외곡물시장을 이해하고 정부가 농업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세계 곡물시장 동향과 관련 정보, 주요 지표를 정리·분석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곡물시장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해외곡물시장정보 홈페이지(http://grains.krei.re.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집 담당>

성명환 연구위원 mhsung@krei.re.kr(Tel 061-820-2366)
김원정 연구원 wonjeong@krei.re.kr(Tel 061-820-2188)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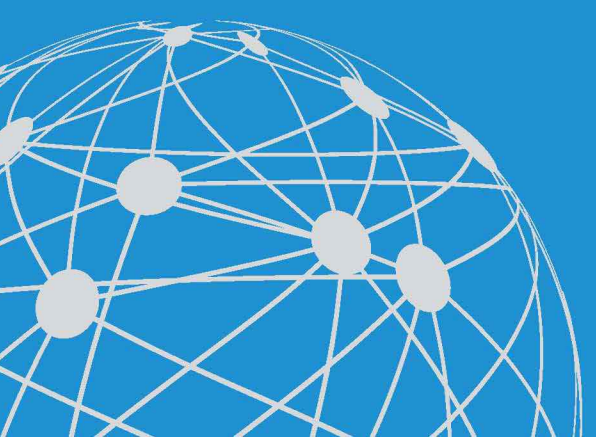
해외곡물시장 동향 3
세계 곡물시장 동향과 전망 5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15
해외 곡물 선물 5월 동향과 6월 전망 33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53
원자재 및 에탄올시장 동향 67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77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87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의 농업 생산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 89
최근의 국제 정세가 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113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121
FAO 곡물시장 뉴스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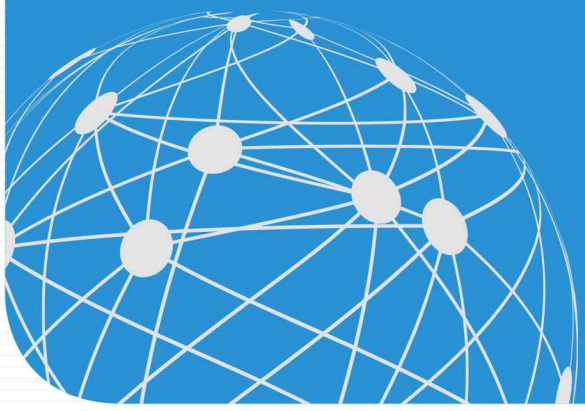
세계 농업기상 정보 139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141

부록 139
세계 곡물 통계 149
주요 국가별 보리 통계 153



Part 1. 해외곡물시장 동향

세계 곡물시장 동향과 전망 5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15
해외 곡물 선물 5월 동향과 6월 전망 33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53
원자재 및 에탄올시장 동향 67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77



세계 곡물시장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1. 세계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1.1. 곡물 전체[1)]

세계 곡물 생산량은 USDA, IGC, FAO 세 기관 모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먼저 USDA는 전년 대비 2.4% 감소한 2,531백만 톤, IGC는 2.1% 감소한 2,541백만 톤으로 전망하였으며, FAO는 0.4% 감소한 2,599백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공급량과 소비량의 경우에는 세 기관이 상이한 전망을 하였다. 먼저 공급량의 경우 USDA와 IGC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FAO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소비량의 경우엔 USDA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IGC와 FAO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각 기관별 기말 재고율 전망치는 USDA, IGC, FAO 순으로 23.4%, 23.8%, 26.6%이다.

표 1. 세계 곡물 수급량

(단위 :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6/17 (추정)	2017/18 (5월 전망)	전년 대비	2016/17 (추정)	2017/18 (4월 전망)	전년 대비	2016/17 (추정)	2017/18 (5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2,593	2,531	-2.4	2,594	2,541	-2.1	2,609	2,599	-0.4
공급량	3,200	3,164	-1.1	3,192	3,176	-0.5	3,269	3,289	0.6
소비량	2,566	2,565	-0.1	2,557	2,564	0.3	2,569	2,595	1.0
교역량	417	406	-2.5	385	383	-0.7	395	387	-2.2
기말재고량	633	599	-5.4	635	611	-3.7	690	689	-0.1
재고율	24.7	23.4		24.8	23.8		26.9	26.6	

자료 : USDA, IGC, FAO-AMIS

1) 곡물 전체는 밀, 쌀, 그리고 잡곡의 합계를 의미함.

1.2. 쌀

세계 쌀 생산량은 IGC와 FAO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USDA는 전년 대비 변동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먼저 IGC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487백만 톤, FAO는 0.9% 증가한 504백만 톤으로 전망하였으나 USDA는 전년 대비 큰 변동 없는 481백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공급량, 소비량, 교역량의 경우에는 세 기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말재고량의 경우엔 FAO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171백만 톤으로 전망한 반면 USDA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120백만 톤, IGC는 1.3% 증가한 120백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각 기관별 기말 재고율 전망치는 IGC, USDA, FAO 순으로 24.8%, 24.9%, 33.7%이다.

표 2. 세계 쌀 수급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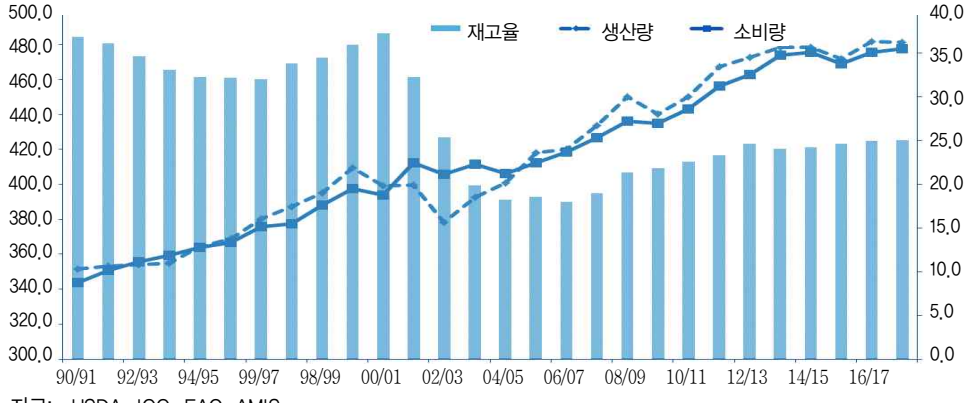
(단위 :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6/17 (추정)	2017/18 (5월 전망)	전년 대비	2016/17 (추정)	2017/18 (4월 전망)	전년 대비	2016/17 (추정)	2017/18 (5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482	481	0.0	483	487	0.7	499	504	0.9
공급량	597	600	0.4	601	606	0.8	671	675	0.7
소비량	479	480	0.3	482	485	0.7	500	507	1.2
교역량	41	42	1.8	40	41	0.5	43	44	2.1
기말재고량	119	120	1.0	119	120	1.3	171	171	-0.4
재고율	24.8	24.9		24.7	24.8		34.2	33.7	

자료: USDA, IGC, FAO-AMIS

그림 1. 세계 쌀 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톤, %)



자료: USDA, IGC, FAO-AMIS

1.3. 밀

세계 밀 생산량은 세 기관 모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USDA는 2.0% 감소한 738백만 톤, IGC는 2.3% 감소한 736백만 톤으로 전망하였으며 FAO는 2.6% 감소한 740백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공급량의 경우 USDA는 전년 대비 0.2% 감소한 993백만 톤으로 전망하였으나 IGC와 FAO는 전년 대비 변동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말재고량의 경우에는 USDA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258백만 톤, FAO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248백만 톤으로 전망한 반면 IGC는 전년 대비 0.5% 감소한 239백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각 기관별 기말재고율은 IGC, FAO, USDA 순으로 32.4%, 33.9%, 35.1%이다.

표 3. 세계 밀 수급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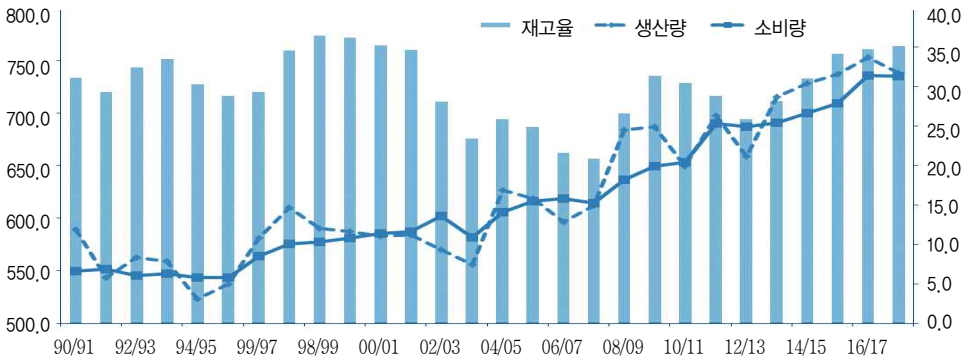
(단위 :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6/17 (추정)	2017/18 (5월 전망)	전년 대비	2016/17 (추정)	2017/18 (4월 전망)	전년 대비	2016/17 (추정)	2017/18 (5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753	738	-2.0	753	736	-2.3	760	740	-2.6
공급량	996	993	-0.2	977	977	0.0	980	980	0.0
소비량	740	735	-0.7	737	738	0.1	732	731	-0.1
교역량	180	178	-0.8	171	166	-2.5	174	170	-2.2
기말재고량	255	258	1.2	240	239	-0.5	240	248	3.3
재고율	34.5	35.1		32.6	32.4		32.7	33.9	

자료: USDA, IGC, FAO-AMIS

그림 2. 세계 밀 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톤, %)



자료: USDA, IGC, FAO-AMIS

1.4. 옥수수

세계 옥수수 생산량에 대해 FAO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USDA와 IGC는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FAO는 1.3% 증가한 1,054백만 톤으로 전망하였으나, USDA는 3.0% 감소한 1,034백만 톤으로 전망하였으며, IGC는 3.1% 감소한 1,026백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공급량의 경우에도 FAO만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기말재고량의 경우에는 USDA는 전년 대비 12.8% 감소한 195백만 톤으로 전망하였으며, IGC는 전년 대비 8.8% 감소한 207백만 톤, FAO는 전년 대비 4.3% 감소한 214백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각 기관별 기말 재고율은 USDA, IGC, FAO 순으로 18.4%, 19.8%, 20.3%이다.

표 4. 세계 옥수수 수급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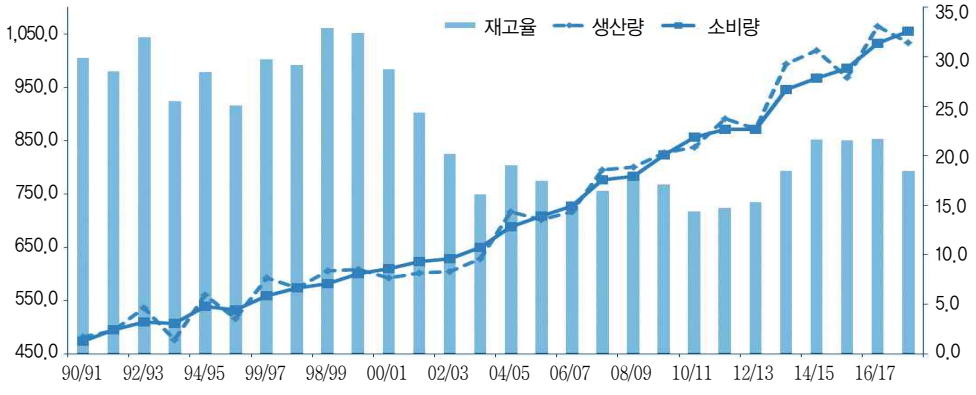
(단위 :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6/17 (추정)	2017/18 (5월 전망)	전년 대비	2016/17 (추정)	2017/18 (4월 전망)	전년 대비	2016/17 (추정)	2017/18 (5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1,065	1,034	-3.0	1,059	1,026	-3.1	1,041	1,054	1.3
공급량	1,277	1,258	-1.6	1,268	1,253	-1.2	1,262	1,278	1.3
소비량	1,054	1,062	0.8	1,041	1,046	0.5	1,035	1,059	2.3
교역량	159	152	-4.2	137	139	1.4	138	135	-2.1
기말재고량	224	195	-12.8	227	207	-8.8	224	214	-4.3
재고율	21.3	18.4		21.8	19.8		21.6	20.3	

자료: USDA, IGC, FAO-AMIS

그림 3. 세계 옥수수 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톤, %)



자료: USDA, IGC, FAO-AMIS

1.5. 대두

세계 대두 생산량에 대해 USDA는 전년 대비 1.0% 감소한 345백만 톤으로 전망하였으나 IGC와 FAO는 전년 대비 증가한 348백만 톤, 346백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공급량, 소비량, 교역량의 경우에는 세 기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기말재고량의 경우 USDA와 IGC는 전년 대비 각각 1.5%, 5.7% 감소한 89백만 톤, 38백만 톤으로 전망한 반면 FAO는 전년 대비 17.4% 증가한 50백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각 기관별 기말 재고율은 IGC, FAO, USDA 순으로 10.8%, 14.8%, 25.8%이다.

표 5. 세계 대두 수급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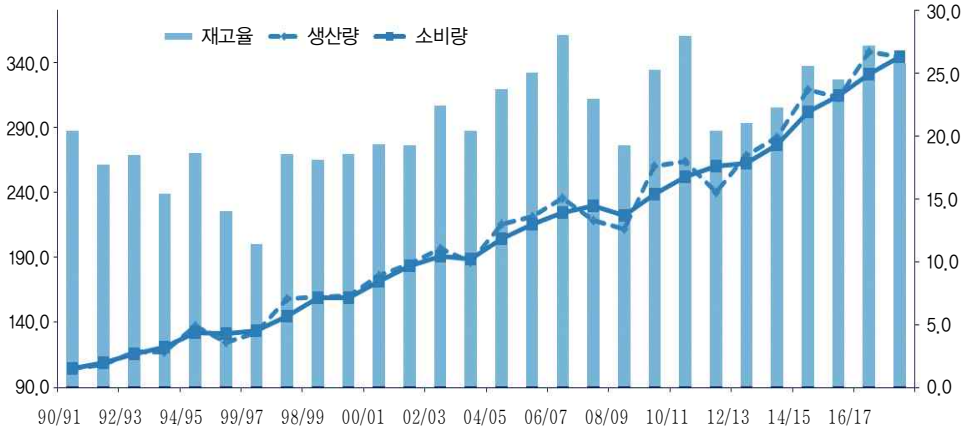
(단위 :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6/17 (추정)	2017/18 (5월 전망)	전년 대비	2016/17 (추정)	2017/18 (4월 전망)	전년 대비	2016/17 (추정)	2017/18 (5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348	345	-1.0	345	348	1.0	315	346	10.0
공급량	425	435	2.3	377	388	2.9	359	389	8.4
소비량	331	344	3.9	337	350	3.9	320	338	5.4
교역량	145	150	3.4	141	146	3.6	135	143	5.9
기말재고량	90	89	-1.5	40	38	-5.7	43	50	17.4
재고율	27.2	25.8		11.9	10.8		13.3	14.8	

자료: USDA, IGC, FAO-AMIS

그림 4. 세계 대두 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톤, %)



자료: USDA, IGC, FAO-AMIS

2. 월별 선물가격 동향

▮ 기상 여건 악화로 곡물 선물가격 전월 대비 상승세

5월 밀 선물 가격은 미국 주산지의 눈보라에 따른 피해 가능성과 밀 생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비 소식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3.5% 상승하였다. 더불어 미 농무부의 수급 보고서에서 예상보다 적은 수준의 공급량을 발표하면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밀 수급 여건이 전년 대비 소폭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 상승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주요 생산지역의 기상 여건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다. 2017년 4월 밀 선물 평균 가격은 154달러였으며, 5월 현재 밀 선물 평균 가격은 톤 당 159달러로 전월 대비 3.5%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4.3% 하락하였다.

5월 옥수수 선물 가격은 파종기 주산지에 내린 비로 인해 재파종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전월 대비 2.3% 상승하였다. 중서부 지역에 내린 비에 따른 습한 기후 및 미 농무부 수급보고서 발표에 따른 생산량 및 재고량 하향 조정 또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옥수수 보조금 정책 폐지에 따른 중국의 생산량 감소가 전체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향후 중서부 지역의 기상 개선 전망 등은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7년 4월 옥수수 선물 평균 가격은 톤 당 143달러였으며, 5월 현재 옥수수 선물 평균 가격은 톤 당 146달러로 전월 대비 2.3% 상승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5.1% 하락하였다.

5월 대두 선물 가격은 주요 생산지에 내린 비로 인한 파종 지연과 팜유 가격 상승에 따른 대두유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또한 미 농무부 수급보고서 발표 결과 생산량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의 경우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증가하지만 단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남미의 수확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브라질 헤알화의 가치가 하락한 점 등은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7년 4월 대두 선물 평균 가격은 톤 당 347달러였으며, 5월 현재 대두 선물 평균 가격은 톤 당 348달러로 전월 대비 0.2%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10.7% 하락하였다.

표 6. 곡물 선물가격 동향

(단위 : 달러/톤)

구분	2015/16	2016/17	2016.5	2017.4	2017.5	증감률(%)		
						전년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밀[1]	177	156	166	154	159	−11.9	−4.3	3.5
옥수수[2]	145	141	154	143	146	−3.3	−5.1	2.3
대두[2]	348	365	390	347	348	4.7	−10.7	0.2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이며 2017년 5월 가격은 24일까지의 평균가격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이며 2017년 5월 가격은 24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그림 5. 밀·옥수수·대두의 월별 선물가격 동향,2001.1~2017.5

(단위 : 달러/톤)

주: 1) 밀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2)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3) 대두는 Chicago 1등급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3. 월별 현물가격(FOB) 동향

▌소비량 증가 전망으로 곡물 현물 가격 상승세

5월 밀 현물 가격은 소비량과 수출량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월 대비 상승하였다. 생산량은 감소하고 소비량과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이월재고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말재고량은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되었다. 중국의 경우 밀 소비량 감소 및 정부의 밀 재고보유 정책 등으로 이월재고량이 증가하면서 기말재고량이 전년 대비 1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7년 5월 현재 밀 수출 가격은 톤 당 200달러로 전월 대비 5.4%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하였다.

5월 옥수수 현물 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강보합세를 보였다. 생산량과 소비량이 전월 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수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사료용 소비량과 식용 소비량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말 재고량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7년 5월 현재 옥수수 수출 가격은 톤 당 159달러로 전월 대비 0.1%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8.6% 하락하였다.

5월 대두 현물 가격은 생산량 감소 및 소비량 증가 전망으로 전월 대비 상승하였다.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단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소비량의 경우 중국의 식용 및 가공용 소비가 증가하면서 세계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중국과 같은 주요 수입국의 활발한 수입수요 등으로 미국과 브라질의 수출량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7년 5월 현재 대두 수출 가격은 톤 당 369달러로 전월 대비 2.2%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8.8% 하락하였다.

그림 6. 밀·옥수수·대두의 월별 현물가격 동향, 2001.7~2017.5

(단위 : 달러/톤)

주: 1) 밀은 US HRW Gulf 2) 옥수수는 US 3YC Gulf 3) 대두는 US 2Y Gulf
자료: 국제곡물이사회(IGC)

▮ 미국 중립종 및 태국 장립종 쌀 가격 모두 상승세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 가격은 최근 아칸소 지역의 홍수 피해 등으로 전월 대비 상승하였다. 또한 캘리포니아 지역의 홍수 피해로 인해 재배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쌀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5월 12일 기준 중립종 쌀 가격은 톤 당 595달러로 전월 대비 0.7%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13.1% 하락하였다.

태국 장립종 쌀의 경우 바트화의 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입의 증가 및 수요 증가 등으로 전월 대비 가격이 상승하였다. 5월 12일 기준 장립종 쌀 가격은 톤 당 393달러로 전월 대비 3.4%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4.1% 하락하였다.

몬순비가 예년보다 빨리 내리면서 2기작 수확이 지연되었으나 출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1기작 파종에 따른 풍부한 수확량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국의 경우 단수는 증가하지만 재배 면적이 감소하였고, 주산지의 파종이 지연되는 등의 요인으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7. 쌀의 월별 현물가격 동향, 2001.7~2017.5

(단위: 달러/톤)

주: 1) 태국 100% 장립종 B등급
2)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1등급
자료: USDA Rice Outlook

표 7. 곡물 현물가격 동향

(단위 : 달러/톤)

구분		2015/16	2016/17	2016.5	2017.4	2017.5	증감률(%)		
							전년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밀[1]		213	192	194	190	200	−9.8	3.3	5.4
옥수수[2]		172	164	174	158	159	−4.5	−8.6	0.1
대두[2]		378	395	404	361	369	4.6	−8.8	2.2
쌀[3]	태국	386	383	410	380	393	−0.8	−4.1	3.4
	캘리포니아	768	599	685	591	595	−22.0	−13.1	0.7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이며 2017년 5월 가격은 23일까지의 평균가격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이며 2017년 5월 가격은 23일까지의 평균가격임.
3) 쌀의 곡물 연도는 8-7월이며 2017년 5월 가격은 12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국제곡물이사회(IGC), USDA Rice Outlook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김민수(애그스카우터 대표)*

미국 농무부는 올해 5월부터 17/18년을 기준으로 한 세계 곡물 수급 전망 자료를 발표했다. 아직까지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등 남반구의 경우 16/17년의 곡물 생산을 종료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반구는 17/18년 곡물 생산을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옥수수를 비롯한 대두와 봄밀의 파종이 시작되었으며 빨리 파종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발아 단계로 들어섰다. 그러나 주요 산지의 기상 상황이 여의치 못해 파종이 지연되고 품질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계속해서 기후 변화와 곡물의 생산 상황을 지켜보아야 한다.

현 시점에서 제공되는 17/18년 세계 곡물 수급 전망 자료는 곡종별 파종 예상 면적과 기후 변화 및 단위당 생산량 변동을 고려한 추정치를 고려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 관측치가 포함될 경우 향후의 수급 관계는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17/18년 주요 곡물의 생산량은 16/17년 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16/17년 대풍작에 따른 이월 재고량이 크게 늘어나 17/18년 기말 재고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6/17년 미국을 비롯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 국가에서의 곡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해 잉여 재고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둔 16/17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겠으나 기상 이변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예년 대비 상당히 양호한 수급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본다.

미국 농무부에서 5월 10일자로 발표한 17/18년 '세계 곡물 수급 전망(WASDE,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보고서를 중심으로 밀, 옥수수, 대두의 수급 관계를 자세히 살펴본다.[1)]

* agscouter@naver.com

1) 본문 자료는 미국 농무부의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그림과 표에 대한 자료 출처는 생략함.

1. 밀

▮ 세계 밀 수급량

17/18년 세계 밀 공급량과 관련하여 16/17년 대비 생산량은 2.0% 감소함에 반해 기초 재고량 및 생산량은 각각 5.3%, 1.8%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초 재고량이 크게 늘어나 세계 밀 공급량은 16/17년 대비 75만 톤 증가한 11억 7,171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5/16년 대비 세계 밀 생산량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초 재고량 및 수입량은 각각 17.4%, 5.1% 증가해 세계 밀 공급량은 4,70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7/18년 세계 밀 수요량과 관련하여 16/17년 대비 사료용 소비량이 6.1% 감소함에 따라 전체 소비량은 0.7% 줄어들고 수출량 또한 0.8%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세계 밀 수요량은 16/17년 대비 666만 톤 줄어든 9억 1,324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5/16년 대비해서는 소비량 및 수출량이 3.2%씩 증가해 세계 밀 수요량은 2,83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6/17년 대비 세계 밀 공급량은 늘어나는 반면 수요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기말 재고량은 294만 톤 증가한 2억 5,829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율은 16/17년 대비 0.5%p 상승한 28.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5/16년 대비해서는 세계 밀 수요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더 크게 증가한 결과 기말 재고량은 1587만 톤 늘어나고 기말 재고율은 0.9%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세계 밀 수급량 및 재고율

(단위: 백만 톤, %)

구분	15/16 (a)	16/17 (b)	17/18 (c)	증감율	
				c/b	c/a
공급량					
기초재고량	217.51	242.42	255.35	5.3	17.4
생산량	737.00	753.09	737.83	−2.0	0.1
수입량	169.95	175.45	178.53	1.8	5.1
수요량					
소비량(사료용)	136.51	147.52	138.54	−6.1	1.5
소비량(전체)	712.08	740.16	734.89	−0.7	3.2
수출량	172.85	179.74	178.35	−0.8	3.2
기말재고량	242.42	255.35	258.29	1.2	6.6
기말재고율	27.40	27.80	28.30	0.5%p	0.9%p

국가별 밀 생산량

16/17년 대비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주요 국가의 밀 생산량이 감소함에 반해 아르헨티나, EU, 중국, 인도의 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호주의 밀 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어듦에 반해 인도의 밀 생산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5/16년 대비해서는 미국, EU,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의 밀 생산량이 감소함을 제외하면 주요 국가의 밀 생산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아르헨티나, 러시아, 인도의 밀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국가별 밀 생산량

(단위: 백만 톤)

구 분	15/16	16/17	17/18
미국	56.12	62.86	49.54
캐나다	27.59	31.70	28.35
아르헨티나	11.30	16.00	17.00
호주	24.17	35.00	25.00
EU	160.48	145.47	151.00
러시아	61.04	72.53	67.00
우크라이나	27.27	26.80	25.00
카자흐스탄	13.75	14.99	13.00
중국	130.19	128.85	131.00
인도	86.53	87.00	97.00

그림 1. 16/17년 대비 밀 생산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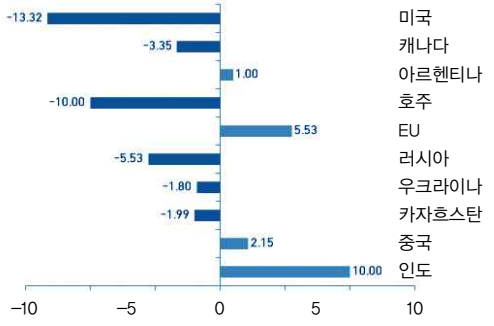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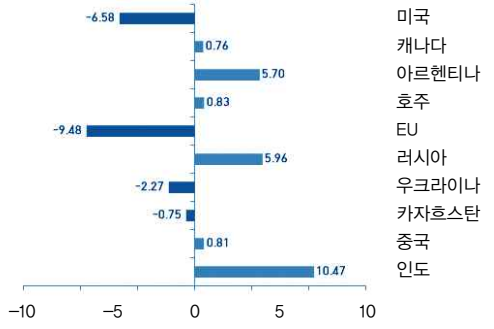


그림 2. 15/16년 대비 밀 생산량 증감

(단위: 백만 톤)



국가별 밀 소비량

16/17년 대비 미국, 러시아, EU, 중국의 밀 소비량이 감소함에 반해 인도, 파키스탄,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의 밀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의 밀 소비량이 큰 폭으로 줄어듦에 반해 인도의 밀 소비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5/16년 대비해서는 EU를 제외한 주요 국가들의 밀 소비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도와 중국의 밀 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반해 EU의 밀 소비량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국가별 밀 소비량

(단위: 백만 톤)

구 분	15/16	16/17	16/17
미국	32.02	32.82	32.41
러시아	37.00	40.00	39.50
EU	129.85	128.50	127.25
중국	112.00	118.50	116.00
인도	88.55	97.50	100.00
파키스탄	24.40	24.50	25.40
서남아시아	37.97	39.23	39.99
북아프리카	43.65	44.73	45.28

그림 3. 16/17년 대비 밀 소비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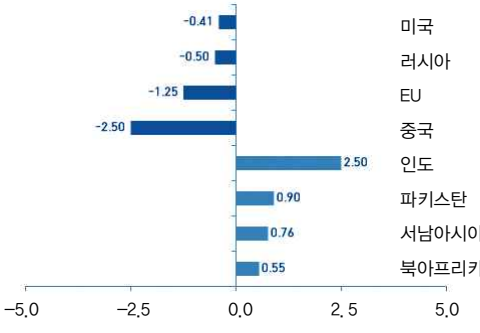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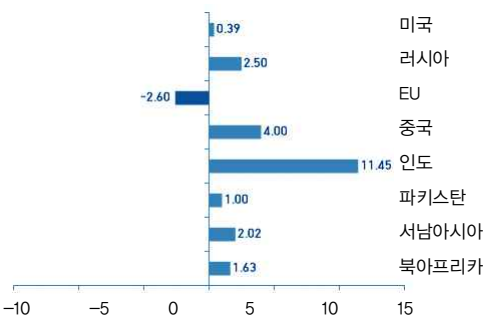


그림 4. 15/16년 대비 밀 소비량 증감

(단위: 백만 톤)



국가별 밀 수출량

16/17년 대비 미국, 호주,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량이 감소함에 반해 그밖에 주요 국가의 밀 수출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의 밀 수출량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된다.

15/16년 대비해서는 EU,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의 밀 수출량이 감소함을 제외하면 주요 국가의 밀 수출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미국, 호주, 러시아의 밀 수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국가별 밀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구 분	15/16	16/17	17/18
미국	21.09	28.17	27.22
캐나다	22.13	20.00	22.00
아르헨티나	9.60	10.20	11.00
호주	16.12	24.00	19.00
EU	34.69	27.00	31.00
러시아	25.54	28.00	29.00
우크라이나	17.43	17.30	14.50
카자흐스탄	7.60	7.00	7.00

그림 5. 16/17년 대비 밀 수출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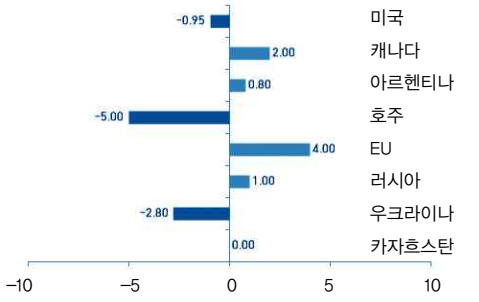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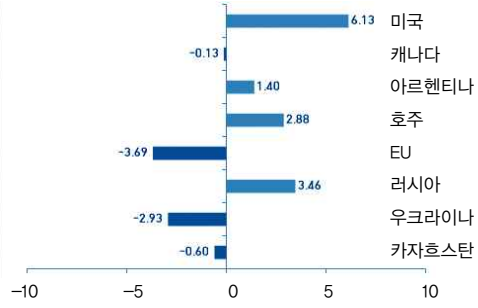


그림 6. 15/16년 대비 밀 수출량 증감

(단위: 백만 톤)



국가별 밀 수입량

16/17년 대비 중국, 인도의 밀 수입량이 감소함에 반해 서남아시아의 밀 수입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 국가의 수입량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5/16년 대비해서는 중국의 밀 수입량이 소폭 감소함에 반해 주요 국가의 밀 수입량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도의 수입량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국가별 밀 수입량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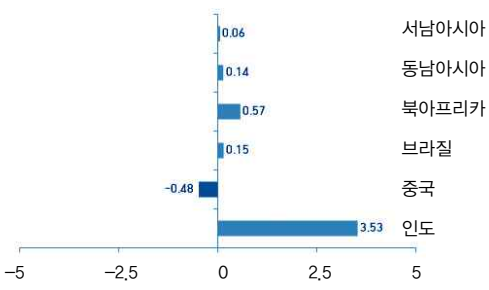
구 분	15/16	16/17	17/18
서남아시아	19.18	17.75	19.24
동남아시아	24.61	24.80	24.75
북아프리카	27.78	28.25	28.35
브라질	6.75	6.80	6.90
중국	3.48	4.20	3.00
인도	0.47	6.00	4.00

그림 7. 16/17년 대비 밀 수입량 증감

(단위: 백만 톤)

그림 8. 15/16년 대비 밀 수입량 증감

(단위: 백만 톤)



국가별 밀 기말 재고율

16/17년 대비 우크라이나, EU, 인도의 밀 기말 재고율이 소폭 상승함에 반해 그 밖에 주요 국가의 밀 기말 재고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캐나다, 카자흐스탄의 밀 기말 재고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5/16년 대비해서는 호주,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밀 기말 재고율이 상승함에 반해 그밖에 주요 국가의 밀 기말 재고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우크라이나, EU, 인도의 밀 기말 재고율이 상당 부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국가별 밀 기말 재고율

(단위: %)

구분	15/16 (a)	16/17 (b)	17/18 (c)	증감율	
				c/b	c/a
미국	50.0	51.7	41.7	−10.0	−8.3
캐나다	17.3	23.7	16.8	−6.9	−0.5
호주	24.2	27.6	25.9	−1.7	1.7
러시아	9.0	15.6	14.1	−1.5	5.1
우크라이나	11.3	7.4	8.0	0.6	−3.3
카자흐스탄	17.7	26.8	20.7	−6.1	3.0
아르헨티나	4.0	3.2	3.1	−0.1	−0.9
EU	9.5	7.1	6.5	0.6	−3.0
인도	16.2	9.9	10.1	0.2	−6.1

2. 옥수수

▮ 세계 옥수수 수급량

17/18년 세계 옥수수 공급량과 관련하여 16/17년 대비 생산량은 3.0% 감소함에 반해 기초 재고량 및 생산량은 각각 5.4%, 5.0% 증가할 전망이다. 기초 재고량 및 수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세계 옥수수 공급량은 16/17년 대비 1,306만 톤 감소한 14억 235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5/16년 대비해서는 기초 재고량, 생산량, 수입량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 옥수수 공급량은 8,43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7/18년 세계 옥수수 수요량과 관련하여 16/17년 대비 사료용 소비량이 2.7% 증가함에 따라 전체 소비량은 0.8% 늘어남에 반해 수출량은 4.2% 줄어들 전망이다. 수출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세계 옥수수 수요량은 16/17년 대비 204만 톤 늘어난 12억 1,421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5/16년 대비해서는 소비량 및 수출량이 각각 10.1%, 26.6%. 증가해 세계 옥수수 수요량은 1억 2,91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6/17년 대비 세계 옥수수 공급량은 줄어드는 반면 수요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기말 재고량은 2,863만 톤 감소한 1억 9,527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율은 16/17년 대비 2.4%p 하락한 16.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5/16년 대비해서는 세계 옥수수 공급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더 크게 증가한 결과 기말 재고량은 1,710만 톤 줄어들고 기말 재고율은 3.5%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 세계 옥수수 수급량 및 재고율

(단위: 백만 톤, %)

구분	14/15	16/17. 17.3월 (b)	16/17. 17.4월 (c)	증감율	
				c/b	c/a
공급량					
기초재고량	209.41	212.37	223.90	5.4	6.9
생산량	968.06	1,065.11	1,033.66	−3.0	6.8
수입량	140.56	137.93	144.79	5.0	3.0
수요량					
소비량(사료용)	603.00	633.94	650.86	2.7	7.9
소비량(전체)	965.10	1,053.59	1,062.30	0.8	10.1
수출량	119.95	158.58	151.91	−4.2	26.6
기말재고량	212.37	223.90	195.27	−12.8	−8.1
기말재고율	19.60	18.50	16.10	−2.4%p	−3.5%p

국가별 옥수수 생산량

16/17년 대비 EU의 옥수수 생산량이 증가함에 반해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이 파종 면적 감소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5/16년 대비해서는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함을 제외하면 주요 국가의 옥수수 생산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와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국가별 옥수수 생산량

(단위: 백만 톤)

구 분	15/16	16/17	17/18
미국	345.51	384.78	357.27
브라질	67.00	96.00	95.00
아르헨티나	29.00	40.00	40.00
우크라이나	23.33	28.00	28.00
EU	58.73	60.71	63.50
남아프리카	8.21	15.30	12.50
중국	224.63	219.55	215.00

그림 9. 16/17년 대비 옥수수 생산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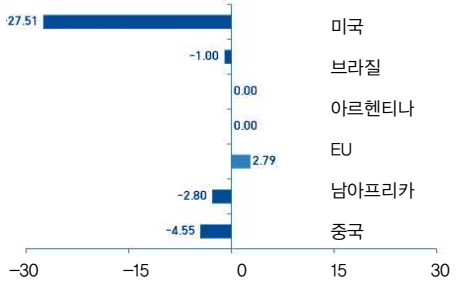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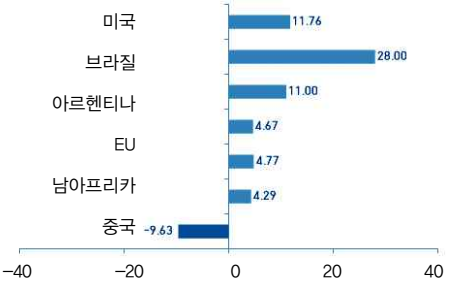


그림 10. 15/16년 대비 옥수수 생산량 증감

(단위: 백만 톤)



국가별 옥수수 소비량

16/17년 대비 주요 국가의 옥수수 소비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가운데 중국의 옥수수 소비량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브라질, EU, 멕시코, 이집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옥수수 소비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5/16년 대비해서도 주요 국가의 옥수수 소비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미국과 중국의 옥수수 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9. 국가별 옥수수 소비량

(단위: 백만 톤)

구 분	15/16	16/17	17/18
미국	298.87	315.48	315.61
브라질	57.50	60.00	61.00
EU	73.50	72.50	75.00
남아프리카	11.20	11.70	11.70
멕시코	37.30	39.80	40.70
이집트	14.85	15.10	15.90
동남아시아	41.15	43.00	44.45
중국	217.50	232.00	238.00
일본	15.20	15.10	15.10

그림 11. 16/17년 대비 옥수수 소비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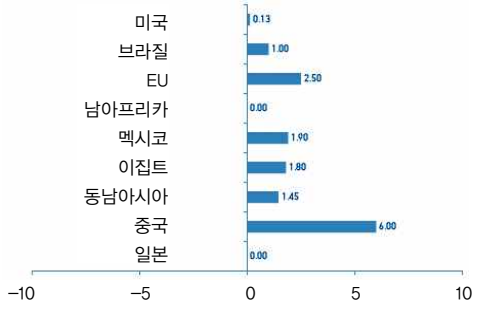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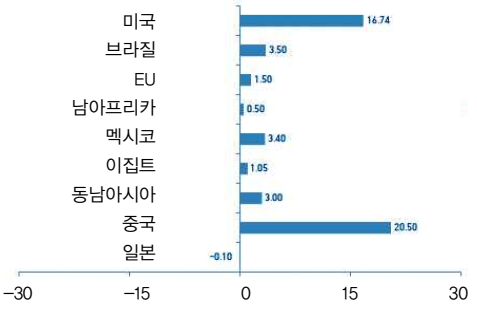


그림 12. 15/16년 대비 옥수수 소비량 증감

(단위: 백만 톤)



국가별 옥수수 수출량

16/17년 대비 미국의 옥수수 수출량이 큰 폭으로 줄어듦에 반해 아르헨티나 및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수출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5/16년 대비해서는 미국의 옥수수 수출량이 약간 줄어들겠으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브라질의 옥수수 수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0. 국가별 옥수수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구 분	15/16	16/17	17/18
미국	48.20	56.52	47.63
브라질	14.00	34.00	34.00
아르헨티나	21.70	27.50	28.50
우크라이나	16.60	19.00	20.00

그림 13. 16/17년 대비 옥수수 수출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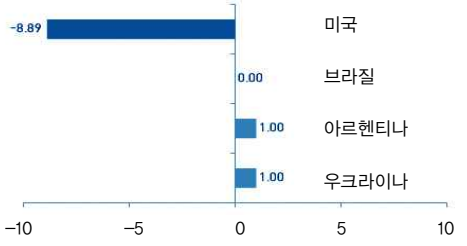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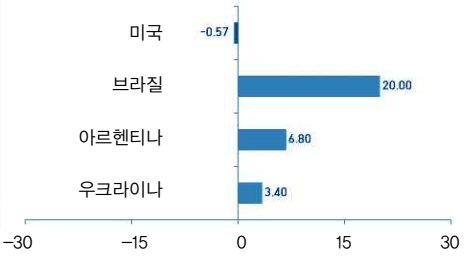


그림 14. 15/16년 대비 옥수수 수출량 증감

(단위: 백만 톤)



국가별 옥수수 수입량

16/17년 대비 중국, 일본의 옥수수 수입량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동남아시아와 이집트, EU, 멕시코, 한국의 옥수수 수입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5/16년 대비해서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의 옥수수 수입량이 소폭 감소함에 반해 멕시코, 이집트의 옥수수 수입량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 국가별 옥수수 수입량

(단위: 백만 톤)

구 분	15/16	16/17	17/18
중국	3.17	3.00	3.00
멕시코	14.01	14.80	15.50
이집트	8.78	9.00	10.00
일본	15.19	15.00	15.00
한국	10.12	9.80	10.20
EU	13.77	13.10	14.00
동남아시아	15.19	13.60	15.10

그림 15. 16/17년 대비 옥수수 수입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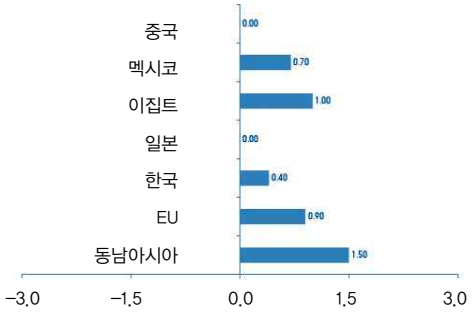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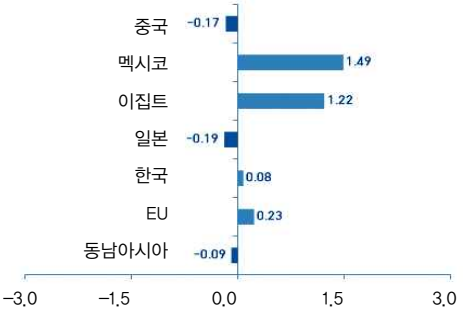


그림 16. 15/16년 대비 옥수수 수입량 증감

(단위: 백만 톤)



▮ 국가별 옥수수 기말 재고율

16/17년 대비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기말 재고율은 소폭 상승함에 반해 미국,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기말 재고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5/16년 대비해서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등 주요 국가의 기말 재고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2. 국가별 옥수수 기말 재고율

(단위: %)

구분	15/16 (a)	16/17 (b)	17/18 (c)	증감율	
				c/b	c/a
미국	12.7	15.7	14.8	−0.9	2.1
브라질	9.5	9.9	10.1	0.2	0.6
아르헨티나	3.4	7.5	7.7	0.2	4.3
우크라이나	2.4	4.5	3.0	−1.5	0.6

3. 대두

▮ 세계 대두 수급량

17/18년 세계 대두 공급량과 관련하여 16/17년 대비 생산량은 1.0% 감소함에 반해 기초 재고량 및 수입량은 각각 16.9%, 4.9%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

하고 기초 재고량 및 수입량 증가로 인해 세계 대두 공급량은 16/17년 대비 1,656만 톤 증가한 5억 8,258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5/16년 대비해서는 기초 재고량, 생산량, 수입량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 대두 공급량은 5,87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7/18년 세계 대두 수요량과 관련하여 16/17년 대비 착유용 소비량이 3.7% 증가함에 따라 전체 소비량은 3.9% 늘어나고 수출량 또한 3.4%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세계 대두 수요량은 16/17년 대비 1,788만 톤 늘어난 4억 9,377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5/16년 대비해서는 소비량 및 수출량이 각각 9.4%, 13.1% 증가해 세계 대두 수요량은 4,70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6/17년 대비 세계 대두 공급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더 크게 늘어나 대두 기말 재고량은 133만 톤 감소한 8,881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 재고율은 16/17년 대비 0.9%p 하락한 18.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5/16년 대비해서는 세계 수요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더 크게 증가한 결과 기말 재고량은 1,173만 톤 늘어나고 기말 재고율은 0.7%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 세계 대두 수급량 및 재고율

(단위: 백만 톤, %)

구분	15/16 (a)	16/17 (b)	17/18 (c)	증감율	
				c/b	c/a
공급량					
기초재고량	77.37	77.08	90.14	16.9	16.5
생산량	313.05	348.04	344.68	−1.0	10.1
수입량	133.40	140.90	147.76	4.9	10.8
수요량					
소비량(착유용)	275.56	290.68	301.53	3.7	9.4
소비량(전체)	314.53	331.29	344.21	3.9	9.4
수출량	132.22	144.60	149.56	3.4	13.1
기말재고량	77.08	90.14	88.81	−1.5	15.2
기말재고율	17.30	18.90	18.00	−0.9%p	0.7%p

국가별 대두 생산량

6/17년 대비 미국,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이 감소함에 반해 중국의 대두 생산량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5/16년 대비해서는 아르헨티나 및 중국의 대두 생산량은 소폭 증가함에 반해 미국과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4. 국가별 대두 생산량

(단위: 백만 톤)

구 분	15/16	16/17	17/18
미국	106.86	117.21	115.80
브라질	96.50	111.60	107.00
아르헨티나	56.80	57.00	57.00
중국	11.79	12.90	13.80

그림 17. 16/17년 대비 대두 생산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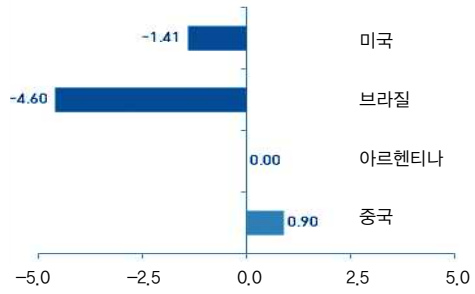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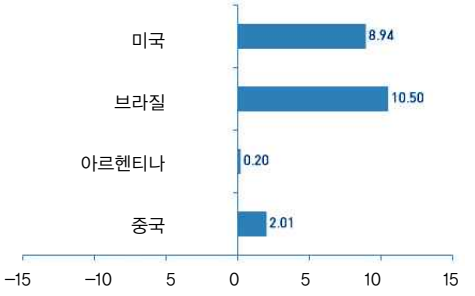


그림 18. 15/16년 대비 대두 생산량 증감

(단위: 백만 톤)



국가별 대두 소비량

16/17년 대비 중국의 대두 소비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EU의 대두 소비량 또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5/16년 대비해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대두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EU의 대두 소비량 또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5. 국가별 대두 소비량

(단위: 백만 톤)

구 분	15/16	16/17	17/18
미국	54.64	55.60	56.75
브라질	43.40	45.05	45.70
아르헨티나	47.56	49.25	50.00
EU	16.83	16.84	17.24
중국	95.00	101.10	106.80

그림 19. 16/17년 대비 대두 소비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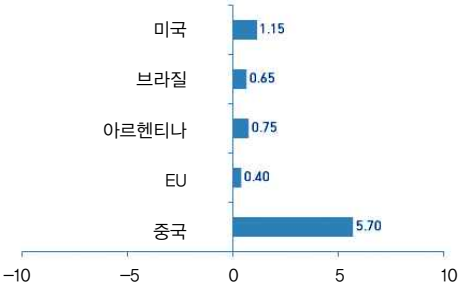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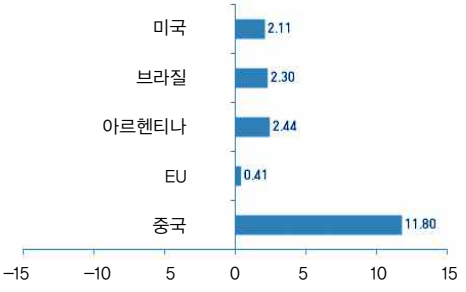


그림 20. 15/16년 대비 대두 소비량 증감

(단위: 백만 톤)



국가별 대두 수출량

16/17년 대비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출량은 변동이 없는 가운데 미국과 브라질의 대두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5/16년 대비해서는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출량이 줄어들겠으나 미국과 브라질의 대두 수출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브라질의 대두 수출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표 16. 국가별 대두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구 분	15/16	16/17	17/18
미국	52.69	55.79	58.51
브라질	54.38	61.90	63.50
아르헨티나	9.92	9.00	9.00

그림 21. 16/17년 대비 대두 수출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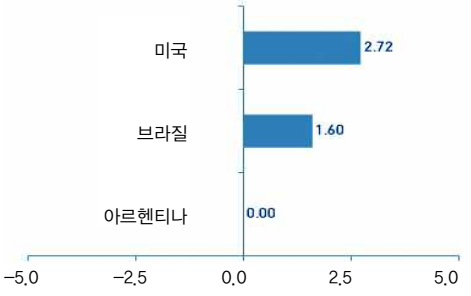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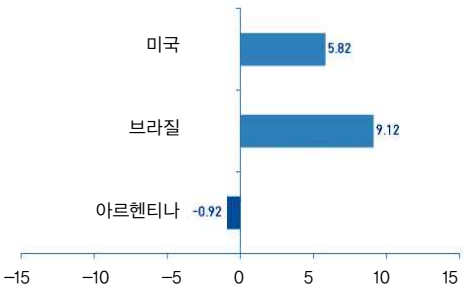


그림 22. 15/16년 대비 대두 수출량 증감

(단위: 백만 톤)



대두 수입량

16/17년 대비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멕시코, 일본, EU 역시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5/16년 대비해서도 중국의 대두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멕시코와 일본 역시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7. 국가별 대두 수입량

(단위: 백만 톤)

구 분	15/16	16/17	17/18
중국	83.23	89.00	93.00
멕시코	4.13	4.20	4.30
일본	3.19	3.20	3.30
EU	15.01	14.60	15.00

그림 23. 16/17년 대비 대두 수입량 증감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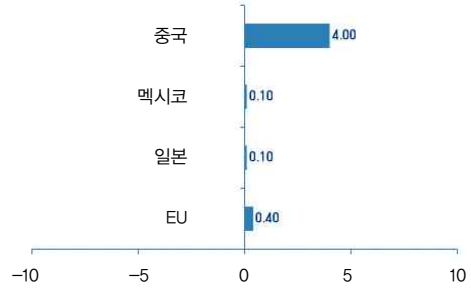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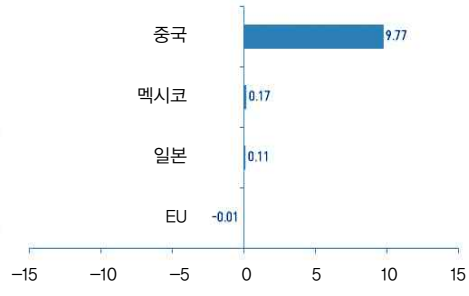


그림 24. 15/16년 대비 대두 수입량 증감

(단위: 백만 톤)



국가별 대두 기말 재고율

16/17년 대비 미국의 대두 기말 재고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밖에 주요 국가의 기말 재고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방된다. 특히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의 대두 기말 재고율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5/16년 대비해서는 미국과 브라질의 대두 기말 재고율이 상승함에 반해 아르헨티나, EU, 중국의 대두 기말 재고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8. 국가별 대두 기말 재고율

(단위: %)

구분	15/16 (a)	16/17 (b)	17/18 (c)	증감율	
				c/b	c/a
미국	5.0	10.6	11.4	0.8	6.4
브라질	18.5	21.7	19.6	−2.1	1.1
아르헨티나	55.2	54.3	52.3	−2.0	−2.9
EU	6.1	6.0	5.9	−0.1	−0.2
중국	17.8	17.3	16.3	−1.0	−1.5

해외 곡물 선물 5월 동향과 6월 전망

임호상(Economist & Grain Analyst)*

[요약] 5월 18일 기준으로 미국 주요 곡물 선물 가격은 4월말 대비 옥수수 +0.5%, 대두 −7.3%, 소맥 −2.0%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곡물 선물은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도 가격 조정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 농무부가 5월 10일 발표한 WASDE 곡물 수급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산 옥수수와 소맥의 2017/18년도 기말재고율이 하향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우로 인한 옥수수 파종 작업 지연 우려가 완화되면서 주요 곡물 가격의 조정 흐름은 이어졌다.

이로 인해 5월에도 전월과 마찬가지로 옥수수 파종과 관련한 날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 상황이 이어지며 곡물 가격은 방향성을 잡기 힘든 흐름을 보였다.

6월 곡물 전망과 관련해 시장외적 가격 변동 요인을 살펴보면,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논란 속에 향후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되면, 그 동안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해왔던 재정지출 확대, 기업 감세 확대 정책이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 2) OPEC과 러시아를 비롯한 非OPEC국가들이 내년 3월까지 현행 산유량 감산 규모를 연장해서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유가의 추가 하락 제한 가능성 부각, 3) 중국의 주택 시장 및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곡물 시장 내적 수급 요인을 보면, 여전히 미국 재배지역의 강우량 증가에 따른 옥수수 파종 지연 리스크가 남아 있는 점은 옥수수 선물 가격의 하락을 제한할 요인이다. 다만 고온 건조한 기후로 인한 한발 피해가 파종에 미칠 영향력에 비한다면, 현재 수준의 강우량이 옥수수 파종에 미칠 영향력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강우량에 대한 우려로는 곡물선물 가격의 반등 폭을 확대시키기는 힘들 전망이다.

실제 5월 22일 Crop Progress 리포트에서, 옥수수와 대두 파종 작업이 당초 우려와 달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 점도 **곡물 가격 반등 폭을 제한할 요인이다.**

[차트: 블룸버그, USDA, 삼성선물]

* ryanlim@naver.com

1. 곡물 5월 동향: 대두 생산 증가 및 작황 우려 완화 속 조정 지속

표 1. 5월 주요 상품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5월 18일 종가 기준)

품목	옥수수	대두	소맥	원당	원면	원유
전년말比 (%)	+0.5%	−7.3%	−2.0%	−15.0%	+11.0%	−12.6%
전월말比 (%)	−0.14%	−1.2%	−1.5%	−0.6%	+0.5%	+0.0%

5월 18일 기준으로 미국 주요 곡물 선물 가격은 4월말 대비 옥수수 +0.5%, 대두 −7.3%, 소맥 −2.0%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곡물 선물 가격은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도 조정 흐름을 이어갔다.

그림 1. 옥수수 선물 가격 추이

그림 2. 소맥 선물 가격 추이

미국 농무부(USDA)가 5월 10일 발표한 WASDE 곡물 수급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산 옥수수와 소맥의 2017/18년도 기말 재고율이 하향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22일 발표된 USDA의 Crop Progress에서 강우로 인한 옥수수 파종 작업 지연 우려가 완화되면서 주요 곡물 가격의 조정 흐름은 이어졌다.

그림 3. 대두 선물 가격 추이

그림 4. 대두 오일 선물 가격 추이

따라서 5월도 4월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옥수수 파종과 관련한 날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 상황이 이어지며 곡물 가격은 방향성을 잡기 힘든 흐름을 보였다.

▮ 美 강우로 인한 옥수수 파종 지연 우려 제한됨

지난 5월 전망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4월부터 5월까지의 옥수수 파종 시기에 진입한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옥수수 재배지역의 강우량 증가로 인한 파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옥수수 가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수분 과잉 우려에도 최근 보급된 농기계들은 단기간 내에 맑은 날씨가 전개되면 면적에 따라서는 수 시간 내에 파종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이다. **즉 미국은 가뭄이 파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반면,** 홍수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강우로 인한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기에, 현재 수준의 강우라면 곡물 가격에 미칠 영향력이 확대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물론 옥수수 파종 지연은 대두 파종면적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대두 선물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이다. 실제 **5월 중순까지 옥수수 파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잔존하면서 대두 가격은 하락 흐름을 나타냈다.**

한편 곡물 수급외적 요인으로는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FBI 국장 경질로 인한 '러시아 게이트' 논란 속에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부각되고, 2) 그 여파 속에 브라질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 재연으로 인한 브라질 국채 가격 및 주가 지수 급락 움직임 등이 나타나면서, 안전자산 선호 흐름이 부각된 부분은 위험 자산인 곡물 가격의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 2. 주요 농산물 선물 가격 및 거래량 변화 추이(5/18일 종가 기준)

상품	현재	전주말	주간 변동	주간 변동률 (%)	전월말 대비 (%)	전년 대비 (%)	거래량	거래량 증감	미결재 약정	미결재 약정 증감
옥수수	371	370.8	0.25	0.1	-0.1	0.5	772,761	-326,944	733,856	10,614
대두	963	973.0	-10	-0.1	-1.2	-7.3	496,806	-48,364	356,046	-10,133
소맥	432.75	442.4	-9.5	-2.1	-1.5	-2.0	319,764	-248,434	263,407	3,106
대두유	32.84	32.9	-0.06	-0.2	2.3	-7.7	247,311	-54,606	208,036	-7,811
원면	82.18	77.8	4.41	-5.7	0.5	11.0	124,059	68,551	131,456	-8,257
원당	15.51	15.3	0.2	1.3	-0.6	-15.0	212,393	-29,901	367,883	-15,760
커피	134.95	135.7	-0.75	-0.6	-2.8	-8.5	68,743	-6,281	04,138	-3,083
돈지육	78.6	76.8	1.775	2.3	5.4	4.7	85,133	29,795	58,106	19,962
생우	121.775	121.2	0.6	0.5	-0.3	18.8	225,963	-4,761	169,726	48,622

2. 곡물 선물 6월 전망

▮ 시장 외부 환경 1: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한 우려 지속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1) 하원 과반수의 탄핵 결정, 2) 상원에서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서만 탄핵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40석, 민주당이 193석인 상황이며, 상원도 공화당 52석, 민주당 46석, 무소속 2석인 상황이기 때문에 표결로 통과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특히 탄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공조했다는 명확한 물적 증거가 나와야 하며, 정황적인 증거에만 근거한 정치적인 대통령 탄핵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코미 FBI 국장을 해임했다는 것이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사법 방해죄'가 적용되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코미 메모'와 관련해서, **코미 전 FBI 국장의 상원 정보위원회 증언 일자는**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인 5월 29일 전후가 될 전망이며, **증언 결과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리스크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트럼프 탄핵 논란의 기본적 리스크 요인은, 이 같은 논란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그 동안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해왔던 1) 재정지출 확대, 2) 기업 감세 확대 정책이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1972년 6월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부각된 후 닉슨 대통령이 실제로 사임한 것은 1974년 8월로 2년 이상 논란이 지속 되었다. 당시 처음 워터게이트 사건이 부각되었을 때는 7월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6% 가량 하락했지만, 1973년에는 전고점을 상회하기도 했다. 그 후 1973년 10월 제4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며 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고, 그런 상황에서 1974년 8월 닉슨이 사임함에 따라, 주가는 1974년 말에는 전고점 대비 40% 넘게 하락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탄핵 논란의 경우는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여론의 대통령 지지율이 38%대에 불과한 상황이고, 만에 하나 트럼프의 사임이 이루어질 경우 그 후임자인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정치적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란 점이 사태를 진정시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 펜스 부통령은 인디애나州 6선 하원의원이며 주지사까지 역임한 경험이 있어 공화당 내부에서는 차라리 펜스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낫다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악의 시나리오인 트럼프 탄핵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 충격파는 닉슨 당시와는 달리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최근 미국과 마찬가지로 브라질의 경우도 정치적 리스크 요인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 같은 정치적 리스크 요인들로 인한 브라질 헤알화 약세 흐름은 옥수수, 대두 등 미국산 곡물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5. 브라질 헤알화 추이

그림 6. 호주달러 환율 추이

▮ 시장 외부 환경 2: 제한적이지만 잔존하는 유럽 정치 리스크

지난 5월 7일의 프랑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중도파인 마크롱(Macron)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프렉시트 우려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다음으로 남아 있는 리스크 요인은 6월 8일로 예정된 영국의 하원선거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메이 총리의 보수당에 대한 지지율이 약 40%로 야당 제 1당인 노동당에 대한 지지율 약 20%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보수당의 낙승이 예상된다. 이는 향후 영국의 브렉시트 진행 속도를 가속화시키면서 유로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결국 달러화의 유로화에 대한 상대적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으로 미국산 소맥 가격의 급락 흐름은 일정 부분 제한할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림 7. 달러화 지수 추이

그림 8. 유로화 환율 추이

다만 실질실효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된다면 **여전히 달러화는 고평가, 유로화는 저평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맥과 같은 유로존의 생산 비중이 높은 미국산 곡물 선물 가격의 반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유로화 강세 흐름이 나타날 필요가 있다.

그림 9. 미 달러화 실질실효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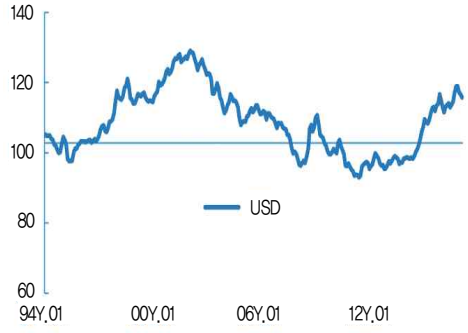


그림 10. 유로화 실질실효환율 추이

▮ 시장 외부 환경 3: 미국 고용 회복과 글로벌 경기 턴어라운드

기본적으로 1) 미국 기업들의 실적 개선 속에 고용지표의 추세적 개선 흐름 지속, 2) 개인들의 소득 및 지출 회복 흐름, 3) 소득 증가 속 주택시장 심리 지표의 견조한 모습, 4) 그리고 OECD 경기선행 지수의 개선 흐름 등을 통해 볼 때, **미국 주도의 글로벌 경기회복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그림 11. 미국 개인들 소득/지출 회복 흐름은 이어짐

그림 12. 미국 불완전 고용률 하락세 지속

그림 13. 주택시장 심리는 고용 개선 속에 견조한 모습

(단위: 천호)

그림 14. 신축 주택 판매 개선 흐름 이어짐

(단위: 천호)

그림 15. OECD 주요 7개국 경기 선행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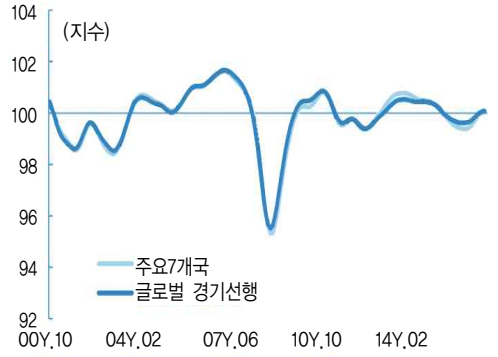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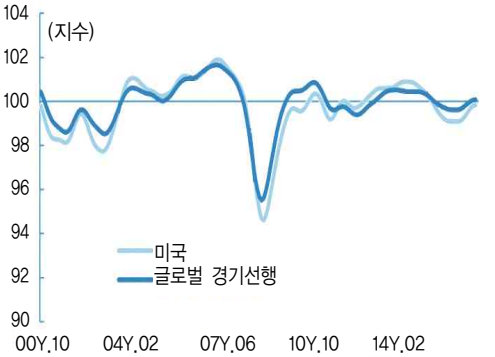


그림 16. OECD 미국 경기 선행 지수



시장 외부 환경 4: 유럽과 일본의 경기회복 지속

유럽의 경우 실업률 하락 속에 개인소비 회복 흐름도 이어지고 있어 향후 경기 회복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 17. 유로존 실업률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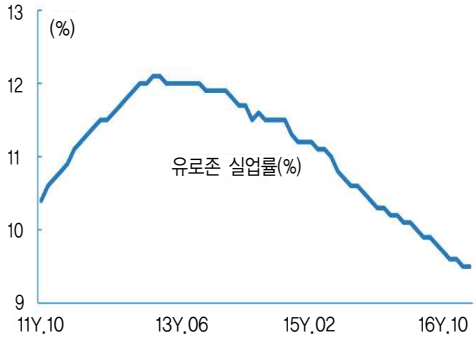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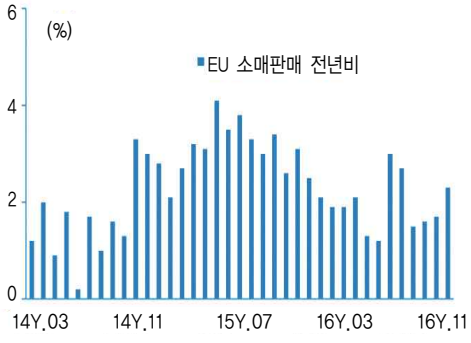


그림 18. 이로 인한 소비 회복세 지속



그리고 일본의 경우도 아직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상황이라 경기 회복세가 확연해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NHK의 5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부 IT 기업들의 경우 재학 중 연구 성과가 있는 우수 신입사원의 경우는, 대졸 초임을 일반 수준인 월 22만 5천 엔 대비 35% 증가한 30만 5천 엔을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NHK가 조사한 대기업 228개 사 가운데 약 4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초임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아직은 설비투자 주도의 경기회복이 진행되겠지만, 점진적으로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을 통한 개인소비 회복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

그림 19. 일본 실업률 하락 흐름지속

그림 20. 아직 기업들이 지갑을 완전히 열지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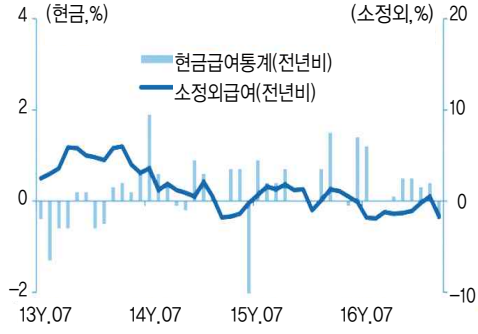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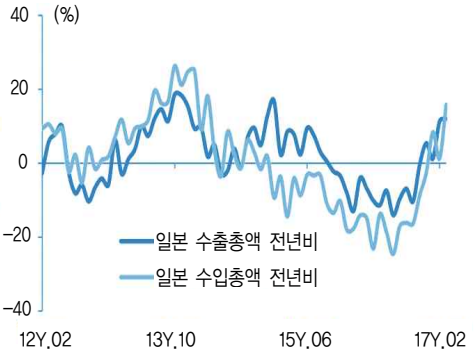


그림 21. 일본 기업 설비투자 주도 경기 회복 이어짐

그림 22. 경기회복 흐름 속에 수입액 증가 폭 확대



▮ 시장 외부 환경 5: OPEC과 러시아의 감산 연장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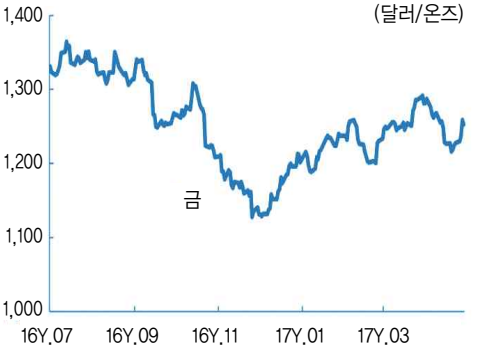
OPEC과 러시아를 비롯한 非OPEC국가들은 5월 25일 정기 총회를 통해 내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현행 산유량 감산 규모를 연장해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1) 트럼프 대통령이 OPEC 회의가 열리기 전인 5월 23일 향후 10년간 2억 7천만 배럴의 전략비축유를 시장에 판매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2) 유가 상승 시에는 미국산 셰일가스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는 점 등으로 인해 유가의 상승은 제한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 같은 OPEC과 非OPEC 국가들 간의 감산 합의 연장은 원유 가격이 배럴당 40~50달러의 밴드권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디플레이션 탈피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3. WTI 원유, OPEC 감산 연장 기대 속에 반등

그림 24. 금 선물, 미국 정치 리스크 부각 속에 반등



시장 외부 환경 6: 다만 향후 트럼프 관련 리스크 요인에는 주의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란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최악의 경우 펜스 부통령이라는 대안이 존재함을 감안하면 미국의 경기 회복 흐름 자체는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달러화의 약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래 미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의 경우 최근 하락 폭이 커지면서 단기적인 경기 정체 국면의 도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림 25. 달러화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속에 약세

그림 26. 미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하락, 단기 경기 정체 국면

그림 27. 개인 소비 심리지수 회복 속도 둔화

그림 28. 소매 판매 개선 후 조정 흐름

시장 외부 환경 7: 중국 정부의 규제 지속에 따른 리스크 요인 주의

중국 정부의 최근 가격이 급등한 대도시 지역 주택가격 규제, 그리고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등은 중국 경기 회복 속도가 완만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회사채

리스크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고, 경기선행지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부분도 이 같은 우려를 지속시킬 부분이며, 향후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을 전망이다.**

그림 29. 중국 회사채 리스크 스프레드 아직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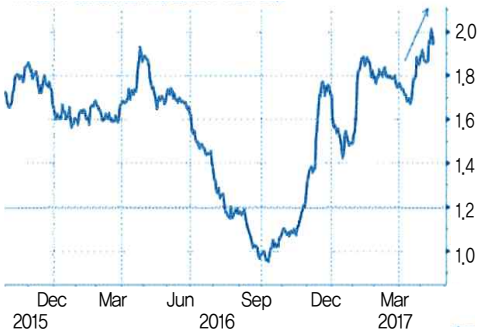


그림 30. 중국 경기 선행지수 다시 하락

그림 31. 중국 주택시장 규제 강화로 가격 상승 폭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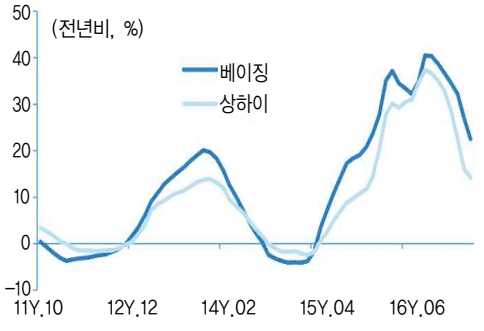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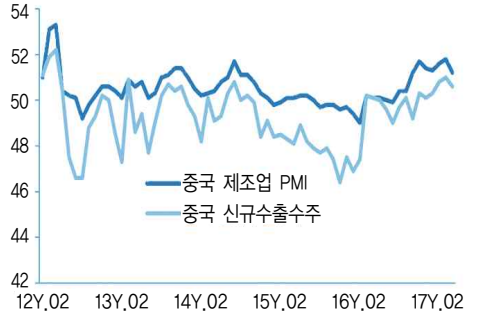


그림 32. 국내 신규수출 수주 및 제조업 PMI 지표 둔화



▮ 美 농무부 5월 수급 전망: 미 기말재고율 감소는 하락 제한 요인

미국 농무부가 5월 10일 발표한 5월 글로벌 곡물수급 전망자료(WASDE)에서 미국산 곡물의 2016/17년도 기말재고율 전망치는 옥수수가 4월의 15.9%에서 5월에는 15.7%로 하락했고, 대두도 10.9%에서 10.6%로 하락, 소맥도 51.8%에서 51.7%로 하락했다. 다만 2017/18년도 기말재고율 전망치는 대두의 경우 11.3%로 전년도의 10.6%를 상회할 것으로 나타나며 **대두 가격 하락을 통해 곡물 가격의 조정 흐름을 이어갔다.**

표 3. 5월 WASDE 미국 주요 곡물별 기말재고율 전망치 변화

(단위: %)

곡물 연도	2016/17		2017/18
	4월	5월	5월
옥수수	15.9	15.7	14.8
대두	10.9	10.6	11.3
소맥	51.8	51.7	41.7

다만 2017/18년도 미국의 옥수수, 소맥 기말재고율은 전년대비 하락할 전망이며 특히 소맥의 경우는 41.7%로 2016/17년도 전망치 5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추가적인 곡물 가격 하락 폭을 제한하게 될 요인이다. 특히 아래 표에서 보듯 글로벌 주요 곡물 기말재고율도 소맥을 제외하고는 2017/18년도에는 기말재고율이 전년도 대비 하락할 전망인 점도 추가적인 곡물 가격 낙폭 제한 요인이다.

표 4. 5월 WASDE 글로벌 주요 곡물별 기말재고율 전망치 변화

(단위: %)

곡물 연도	2016/17		2017/18
	4월	5월	5월
옥수수	21.4	21.3	18.4
대두	26.3	27.2	25.8
소맥	34.1	34.5	35.1

이런 가운데 옥수수 파종 시기인데 따른 시장의 관망세 강화 요인으로 인해, 곡물 선물 가격은 레인지장의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날씨에 따라 단기 등락을 거듭하는 방향성을 잡기 힘든 기간이 이어질 전망이다.

6월 전망 정리: 시장외적 리스크 요인과 대두 파종 확대 여부 주의

곡물 시장 외적 요인을 보면, 유럽의 정치 불안 요인들은 축소되었지만, 1) 향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2) **그리고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레임덕 현상 부각 리스크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움직임, 그리고 이로 인한 위험자산인 상품 선물 가격의 하락 가능성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앞서 여러 차트들을 통해 설명했듯이 1) 기본적인 글로벌 경기 회복 흐름 지속, 2) OPEC과 러시아의 추가적인 원유 9개월 간 감산 조치 합의 등으로 인한 유가 하락 제한 요인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가격 하락 요인들은 완화될 전망이다.

곡물 시장 내적 수급 요인을 보면, 여전히 미국 재배지역의 강우량 증가에 따른 옥수수 파종 지연 리스크가 남아 있는 점은 옥수수 선물 가격의 하락을 제한할 요인이다. 다만 고온 건조한 기후로 인한 한발 피해가 파종에 미칠 영향력에 비한다면, 현재 수준의 강우량이 옥수수 파종에 미칠 영향력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강우량에 대한 우려로는 곡물선물 가격의 반등 폭을 확대시키기는 힘들 전망이다.

물론 옥수수 파종 지연에 대한 우려는 대두 파종면적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대두 선물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이다. 실제 **5월 중순까지 옥수수 파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잔존하면서 대두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Crop Progress 보고서, 순조로운 옥수수/대두 파종 작업 시사

한편 5월 22일에 발표된 USDA의 Crop Progress 보고서를 보게 되면, 옥수수의 파종면적은 5월 21일 기준으로 84%에 달해 전주의 71%를 상회하면서 최근 5개년 평균치인 85%에 근접한 상황이다.

또한 대두 파종면적도 53%로 전주의 32%를 상회하는 한편, 최근 5개년 평균치인 52%를 상회하고 있어서, 최근의 강우로 인한 파종 작업 지연 우려에도 불구하고, 옥수수와 대두의 파종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대두 가격 주도의 가격 조정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겠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5월 USDA 수급전망에서 옥수수와 대두의 경우는 2017/18 곡물연도 글로벌 기말재고율이 하향 수정됨에 따라, 가격 하락 폭은 제한될 전망이다.

엘니뇨 발생 확률 제한적인 점도 가격 반등 폭을 제한할 부분임

다음 차트들은 엘니뇨 발생 확률을 나타내는 OCNI 지표와 주요 곡물 선물 가격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 차트로 판단하건데 아직은 이상 기후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 곡물 가격의 반등 폭을 제한할 요인이다.

그림 33. 옥수수 선물 가격과 엘니뇨 확률(OC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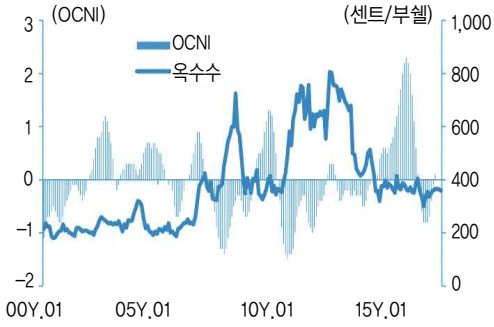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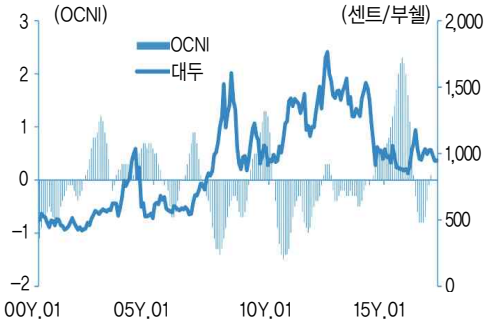


그림 34. 대두 선물 가격과 엘니뇨 확률(OCNI)



미국 곡물 주간 수출검사 추이도 가격 반등 기대를 제한할 전망

아래 미국의 곡물 주간 수출검사 추이를 보면, 향후 옥수수, 대두, 소맥 모두 주간 수출검사 물량의 변화 폭이 축소되며 가격 등락 폭이 제한될 가능성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35. 옥수수 주간 수출 검사 계절성

그림 36. 옥수수 선물가격 추이

그림 37. 대두 주간 수출 검사 계절성

그림 38. 대두 선물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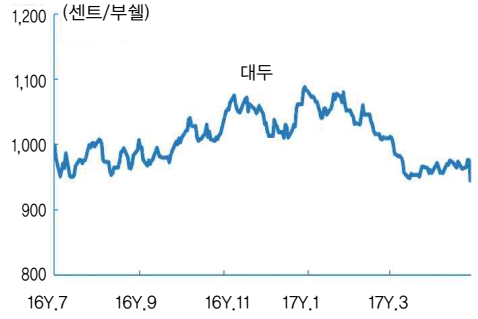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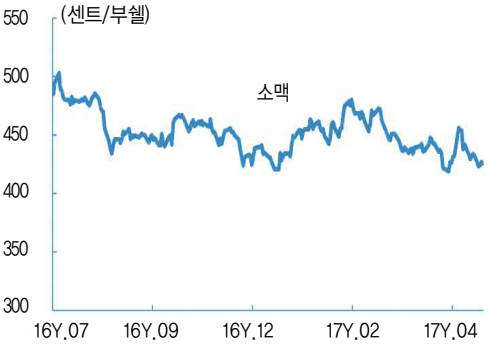


그림 39. 소맥 주간 수출 검사 계절성

그림 40. 소맥 선물 가격 추이



곡물 선물 포워드커브 현황: 미국 옥수수 파종 상황에 주의

옥수수와 대두의 파종 시즌인 가운데 날씨에 따른 가격 등락이 예상된다. 2015년과 2016년 옥수수 포워드커브 움직임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수급 문제는 제한된 가운데, 미국의 옥수수/대두 파종과 관련해 곡물 재배지역 날씨와 파종 상황이 단기적인 가격 방향성을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5월 22일 Crop Progress 리포트에서 옥수수와 대두의 파종 작업이 예년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옥수수와 대두 모두 포워드커브의 추가적인 하향 쉬프트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림 41. 2017년 옥수수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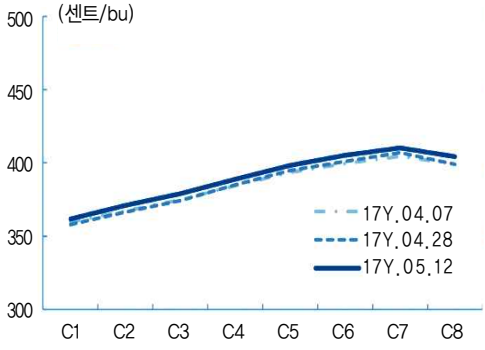


그림 42. 2015년 옥수수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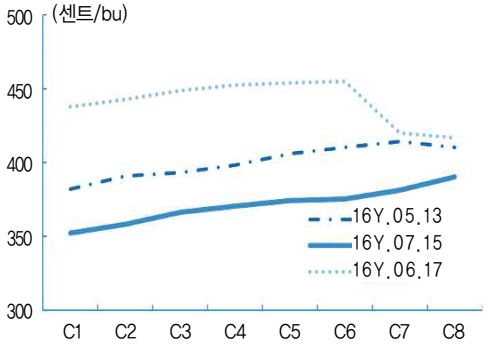


그림 43. 2017년 옥수수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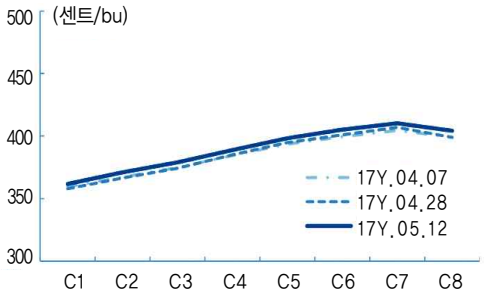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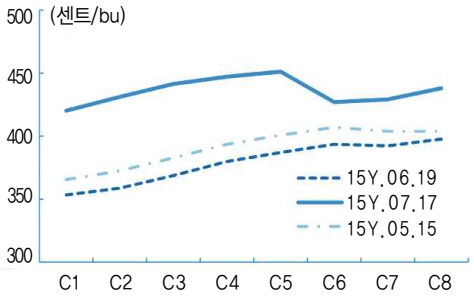


그림 44. 2016년 옥수수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대두 역시 과거 2015, 2016년의 포워드커브 움직임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대두는 5월 중순까지 옥수수 파종이 강우로 인해 지연되며 대두 파종 면적이 확대될 것이란 예상으로 가격 하락 요인이 부각되었다. 그런 가운데 Crop Progress 리포트에서 대두 파종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 부분은 가격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2017/18 곡물연도 글로벌 대두 기말재고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가격 하락 흐름 속에서도 그 폭을 제한할 요인이다.

그림 45. 2017년 대두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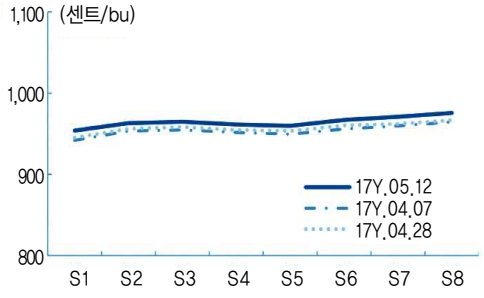


그림 46. 2016년 대두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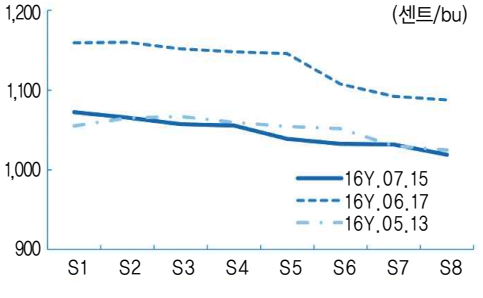


그림 47. 2017년 대두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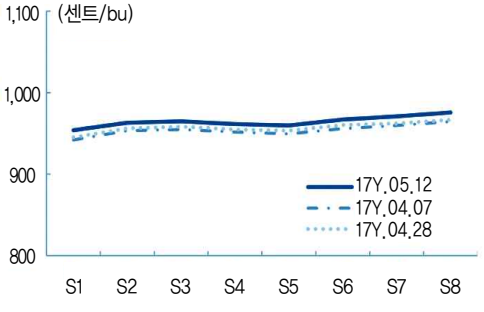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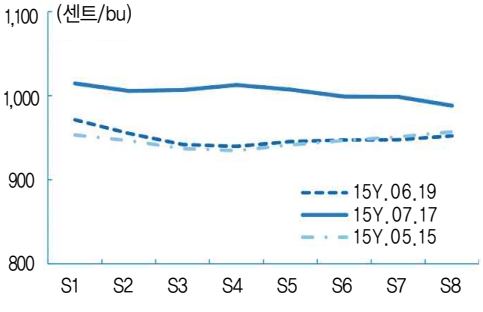


그림 48. 2015년 대두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소맥도 과거 2015, 2016년에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미국 농무부의 5월 WASDE 보고서에서 2017/18년도 미국산 소맥의 기말재고율이 41.7%로 2016/17년도 전망치 5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추가적인 소맥 가격 하락 폭을 제한하게 될 요인이다.

그림 49. 2017년 소맥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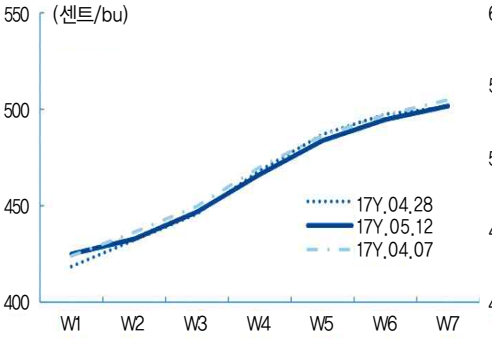


그림 50. 2016년 소맥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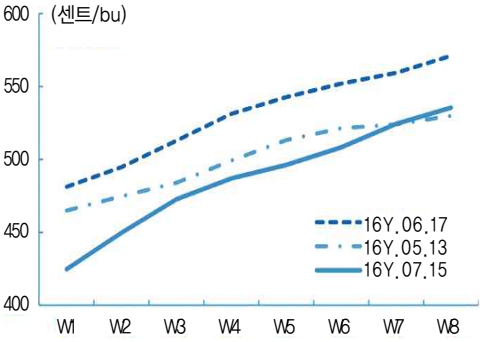


그림 51. 2017년 소맥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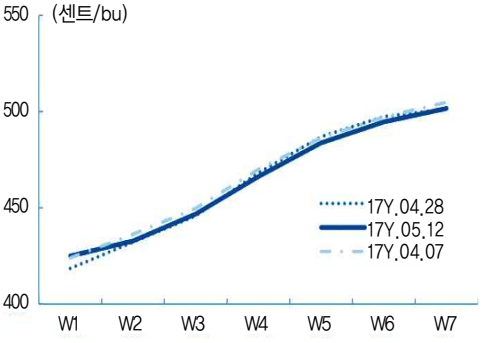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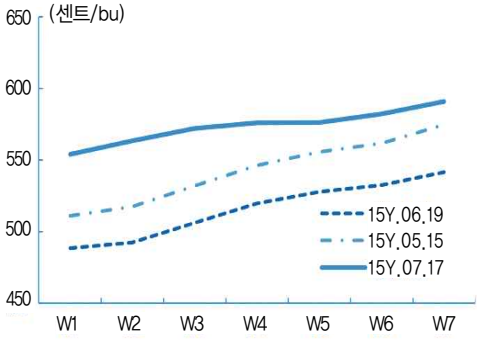


그림 52. 2015년 소맥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옥수수와 소맥 단기 반등 가능성

다음 Managed Fund들의 옥수수 선물 투기적 순매도 포지션 확대 흐름이 이어진 상황이다. 따라서 직전 저점 수준까지 순매도 포지션이 늘어난 상황이므로 단기 기술적 반등 가능성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53. 옥수수 선물 Managed Fund 순매수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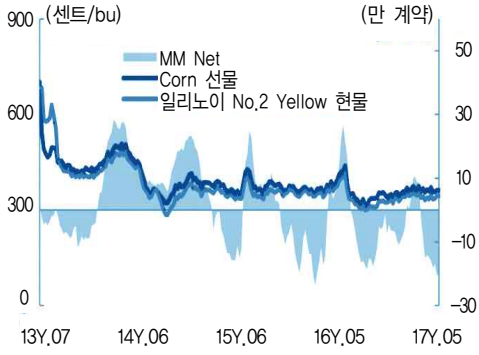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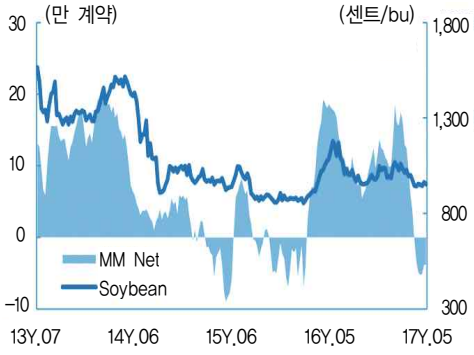


그림 54. 대두 선물 Managed Fund 순매수 포지션 추이



소맥 선물의 경우 전저점 부근까지 순매도 포지션의 확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일부 저가 매수세가 나타난 모습이다. 이번 WASDE 5월 수급 전망에서 제시된 2017/18년도 미국산 소맥 기말재고율 축소 전망이 추가 가격 하락을 막아 줄지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55. 대두 선물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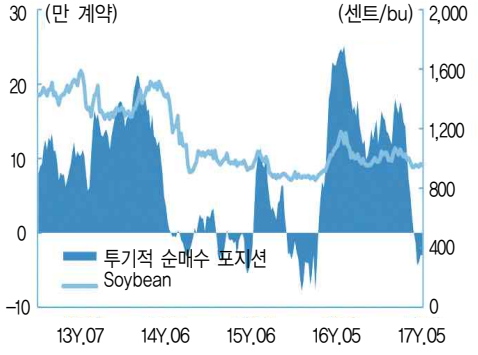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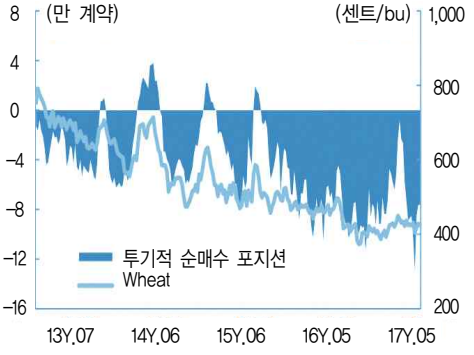


그림 56. 소맥 선물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추이



▮ 대두/옥수수 선물 상대 가격 비율 추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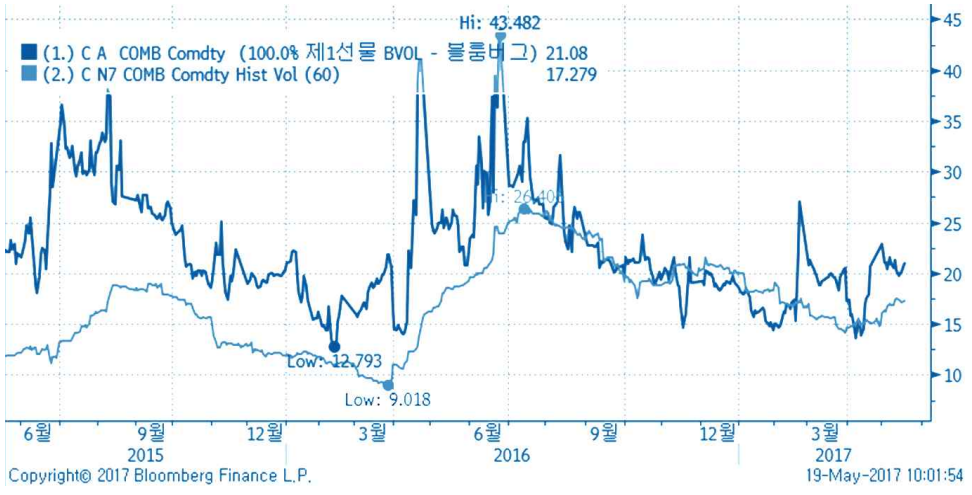
대두/옥수수 선물 가격 비율은 3/31일 2.5971, 4/28일 2.6404으로 상승한 후, 5월 18일에는 2.5813으로 하락하며, 120일 이평선인 2.6537대도 하회했다. 다만 추가 하락할 경우, RSI 지표가 과매도권에 진입하므로 향후 낙폭은 제한될 전망이다.

그림 57. 대두/옥수수 선물 비율 주간 기준 추이

옥수수 선물 내재 변동성 급등 후 조정.

옥수수의 내재변동성(흰색)은 4월 초 저점인 13대에서 5/1일 22.89, 5/18일 현재 21.08 수준으로 반등한 상황이다. 한편 역사적 변동성(노란색)도 5/1일 16.09에서 5/18일 현재 17.28로 소폭 상승한 상황이다.

그림 58. 옥수수 선물 역사적/내재 변동성 추이(일간 2년)



대두의 내재변동성은 5/1일 15.35에서 5/18일 현재 14.15로 소폭 하락했다. 한편 역사적 변동성은 5/1일 12.59에서 5/18일 현재 12.91로 소폭 상승했다.

그림 59. 대두 선물 역사적/내재 변동성 추이(일간 2년)

소맥의 내재변동성은 5/1일 29.19에서 5/18일 현재 20.59로 하락했다. 역사적 변동성은 5/1일의 21.83에서 5/18일 현재 22.15로 소폭 상승했다.

그림 60. 소맥 선물 역사적/내재 변동성 추이(일간 2년)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이진우(GFM(Global Financial Markets) 투자연구소 소장)*

'4월 위기설'이 무색해지는 5월의 시장 흐름입니다. 책임 공방이 두려워서일까요?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자산시장에 대한 배려는 여전합니다.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은 그의 해외순방 기간 중 잠시 뉴스의 전면에 나서지 못했지만 앞으로 두고두고 시장을 출렁이게 하는 노이즈(noise)로 작용할 듯합니다. 지긋지긋했던 박스피 5년여의 세월을 뒤로 하고 코스피는 1차 목표 2,500p를 향해 내달리고자 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원화강세의 폭은 어느 정도 고민스럽지만, 일단 1,110원이 무너지면 추가 50~60원 정도의 달러/원 환율 하락을 전망해 봅니다.

1. 국제금융시장 동향

▮ 트럼프發 불확실성 vs 너무나 친절한 중앙은행들의 배려

역전 만루 홈런에 비견될 대통령 당선을 이뤄낸 것에 비해 취임 후 트럼프의 행보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실행에 옮기는 법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건강보험 개혁법(트럼프 케어)이 지난 5월 4일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4표 차로 간신히 하원을 통과했다. 수십 컷의 사진 중 골라 올리는 언론들의 사진에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법인데, 트럼프 케어 법안의 하원 통과 후 좋아라하는 트럼프나 그의 곁에서 과장된 박수를 치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필자만의 느낌은 아닐 듯하다([그림 1] 참조). 트럼프 케어 수정 법안의 저소득층 보조금 삭감 및 메디케어 지원 축소 등으로 무보험자가 당장 내년에는 1,400만 명, 2026년에는 2,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연방의회예산국(CBO)이 추정할 정도니 폴 라이언 하원의장(共)은 당장 내년 중간선거가 걱정될 수밖에 없다.

* jopok5298@nate.com

그림 1. '벌거벗은 임금님'을 연상시키는 트럼프와 주변 사람들

취임 초부터 트럼프의 아킬레스 건으로 인식되어 온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5월 9일 느닷없는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의 해고로 때 이른 탄핵(impeachment) 정국을 이끌어내고 있다([그림 2] 참조). 미국의 3대 뉴스 채널이라는 폭스 뉴스는 애초에 코미가 자진 사임했다는 오보를 내는가 하면 당사자인 코미 국장은 자신의 해임을 뉴스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할 정도로 황당하게 전개된 사건이지만,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러시아 스캔들의 몸통으로 점점 트럼프의 사위인 쿠슈너가 회자되는 등 1974년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까지 치달은 '워터게이트 사건'이 재현될 조짐이 다분하다. 국내 정국이 한참 꼬여갈 무렵 사우디아라비아를 첫 순방지로 삼은 트럼프의 연이은 해외 순방이 펼쳐졌지만(나토 정상회담 & G7 정상회담),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이라고 해서 별 수는 없었다. 온갖 무례를 저지르고(몬테네그로 총리 밀쳐내기, 마크롱과의 악수 기싸움 등) 일방적인 미국 우선주의만 외치면서 세계를 향한 감동적 연설 한 번 내뱉지 못하고 그럴듯한 성명서도 도출 못한 채 다시 6월부터 정치면 뉴스를 요란하게 장식할 판이다.

그림 2. FBI 국장 해임 후폭풍 … '트럼프 탄핵' 여론 확산

그림 3. 내치(內治)가 힘들자 외교(外交)에 공들이는 트럼프

그러나 [그림 4]에서 보듯이 뉴욕증시(및 글로벌 증시)는 '아직까지는' 주요 정치적 고비에서 나타나는 주가 조정을 저가매수의 기회로 삼으며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의역하자면 "혹시라도 우리가 펼칠 통화정책의 변화로 인해 자산시장이 부러질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말라"는 중앙은행들의 눈물겨운 배려 덕분이다. 연준의 5월 FOMC 의사록에서는 '추가 금리인상에 나서는 것이 곧 적절해질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둠과 동시에 '연초의 경제활동 둔화가 일시적이란 증거를 얻을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진중한 자세'라는 입장도 밝혀 당장 추가 금리인상이 없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시장이 두려워하는 '양적 긴축'에 관해서도 '지극히 예측 가능한 기계적인 대차대조표 축소' 전략을 따를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절대 자신들로 인해 시장이 충격을 받는 것을 원치도 않을뿐더러 두려워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같은 날, 비토르 콘스탄시오 ECB 부총재도 부양을 성급하게 줄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면서 출구전략으로 인한 경기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 유발이 더 낫다는 발언을 보탰다.

그림 4. 美 S&P500 지수 일간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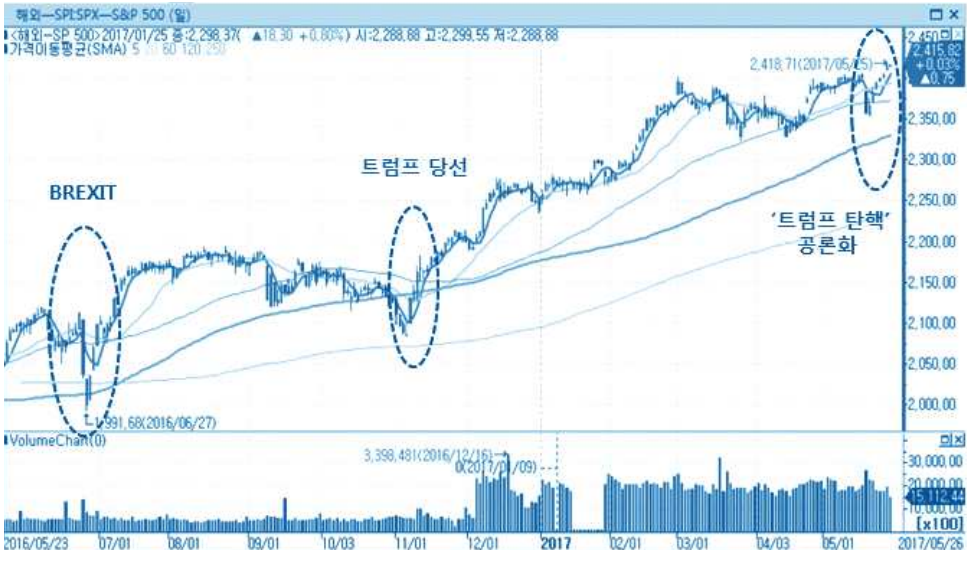


차트 인용: Infomax, 5/26 현재

▮ 중국이 제시하는 비전 vs 중국이 처한 현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2기(2018~2022년) 지도부 윤곽이 그려지고 한 발 더 나아가 시 주석의 2022년 집권 연장 가능성까지도 드러날 올 가을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둔 중국은 요즘 가진 게 돈뿐이라는 듯이 지갑을 흔들어대며 세계 각국을 상대로 줄 잘 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월 14~15일 이틀에 걸쳐 베이징에서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 포럼이 성대하게 치러졌다([그림 5] 참조). 중국이 우리 돈으로 140조 원 이상을 투입해 60여개 연계 국가들에 도로와 철도, 항만, 산업단지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는 것이 큰 틀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위안화의 국제화도 박차를 가하면서 기축통화국의 꿈에도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중국의 원대한 포부라 하겠다. 그러나 해상 실크로드의 요충지라 할 인도가 포럼에 불참하는 등 중국 패권주의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가 상당하고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 조달 및 회수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그림 5. 중국이 제시하는 비전... 일대일로(一帶一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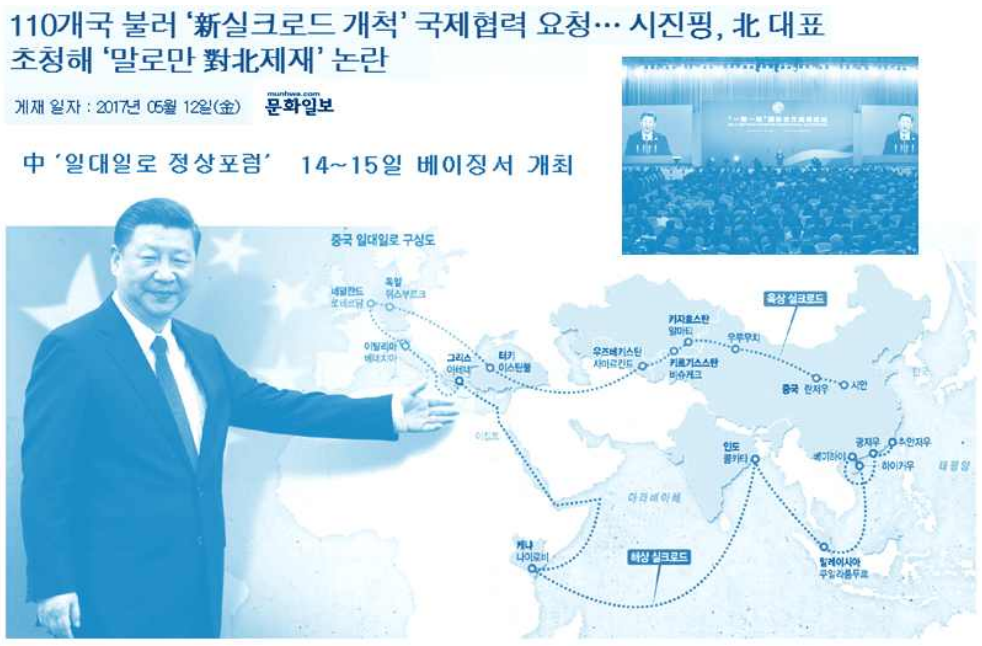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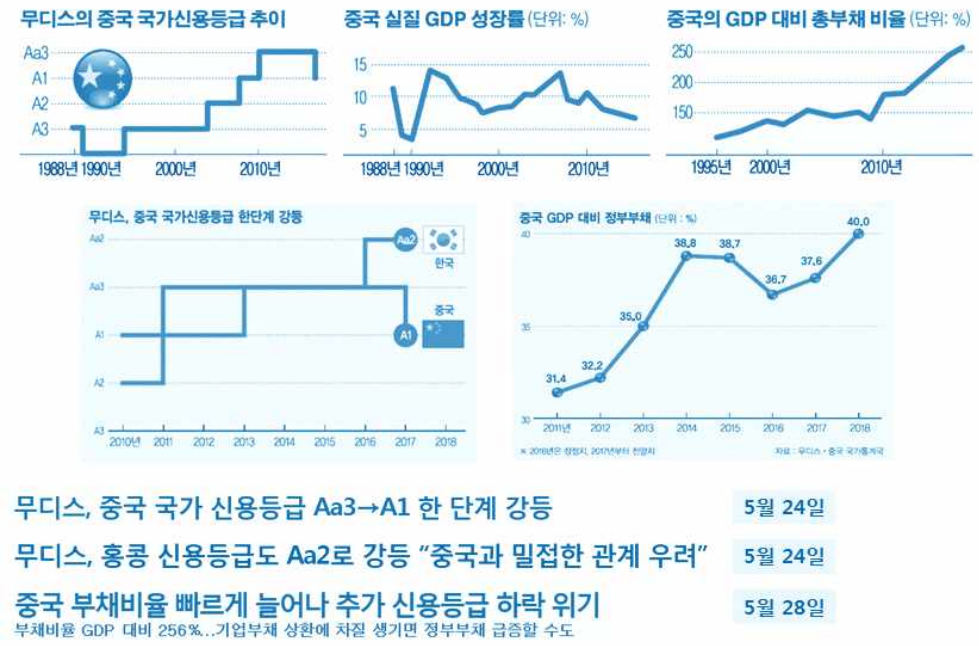


그림 6. 중국이 처한 현실... 성장 동력이었던 '빚'이 리스크로 부각 중



무디스, 중국 국가 신용등급 Aa3→A1 한 단계 강등 5월 24일

무디스, 홍콩 신용등급도 Aa2로 강등 "중국과 밀접한 관계 우려" 5월 24일

중국 부채비율 빠르게 늘어나 추가 신용등급 하락 위기 5월 28일

부채비율 GDP 대비 256%...기업부채 상환에 차질 생기면 정부부채 급증할 수도

인용: 이투데이, 파이낸셜 뉴스 등

중국이 너무 나댄다고 판단한 것일까?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이자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의 이해를 위해 움직여온 전력을 지닌 무디스(Moody's)가 5월 24일 중국과 홍콩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기에 나섰다([그림 6] 참조). 무디스는 부채 위험을 근거로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28년 만에 강등한 데 이어 계속 늘어나는 부채를 줄여나가지 못하면 추가 강등도 가능하다고 경고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국제금융협회(IIF)도 28일 중국의 금년 4월 기준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 기업, 정부(금융 부문 제외) 부채비율은 265%로 작년 말 256%에 비해 9% 포인트나 폭증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러한 일련의 중국 관련 뉴스를 접하면서 필자가 느끼는 바는 지난 수년 간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VIX)가 역사적 최저치에 이를 정도로 너무 평온했다가 이제 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했는데, 그 첫 타겟으로 중국이 선정된 느낌이다. 중국 금융시장 동향은 [그림 7]에 요약되어 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3,000 포인트라는 심리적 지지선, 선전 종합지수는 월간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등이 지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추가 급락으로 내달릴 양상이다. 물론 중국 당국은 어지간한 금융시장 동요는 시장 개입을 통해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 실제 최근

인민은행이 주도하는 통화 긴축도 부채 증가 및 더 위험한 시장 버블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계산된 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작년 4분기만 하더라도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중국에서의 자본이탈 우려를 키우던 위안화 환율이 금년 들어 옆으로 기는 것도 물론 금년에는 시장이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는 미션을 받은 중국 당국의 세밀한 관리 덕분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그 개념조차 생소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의 양상을 보이는 것에서 몇 가지 엉뚱한 상상을 펼쳐보게 된다. 뭔가 가격이 급하게 오른다 싶으면 어디라도 뛰어드는 중국인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대거 유입되고 있겠지만, 그러한 비트코인 매수세 가운데에는 이러다 조만간 중국 위안화는 제대로 돈으로 취급받지 못할 것을 감지하고 뛰어든 세력들도 있을 법하다는 점이다.

그림 7. 중국 금융시장 동향 및 비트코인 시세 추이

차트 인용: www.investing.com & infomax

▮ 사우디의 "whatever it takes~", 공허하긴 하지만 ...

칼리드 알 팔리 사우디 석유장관이 지난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OPEC은 글로벌 원유재고가 5년 평균치로 줄어들 때까지 어떤 조치든 취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원조 벤 버냉키에 이어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바통을 이어받은 “무엇이든 하겠다(whatever it takes)”라는 레토릭이 마침내 원유시장에도 등장한 것이다[그림 8] 참조). 그러나 WTI와 브렌트유 등 국제유가가 배럴 당 50 달러를 회복하기에 이르면서 수익성이 회복된 미국 셰일 오일 업체들이 건재한 데에다 트럼프 당선 이후 예전과 달리 자국 내 매장되어 있는 석유를 퍼내 수출까지 하겠다고 미국이 나서는 판에 사우디의 ”뭐라도~!“는 다소 공허하게 다가온다. 25일 OPEC 총회에서 6월말로 끝나는 감산 기한을 9개월 더 연장하였지만, 시장은 이미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던 데에다 추가 감산 합의가 나오지 않자 유가는 다시 급락세로 반응하고 말았다.

그림 8. 중앙은행들을 흉내 내는 사우디 vs 만만치 않은 현실

인용: The Economic Times, 연합뉴스, Financial Times(글로벌모니터에서 재인용)

그림 9. 상품시장(commodity markets) 동향

차트 인용: Infomax(5/26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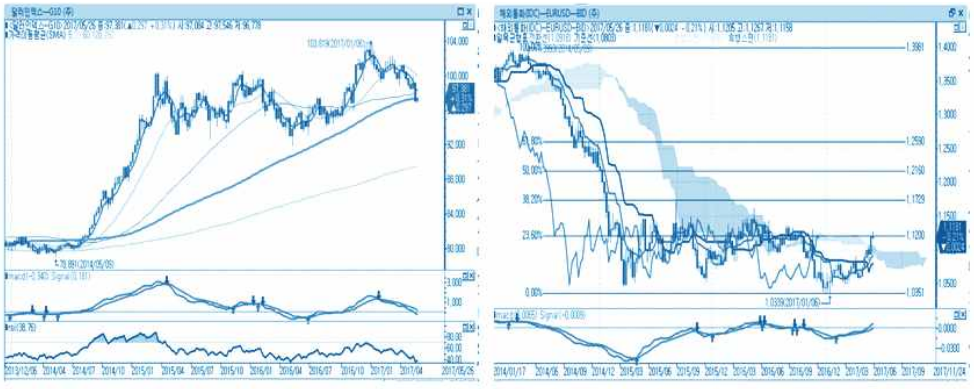
[그림 9]의 상품시장 동향을 보노라면 차트 상으로는 금융위기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해온 원자재 가격들이 반등의 차원을 넘어 본격적인 상승세 재개를 위한 에너지 축적 과정의 막바지에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 그 배경이 정말 글로벌 경기회복이나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수요의 증대나 산유국들이 감산이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동원하는 등 공급 측면의 부담을 줄인 결과인지는 불분명하나 그 동안 이어져 온 중앙은행들의 '돈 풀기'가 마침내 결실을 보는 것이라면 이제는 주가뿐만이 아니라 가격이 매겨지는 그 모든 것들의 값이 치솟는 '인플레이션 시대'의 도래를 각오해야 할 판이다. 금융위기 이후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오매불망 기다려왔던 인플레이션의 회복이 급격한 속도로 진행될 경우 과연 그것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마냥 긍정적 효과만 미칠 것인지도 지금은 불분명하다. 그렇게 해서 지표상으로나 체감적으로나 물가상승이 가팔라질 경우 중앙은행들은 정책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틸 수 있겠으며 빨라지는 금리인상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도 의문이다. 목하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시장 흐름이 우리를 기다리는 셈이다.

2. 환율 동향 및 전망

▮ 달러는 결국 약세로 전환될 것인가?

美 달러화의 가치가 본격적인 약세로 치달을 것인가, 트럼프(인프라 투자 및 재정 확대)나 연준(공격적 금리인상)에 대한 실망감으로 촉발된 최근의 달러약세를 조정으로 끝내고 다시 달러강세로 돌아설 것인가? 향후 국내외 금융시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느라 고생 좀 할 것 같다. [그림 10]에 정리된 달러인덱스나 유로/달러(EUR/USD) 환율 추이를 보자면 제일감은 2014년 하반기 이후의 급격한 달러 강세는 이미 고점을 확인하고 이제 상당 기간에 걸친 달러약세가 진행될 것 같다는 쪽으로 기울게 된다. 그러나 120주 이동평균선이나 주간 구름대 등은 단숨에 붕괴 혹은 돌파 여부가 결정되기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하겠다.

그림 10. 고비에 이른 달러 가치



달러인덱스 주간차트[Infomax, 5/26]

☞ 120주 이동평균선도 무너지는가?

유로/달러(EUR/USD) 주간 일목균형표

☞ 바닥을 다지고 돌아서는 중인가?
※ 메르켈: "유로, 너무 싸다"(5/22)

도로아미타불된 트럼프 효과...사라진 '강(强) 달러' 기사입력 2017-05-17 헤럴드경제

-트럼프 효과로 오른 달러강세 다시 이전 수준으로 -갈수록 커지는 정책 불확실성이 발목

▮ 코스피(KOSPI) 2,500p 가는 동안 환율은 어디로?

지난 3월 10일(박근혜 前대통령 탄핵 결정일) 이후 5월 26일까지 우리나라 코스피의 상승률은 12.64%에 달하고 그토록 못 오르며 개인투자자들의 속을 태웠던 코스닥도 6.58% 올랐다. 훨훨 날고 있는 미국의 나스닥이 같은 기간 6.36% 상승에 그치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1.91% 올랐으니(☞ 이 기간 중국 심천종합지수는 9.92% 하락) 대한민국 증시는 헌정 사상 처음 겪는 '대통령 탄핵'의 긍정적 효과를 만끽하고 있는 셈이다. 수급(需給) 상으로는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를 그 배경으로 들 수 있겠고, 사후적으로나마 펀더멘털 측면에서 한국 증시의 최근 급등세를 설명하자면 기업실적의 개선과 새 정부 출범 이후 펼쳐질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을 들 수 있겠는데, 증시 일각에서는 5년 넘게 이어져 온 박스권 장세의 상단이 열린 만큼 '어게인 노무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그림 11] 참조). 즉,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대세상승장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그림 11. 역대 대통령 및 코스피(KOSP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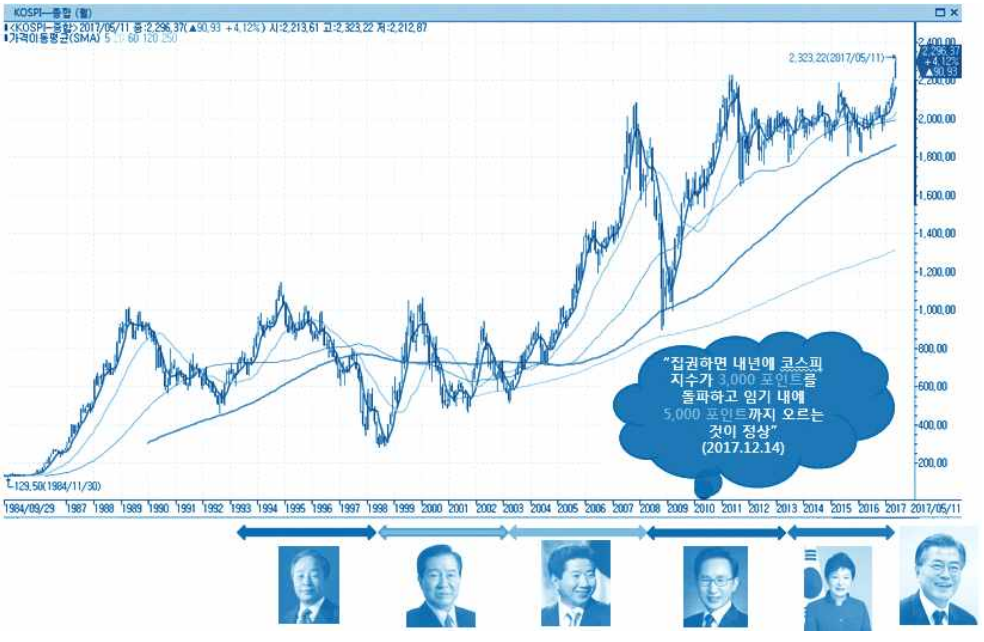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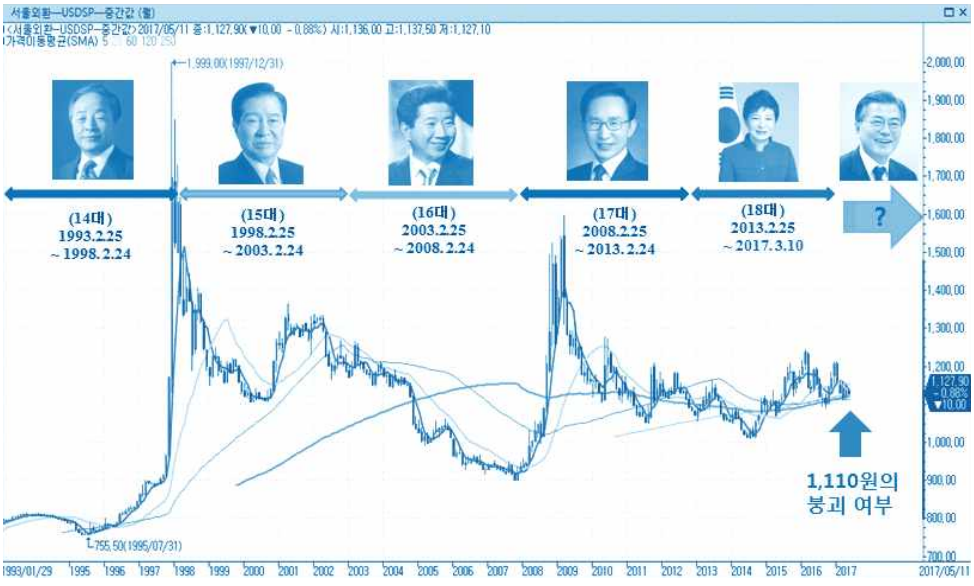


차트 인용: Infomax(5/11 현재) & 사진 인용: 네이버

그림 12. 역대 대통령 및 달러/원(USD/KRW) 환율 추이



[그림 11]이나 [그림 12]는 대통령직을 누가 수행하느냐보다는 어떤 시기에 누가 대통령으로 재직했느냐가 더 중요함을 웅변한다. 그러나 워낙 '노무현 정부' 당시의 주가상승과 원화강세가 인상적이었기에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경험하는 주가급등과 환율하락에 거는 시장의 기대가 크다. 거기에다 글로벌 증시는 (중앙은행들의 암묵적 용인 하에) 본격적인 '버블 장세' 진입을 저울질하고 있고, 국제외환시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격적인 달러약세가 재개될 조짐이 다분하기까지 하다. 시장에서는 이번 증시 랠리의 고점이 어디일까에 대한 백가쟁명식의 전망이 쏟아져 나오는 중이다. 노무라 증권은 코스피 1차 목표 2,500p를 돌파하고 3,000p까지 간다는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언젠가는' 코스피도 3천 포인트도 올라설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지금 시점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레벨은 2,500p 정도인 듯하다. 무슨 정교한 밸류에이션 모델을 통해 도출된 전망이라기보다는 지난 몇 년간의 박스피(BOXPI) 하단을 1,800p로, 상단을 2,150p로 본다면 상단 돌파 이후 최소 목표 레벨은 2,500p(=2,150+150)로 나온다는 기술적 분석에 따른 전망이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코스피(KOSPI) vs 달러/원(USD/KRW)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이 최대 약점인 코스피가 북한發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함에도 2,500p를 찍으러 가는 동안 과연 달러/원(USD/KRW) 환율은 어디까지 밀릴 수 있을까? 월간차트에서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수렴하고 있는 1,110원대 초반의 붕괴를 확인하기까지도 진통이 따르겠지만, 증시 랠리가 이어지면서 결국 1,100원이 무너진다면 [그림 13]에 그어둔 우상향 점선까지의 추가하락은 각오해야 할 듯하다(☞ 레벨로는 1,050 ~ 1,060원). 지난 몇 년 동안 국내외에서 크게 유행을 탄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는 슬로건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녔었고, 그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달러 롱 포지션이 크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증시 랠리가 이어지는 동안 이러한 달러 롱 포지션 보유세력들의 손절 매도를 유발하기 위한 빅 플레이어들의 공세가 매섭다면 1,100원 붕괴 후 추가하락이 급하고 과격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온갖 '가짜 뉴스(fake news)'가 횡행하는 시대에 주가나 환율 같은 시장가격도 페이크(fake)일 수 있음은 염두에 둬야 한다. 그리고 6월 FOMC(6/13~14)에서 연준이 부릴 변덕도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 때까지 달러 가치가 제법 많이 밀려 있다면 연준은 다시 매파적 스탠스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재 및 에탄올시장 동향

박환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5월 국제 원자재시장은 4월의 상승을 멈추고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5월 26일까지의 국제 원자재시장은 원유시장의 하락으로 인해 약세를 나타냈다. 주요 산유국은 감산을 2018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5월 중순까지 약세를 보이던 원유시장은 주요 산유국의 추가감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잠시 강세를 나타냈으나 감산연장에 대한 결정 이후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반면 곡물시장은 미국 중서부 지역의 기상악화, 아르헨티나 예상수확량 하향 조정 등 요인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비철금속시장은 중국의 수요둔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5월 미국 에탄올시장은 생산량이 다시 늘어나고 재고량이 증가하면서 약세를 나타냈다. 여름성수기에 접어들면서 가솔린소비량은 다소 늘어나고 있지만 증가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고 브라질의 에탄올 수입 감소 우려가 확산되어 미국 에탄올 가격은 약세로 돌아섰다.

1. 원자재시장 동향

▮ 원자재지수 월간 동향

2017년 5월 국제 원자재시장은 4월의 짧은 반등을 마무리하고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5월 평균 CRB지수(CRB Index)는 181.4를 기록하여 전월 184.8에 비해 1.8% 하락했으며 1년 전 182.9에 비해서는 0.8% 하락했다. S&P 골드만삭스 상품지수(S&P GSCI)는 381.1로서 전월 390.6보다 2.4% 하락했으며, 전년 동기 361.4보다는 5.5% 상승했다.

* hwanilpark@gmail.com

표 1. 원자재지수의 월간변화 비교

구분	2016.5	2017.4	2017.5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CRB Index	182.9	184.8	181.4	-0.8	-1.8
S&P GSCI	361.4	390.6	381.1	5.5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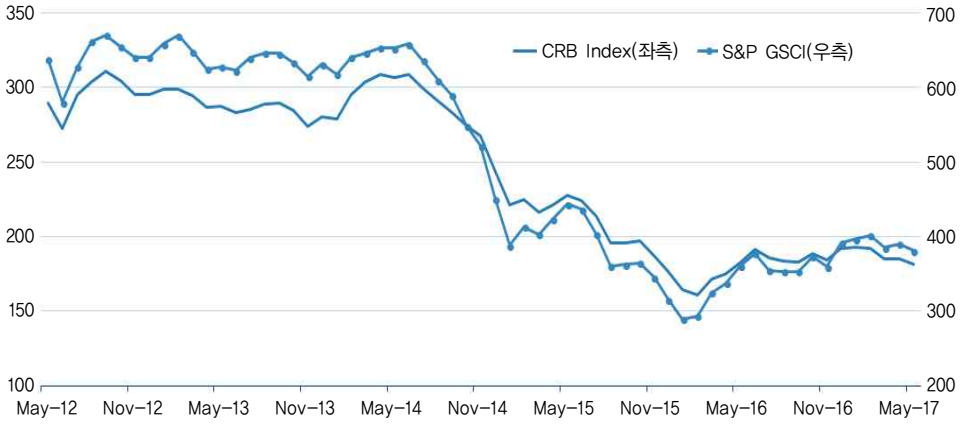
주: 변화율은 2017년 5월 평균지수(5월 26일까지의 평균)의 전년 동기(2016년 5월)와 전월(2017년 4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5월의 국제 원자재시장이 4월의 반등을 접고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원유시장의 약세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월 중순까지 약세를 보이던 원유시장은 주요 산유국의 추가감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잠시 강세를 나타냈으나 감산 연장에 대한 결정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곡물시장은 미국 중서부 지역의 기상악화, 아르헨티나 예상수확량 하향 조정 등 요인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비철금속시장은 중국의 수요둔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원유, 비철 등 주요 원자재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지수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CRB Index는 지난 1월에 기록한 고점 193.2에서 약 12포인트, 6.1% 하락하여 180대 초반으로 밀려났다. 상승추세로 진입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수치인 195로부터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다. S&P GSCI 역시 지난 2월에 기록한 고점 402.1로부터 약 21포인트, 5.2% 하락했다. 상승추세 유지를 위해 제시되었던 360선보다는 위쪽에 머물러있지만 400선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국제 원자재시장은 2016년 1월과 2월에 저점을 형성한 후 약 1년 동안 꾸준히 상승을 했지만 현재 모습은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약세로 전환된 상태이다. 이러한 모습이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조정인지, 또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된 것인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향후 국제 원자재시장은 원유시장의 방향에 따라 조정세 지속, 강세 전환, 약세 강화 등 구체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유국의 감산연장 결정에 원유시장은 실망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장기적으로 원유시장의 수급균형이 이루어지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곡물시장에서는 본격적인 생장기에 접어들면서 날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투기자본의 움직임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철금속시장은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고는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구체적인 인프라 투자 정책과 중국의 수요 회복 여부에 영향을 받아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국제 원자재시장을 둘러싼 여러 변수들이 구체화될 때까지 원자재시장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원자재지수 월간추이



자료: KoreaPDS

주요 품목별 동향: 에너지

2017년 5월의 원유시장은 4월에 기록했던 짧은 반등을 접고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WTI원유의 5월 가격은 48.5달러/배럴로서 2017년 4월 가격 51.2달러/배럴에 비해 5.1% 하락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3.7%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5월 가격이 51.4달러/배럴로서 전월의 53.8달러/배럴에 비해 4.5% 하락, 전년보다는 7.8% 상승했다. 5월 천연가스 가격은 3.26달러/백만Btu로서 전월에 비해 1.9% 상승했으며, 1년 전보다는 56.7%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표 2. 에너지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2016.5	2017.4	2017.5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WTI원유	46.8	51.2	48.5	3.7	-5.1
브렌트유	47.7	53.8	51.4	7.8	-4.5
천연가스	2.08	3.20	3.26	56.7	1.9

주: WTI원유(CME선물), 브렌트유(ICE선물)는 달러/배럴, 천연가스(CME선물)는 달러/백만BTU; 변화율은 2017년 5월 평균가격(5월 26일까지의 평균)과 전년 동기(2016년 5월)와 전월(2017년 4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최근의 국제 원유시장은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WTI원유와 브렌트유는 2016년 1월과 2월중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 2017년 2월에 고점을 형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하지만 3월에는 하락, 4월에는 반등, 5월에는 다시 하락하여 국제 원유시장이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17년 5월의 하락으로 WTI원유는 배럴당 50달러 수준 아래로 내려섰다. 브렌트유는 55달러 밑으로 하락했다. 5월의 WTI원유와 브렌트유는 2016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5월 하반기에 산유국의 감산 연장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잠시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냈다.

지난 5월 25일 OPEC 회의에서 주요 산유국은 현재 진행 중인 원유감산을 2018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원유감산은 2017년 6월에 종료 되는 바 이번 결정은 감산을 9개월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OPEC과 러시아는 글로벌 과잉재고 해소 및 유가 회복을 위해 OPEC은 120만 배럴/일, 러시아 등 비OPEC국가는 55만 배럴/일을 감산하기로 합의했다. 돌아오는 11월말 OPEC 총회에서 각 국의 감산이행을 점검하고 추가 연장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별 감산량은 사우디아라비아가 48.6만 배럴/일로 가장 많고 러시아 30만 배럴/일, 이라크 21만 배럴/일, UAE 13.9만 배럴/일 순이다. 기존 합의와 마찬가지로 리비아와 나이지리아는 감산 연장에서 면제되었으며 이란은 9만 배럴/일 증산이 허용되었다.

이번의 합의를 앞두고 원유시장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감산발표 1주일 전인 5월 18일 WTI원유와 브렌트유는 각각 49.4달러/배럴, 52.5달러/배럴이었으나 5월 24일 각각 51.4달러/배럴, 54.0달러/배럴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감산 발표일인 5월 25에는 WTI원유는 48.9달러/배럴, 브렌트유는 51.5달러/배럴로 하락하여 상승하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섰다. 즉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을 기존 합의를 단순하게 연장하는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기존의 감산합의내용에 추가적으로 감산에 동참하는 산유국이 늘어나거나 감산규모가 확대될 것을 기대했으나 이러한 내용들이 무산됨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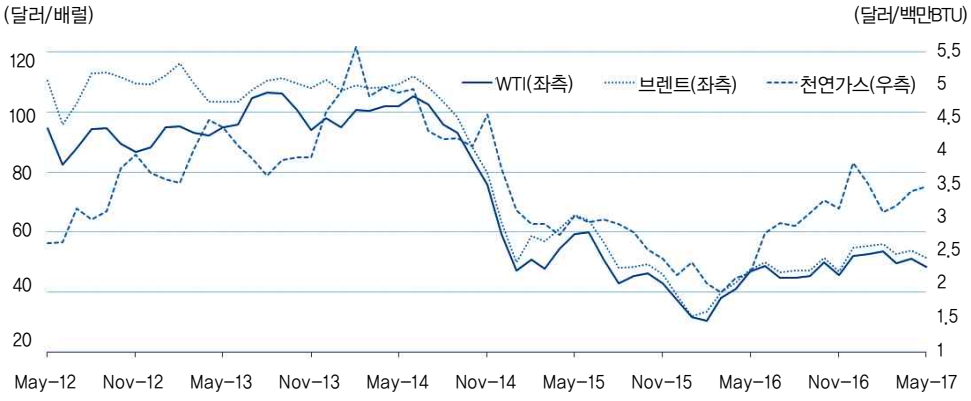
하지만 시장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급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감산이 지속된다면 2017년 2분기에는 글로벌 공급과잉이 해소되고 연간으로도 공급부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블룸버그는 금년 4월까지 OPEC의 감산률은 109%에 달하는데 이러한 수준이 유지될 경우 2분기에 약 32만 배럴/일 공급부족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주요 산유국의 감산과 달리 북미 지역의 원유생산은 계속해서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원유생산은 5월 19일 기준 932만 배럴/일로서 2016년 10월 이후 약 10.3% 증가했다. 원유생산량을 전망할 수 있는 시추기는 5월 19일 기준 720기로써 1년 전보다 404기가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유정시추건수도 2016년 5월 406개에서 2017년 4월 기준 941개로 늘었다. EIA는 2017년 미국 생산량을 931만 배럴/일로 전망했는데 기존 전망보다 1% 늘어난 수준이다. 또한 2018년 생산량 역시 996만 배럴/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같이 금년 들어 미국 석유업체들의 원유개발 및 생산 관련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을 위한 손익분기점이 20달러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향후 미국의 원유생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지만 캐나다의 생산량도 2010년 이후 연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6년에는 전년보다 6만 배럴이 증가했으며 금년에는 13만 배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지역의 증산은 OPEC의 감산효과를 상당부분 상쇄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IEA와 EIA 자료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국가에서의 증산량이 2017년 100만 배럴/일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OPEC과 비OPEC의 감산량 175만 배럴/일의 57%에 이른다. 만약 북미지역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고 OPEC의 감산 이행률이 낮아진다면 감산효과는 사라질 것이며 감산정책을 뒤집는 국가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수요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EIA는 5월 전망에서 2017년 세계 수요전망을 9,830만 배럴/일로 1월 전망보다 110만 배럴 상향조정했다. 이 가운데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에서 수요가 105만 배럴/일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측면에서의 감산효과 불확실성을 수요측면에서 제거해 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즉 향후 국제 원유시장은 OPEC 및 비OPEC의 감산이행여부, 미국 등 북미지역의 증산량, 신흥국의 수요회복속도 등 3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에너지 품목별 가격 월간추이



자료: KoreaPDS

주요 품목별 동향: 농축산물

2017년 5월 곡물시장은 2개월 연속 하락에서 벗어나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5월의 옥수수가격은 370.7센트/부셸로 전월보다 1.4% 상승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5.2% 하락했다. 대두는 961.7센트/부셸을4% 낮은 수준이다. 5월의 생육우는 123.7센트/파운드로 전월에 비해 7.8% 상승했다.

옥수수는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비가 내려 파종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가 내려 파종을 다시 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두 역시 미국의 기상악화와 아르헨티나의 예상수확량 하향 조정으로 인해 상승했다. 또한 브라질에서는 수확이 끝났지만 농민들이 가격상승을 기다리며 대두 판매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격상승을 촉발하기도 했다. 향후 본격적인 생육기에 접어들면서 기상에 의한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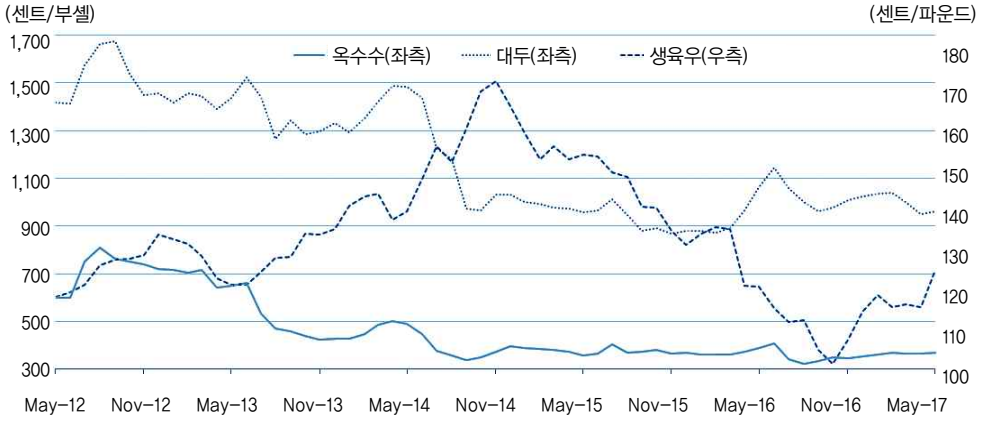
표 3. 농축산물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구분	2016.5	2017.4	2017.5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옥수수	390.8	365.6	370.7	-5.2	1.4
대두	1,061.4	950.6	961.7	-9.4	1.2
생육우	119.9	114.8	123.7	3.2	7.8

주: 옥수수(CME선물), 대두(CME선물)는 센트/부셸, 생육우(CME선물)는 센트/파운드: 변화율은 2017년 5월 평균가격(5월 26일까지의 평균)의 전년 동기(2016년 5월)와 전월(2017년 4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그림 3. 농축산물 품목별 가격 월간추이



자료: KoreaPDS

주요 품목별 동향: 비철금속 및 귀금속

5월의 비철금속시장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5월 구리가격은 5,685달러/톤을 기록하여 4월 가격보다 1.8% 하락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21.0% 상승했다. 알루미늄은 1,953달러/톤을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1.5% 하락했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20.6% 높은 상태이다. 5월 금 가격은 1,241달러/온스로서 4월보다 2.1% 하락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1.5% 하락했다.

비철금속시장은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고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면서 약세를 나타냈다. 비철금속에 대한 수급불안정 요인은 존재하지만 중국의 수요회복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당분간 상승보다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비철금속 및 귀금속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구분	2016.5	2017.4	2017.5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알루미늄	1,619	1,983	1,953	20.6	-1.5
구리	4,699	5,789	5,685	21.0	-1.8
금	1,260	1,269	1,241	-1.5	-2.1

주: 알루미늄(LME선물), 구리(LME선물)는 달러/톤, 금(CME선물)은 달러/온스: 변화율은 2017년 5월 평균가격(5월 26일까지의 평균)의 전년 동기(2016년 5월)와 전월(2017년 4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그림 4. 비철금속 및 귀금속 품목별 가격 월간추이

주: 알루미늄, 구리는 달러/톤, 금은 달러/온스
자료: KoreaPDS

2. 에탄올시장 동향

▮ 에탄올 생산량 및 재고량 증가로 인한 가격 약세

2017년 5월 미국 에탄올시장은 2개월 연속 상승을 멈추고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5월 마지막 주 가격은 148.6센트/갤런으로 4월 마지막 주 가격인 159.6센트/갤런 대비 6.8% 하락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10.0% 하락했다. 에탄올시장은 2017년 3월부터 2개월 동안 약 13센트/갤런 상승하여 160센트/갤런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5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되어 지난 3월에 기록한 저점 수준까지 낮아졌다.

표 5. 에탄올 주간 평균가격변화 비교

구분	2016.5.30	2017.4.24	2017.5.22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에탄올	165.1	159.6	148.6	-10.0	-6.8

주: 에탄올(CME선물)은 센트/갤런: 변화율은 2017년 5월 마지막 주(5월 26일 기준) 평균가격의 전년 동기(2016년 5월 마지막 주)와 전월(2017년 4월 마지막 주)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4월 들어 감소했던 미국 에탄올생산은 5월에 다시 늘어났다. 5월 19일 기준 주간 평균 에탄올생산량은 101만 배럴/일로서 4월 28일 기준 98.6만 배럴/일보다 2.4만 배럴/일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년 전인 2016년 5월 말 에탄올생산량 96.0만 배럴/일보다 5만 배럴/일 증가한 것이다.

여름철 가솔린소비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실제 가솔린소비량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 평균 가솔린소비량은 952.1만 배럴/일로서 4월 평균 소비량 921.5만 배럴/일에 비해 3.3% 증가했다. 하지만 2016년 5월의 가솔린소비량 966.1만 배럴/일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미국 가솔린소비량이 예전만큼 늘어나지 않으면서 에탄올재고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5월 평균 재고량은 23.1백만 배럴을 기록해 4월의 재고량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1년 전 에탄올재고량 21.0백만 배럴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와 같이 높은 에탄올생산량과 재고량으로 인해 에탄올가격은 5월 들어 150센트/갤런 이하로 하락했다. 5월 22일 주간 평균가격인 148.6센트/갤런은 1월 23일 주간 평균 가격 147.2센트/갤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미국산 에탄올의 브라질에 대한 수출 감소 우려도 확산되면서 에탄올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브라질은 미국 에탄올의 주요한 수출국으로 최근 몇 달간 브라질 내수 에탄올 생산량 감소로 인한 틈을 미국업체들이 수출로써 메꾸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브라질 당국은 내수 에탄올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브라질 제당업체들은 총 판매량의 8%에 해당하는 에탄올재고량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한의 재고량 보유 규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브라질 내에서 에탄올이 충분히 생산되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브라질 생산 에탄올이 증가하면 미국산 에탄올의 수입량이 감소하여 에탄올소비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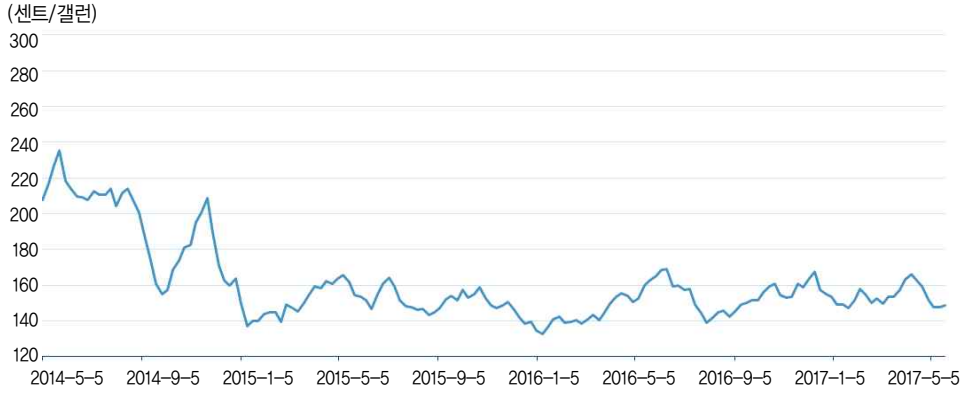
향후 미국 에탄올시장은 가솔린소비증가에 대한 전망과 브라질의 수입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따라 방향을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표 6. 미국 에탄올 생산 및 옥수수 소비량 추이

구분	에탄올 생산량 (천 배럴/일)	에탄올 재고량 (백만 배럴)	가솔린 소비량 (천 배럴/일)
2017/1/27	1,061	21.9	8,310
2017/2/24	1,034	23.1	8,686
2017/3/24	1,054	23.3	9,524
2017/4/28	986	23.2	9,156
2017/5/5	1,006	23.1	9,408
2017/5/12	1,027	23.4	9,452
2017/5/19	1,010	22.7	9,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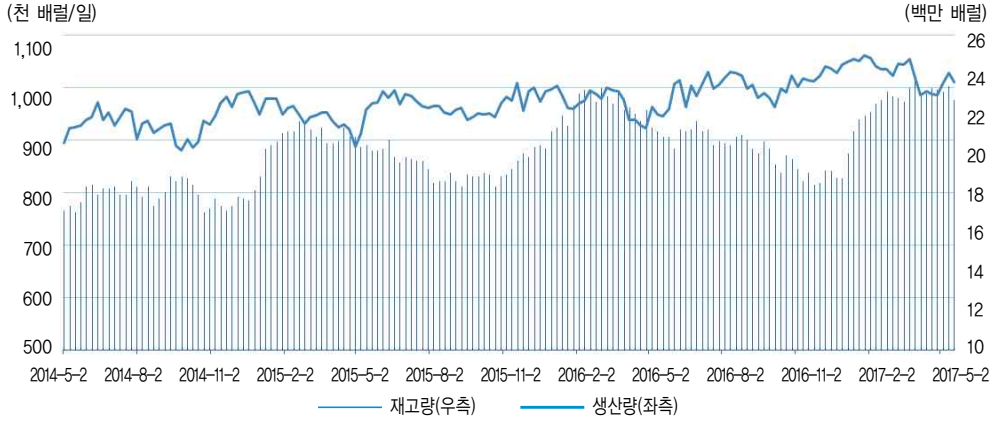
자료: Renewable Fuels Association

그림 5. 미국 CME 에탄올 주간가격 추이



자료: KoreaPDS

그림 6. 미국 주간 에탄올 생산 및 재고량 추이



자료: Renewable Fuels Association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정영두(캠코선박운용 부장)*

금년 철광석 물동량은 여전히 중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철강 가격 강세 지속에 힘입어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약화로 인해 불확실성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석탄의 경우 원료탄과 연료탄 모두 물동량 증가 폭이 다른 화물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석탄산업 구조조정의 방향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어 시장에서는 이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한편 'U.S.D.A'는 2017/18 시즌 곡물 물동량이 2016/17 시즌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를 처음으로 발표했는데 'I.G.C'와 소맥 물동량 전망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7/18 시즌에는 유럽의 소맥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다시 세계 1위 수출국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미국은 생산 감소로 인해 수출 여력이 줄어들 전망이다. 같은 기간 옥수수는 브라질의 수출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미국은 남미 수출국들과의 경쟁 심화로 인해 수출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의 경우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미국과 브라질의 수출이 모두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화물선 선복량은 금년 선복 증가율이 '3.0%'로 예상되는 가운데 1분기에 신조 인도가 증가하는 한편 해체량은 감소함에 따라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며 과잉 공급 해소 지연에 대한 우려가 번지고 있다.

최근 건화물선 시황은 2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철광석 등 원자재 시장의 약세가 운임 시장으로 번지는 동시에 선복 증가 속도와 선속 또한 빨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년 전반적인 수급 상황은 선복량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광석과 곡물 물동량 증가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어 작년보다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곡물 해상 운임은 미국 동부와 서부 지역 선적 운임 모두 약세가 심화되며 연중 최저치에 근접하였으나 하반기 시황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고 중국의 철강 생산 강세가 지속되는 동시에 남미 곡물 수출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점차 하락폭은 제한될 전망이며 작년 말과 같이 원자재 시장 회복세가 나타날 경우 변동성이 다시 커 질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 ydjung@kamcosimc.com, 051-660-5521.

1. 건화물선 수요·공급 분석과 전망

▌철광석 물동량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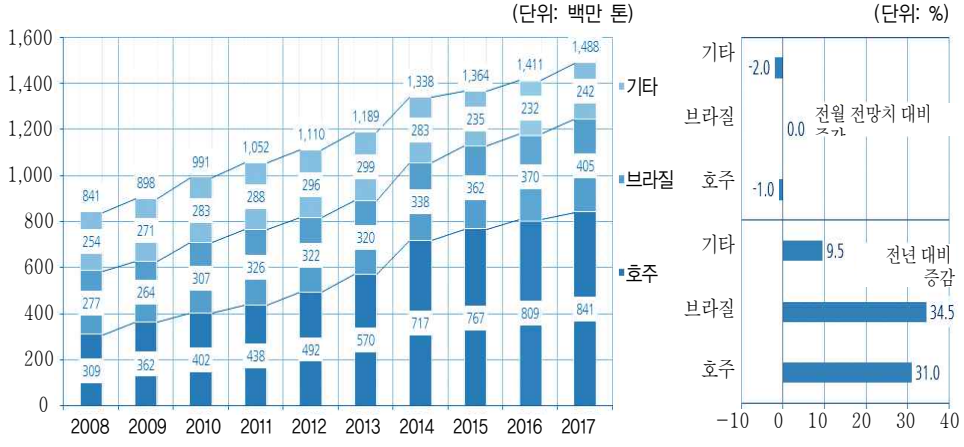
금년 철광석 물동량 전망치는 전년 대비 '5.3%(7,500만 톤)' 증가한 '1.49억 톤'으로 전망되며 전월 대비 전망치가 '300만 톤' 하향 조정되었다.

금년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이 '1.08억 톤'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년 1분기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12%' 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Clarkson'은 자국 내 철강제품 빠른 수요 증가세가 철광석 수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유럽 지역의 경우 금년 철광석 수입량이 전년 대비 '2.7%(28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2015년과 2016년에 수입량이 2년 연속 감소한 뒤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철강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철강 생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금년 4월 브라질의 철광석 수출량이 주요 수출항 중 한 곳인 'Itaguai'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선적이 10일 가량 중단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7%' 가량 크게 감소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작년 12월부터 가동이 시작된 'S11D' 광산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금년 전체 수출량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며 대형선 운임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철광석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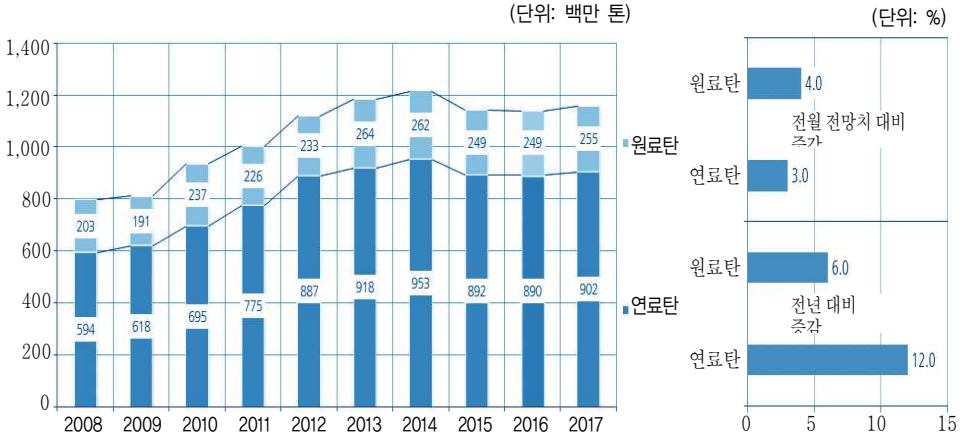
석탄 물동량 추이와 전망

2017년 원료탄 물동량은 전년 대비 '2.4%(600만 톤)' 증가한 '2.6억 톤'으로 예상되며 전월 전망치 대비 '400만 톤' 상향 조정되었다.

금년 1분기 중국의 원료탄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약 '1,100만 톤'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의 자국 내 원료탄 생산량이 감소하며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한 동시에 철강생산 증가로 인해 전반적인 원료탄 수요 또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월 초 호주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사이클론 '더비'의 영향으로 전 세계 원료탄 수출의 약 '60%' 가량을 차지하는 호주의 금년 수출량이 전년 대비 '2%'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료탄 가격 상승으로 인해 미국과 러시아의 수출이 각각 '17%'와 '15%' 증가하며 호주의 수출 감소분을 상쇄하고 있다. 화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되는 연료탄의 경우 금년 물동량이 전년 대비 '1.3%(1,200만 톤)' 증가한 '9.0억 톤'으로 전망되며 금월 전망치가 전월 대비 '300만 톤' 상향 조정되었다.

그림 2. 석탄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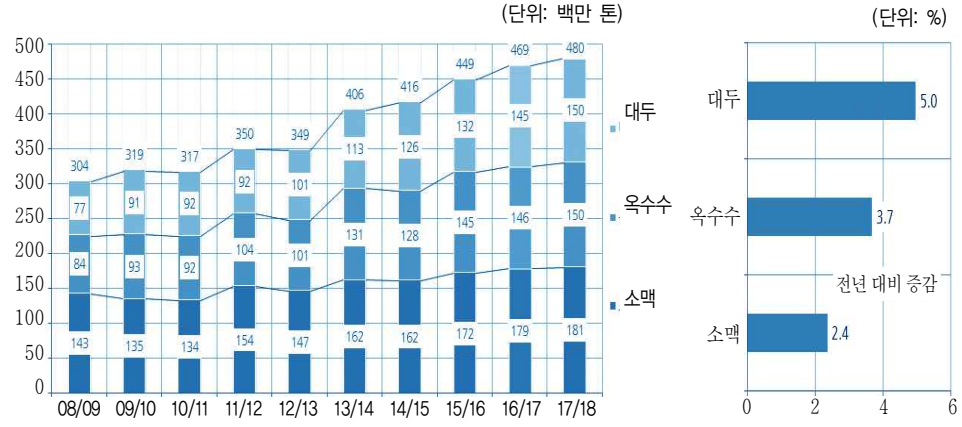
유럽의 연료탄 수입이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들어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에 문제가 생기며 동 국가의 금년 연료탄 수입량이 전년 대비 '10%' 가량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새 정부의 강력한 석탄화력 발전 억제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향후 연료탄 수입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美 농무성(U.S.D.A)은 금년 처음으로 2017/18 시즌 곡물 물동량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2017/18 시즌 전 세계 주요 곡물(소맥, 옥수수, 대두) 물동량 합계치는 2016/17 시즌 대비 '2.3%(1,1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소맥과 옥수수가 각각 '1.3%(240만 톤)'와 '2.5%(370만 톤)' 증가하는 한편 대두는 '3.4%(5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제 곡물 위원회(I.G.C)는 처음으로 2017/18 시즌 주요 곡물 물동량 증가율이 2016/17 시즌 대비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U.S.D.A' 와는 달리 소맥 물동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larkson'의 경우 최근 보고서에서 2017/18 시즌 전 세계 곡물(잡곡, 소맥) 수입량이 2016/17 시즌 대비 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소맥 물동량에 대해 기관별로 전망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향후 전망치가 조정되는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림 3. 주요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U.S.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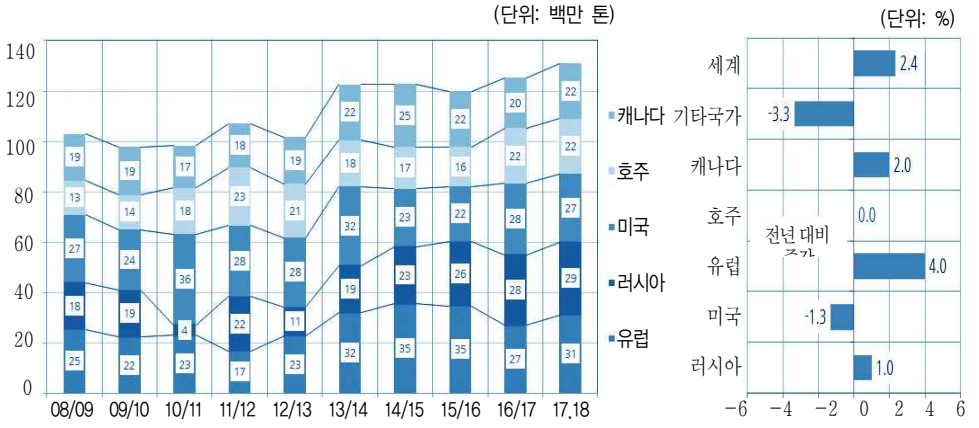
한편 'SSY'는 금년 2분기 곡물(소맥, 잡곡, 대두, 대두박 합계) 물동량이 전 분기 대비 '6.3%(760만 톤)' 증가한 '1.28억 톤'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3분기에는 물동량이 전 분기 대비 '1.0%' 감소하나 금년 2분기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양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곡물 운임 상승 압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소맥 물동량 추이와 전망

'U.S.D.A'에 따르면 2017/18 시즌 소맥 물동량은 전 시즌 대비 '1.3%(240만 톤)' 증가한 '1.8억 톤'으로 2016/17 시즌에 이어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17 시즌에 기상 악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유럽의 소맥 생산이 2017/18 시즌에는 회복세를 보이며 수출이 '14.8%(4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다시 전 세계 1위 소맥 수출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미국은 수확량 감소로 인해 수출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지역의 경우 현재 시즌에 남은 많은 양의 재고가 이월되는 동시에 작황 또한 좋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7/18 시즌 수출량이 현재 시즌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소맥 물동량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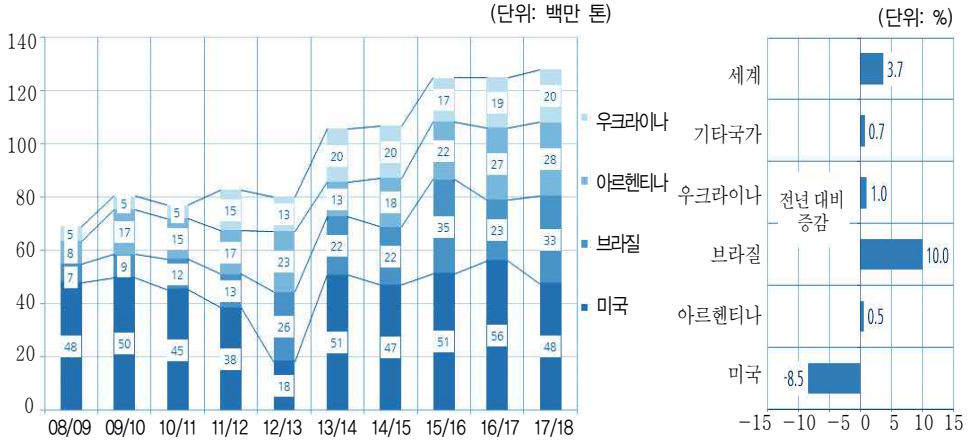
자료: U.S.D.A

수입국 기준으로 보면 2017/18 시즌 인디아의 소맥 수입이 2016/17 시즌 대비 '69%' 가량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Clarkson'은 자국 내 소맥 생산이 증가하는 동시에 소맥에 대한 수입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입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U.S.D.A'는 특별 보고서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의 소맥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식생활이 점차 쌀에서 소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하였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일본의 소맥 수입이 사료용 소맥 수요 감소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옥수수 물동량 추이와 전망

'U.S.D.A' 보고서 기준 2017/18 시즌 전 세계 옥수수 물동량은 2016/17 시즌 대비 '2.5%(370만 톤)' 증가한 '1.50억 톤'으로 전망된다.

그림 5. 옥수수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U.S.D.A

2017/18 시즌 브라질의 옥수수 수출이 2016/17 시즌 대비 '43.5%(10,000만 톤)' 가량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재배 면적이 증가하는 동시에 작황 또한 크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를 제치고 미국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 옥수수 수출국이 될 전망이다. 반면 미국의 수출량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 지역과의 수출 경쟁이 심해지며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지역의 경우 수출량이 2017/18 시즌 수출량이 현대 시즌 대비 '5.3%(1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동, 북아프리카,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는 한편 물류 시설에 대한 투자로 인해 효율 또한 개선될 것으로 'U.S.D.A'는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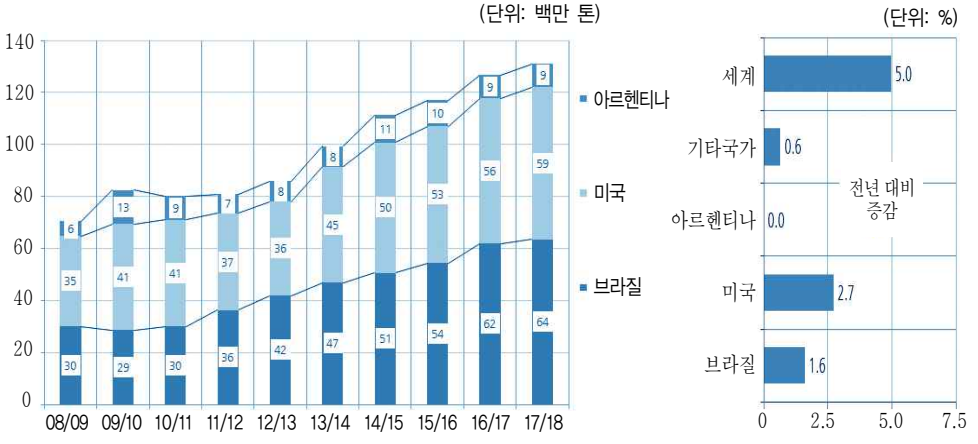
수입국 기준으로는 이집트의 가금류 수요 증가로 인해 옥수수 수입 또한 증가세를 보이며 북아프리카 지역의 수입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또한 가금류와 어류 양식 확대로 인해 옥수수 수입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 정부의 자국산 옥수수 소비 촉진 정책으로 인해 향후 옥수수 수입 감소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두 물동량 추이와 전망

2017/18 시즌 대두 물동량은 2016/17 시즌 대비 '3.4%(500만 톤)' 가량 증가한 '1.50억 톤'으로 전망되며 다른 곡물 대비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브라질의 대두 수출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며 2017/18 시즌 수출량이 현재 시즌 대비 '2.6%(160만 톤)' 증가한 '6,350만 톤'으로 전 세계 대두 수출의 4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미국 또한 증가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해 'U.S.D.A'는 전 세계적으로 대두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6. 대두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U.S.D.A

한편 대두 수입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2017/18 시즌 수입량이 2016/17 시즌 대비 '4.5%(400만 톤)' 증가한 '9,300만 톤'으로 예상되며 최근 들어 다른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중동 지역 또한 대두 수입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U.S.D.A'는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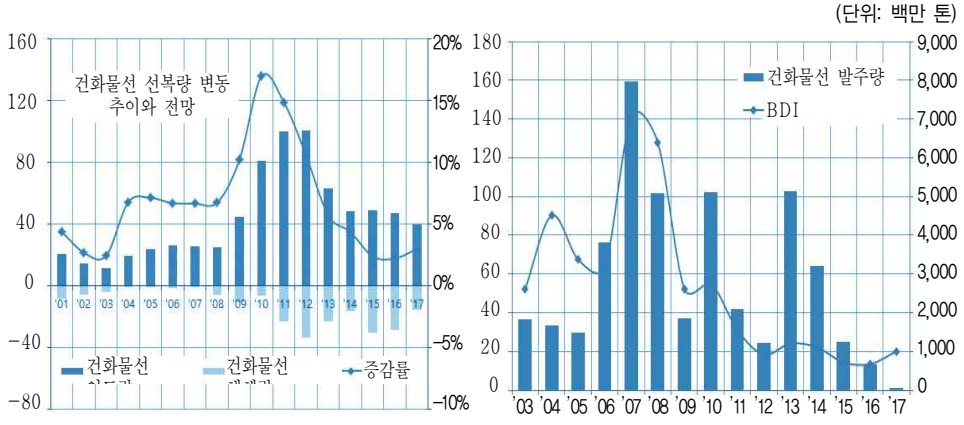
한편 'SSY'는 금년 4월 브라질의 대두 수출량이 '1,040만 톤'으로 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동시에 5~6월 기간에도 수출 강세가 지속되며 대서양 수역 곡물 운임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후 3분기에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대두박을 포함한 대두 물동량이 전 분기 대비 '18%'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건화물선 선복량 추이와 전망

'Clarkson'에 따르면 금년 건화물선의 신조 인도량과 해체량은 각각 '3,970만 톤'과 '1,560만 톤'으로 예상되며 금년 말 선복량은 전년 말 대비 '3.0%' 증가한 '8.2억 톤'으로 전망된다. 1분기 시황 상승으로 인해 선주들이 신조 인도를 서두르는 반면 선박 해체 시기는 늦추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조 인도량은 증가하는 반면 해체량은 감소하며 선복 증가율 전망치는 점차 상향 조정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시황 회복 지연 우려가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선형별로 볼 때 금년 Cape 선복 증가율은 비교적 낮은 '1.3%'로 예상되는 반면 P'max 와 S'max 선복 증가율은 각각 '3.0%'와 '4.1%'로 다소 높을 전망인데 이 또한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어 P'max 이하 선형이 주로 운송하는 곡물 운임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 또한 있어 보인다.

그림 7. 건화물선 선복량 추이와 전망



자료: Clarkson

금년 현재까지 건화물선의 신조 발주 척수는 총 30척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예년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본격적인 시황 회복에 대한 확신이 아직 적은 상황에서 선주들이 신조 발주 보다는 중고선 매입을 선호하는 동시에 아직은 선박 금융이 원활치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건화물선의 중고선가는 1분기에 P'max 선형에 대한 매입 수요 증가로 인해 동 선형을 중심으로 뚜렷한 상승세가 나타난 뒤 최근 들어서는 상승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신조선가의 경우 큰 변동 없이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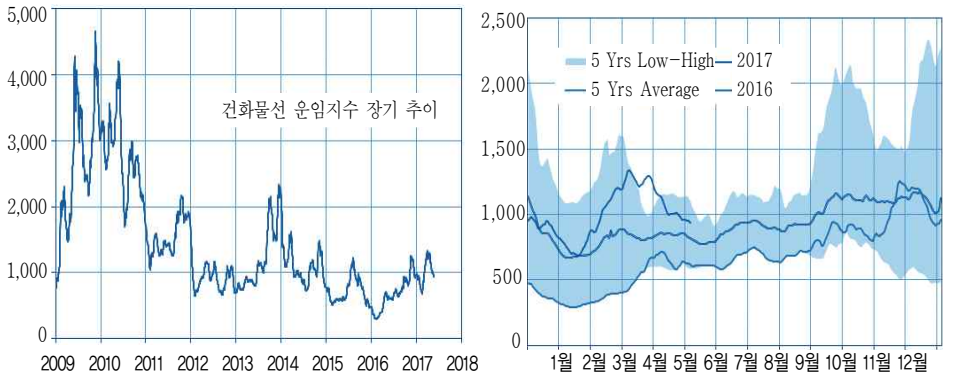
2. 곡물 해상운임 추이와 전망

▮ 건화물선 시황 추이

최근 건화물선 시황은 1분기에 운임 회복세가 나타나며 3월 말에 건화물선 운임지수가 '1,338 pt'로 단기 고점을 기록한 뒤 2분기 들어서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P'max 선형의 시황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2분기 남미 곡물 수출 강세에도 불구하고 철광석 가격이 빠르게 하락함에 따라 중국이 철광석 수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한편 선복 해체량 또한 감소한 것이 최근 시황 하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림 8. 건화물선 운임지수 추이(장기·단기)

(단위: pt)



자료: 발틱해운거래소

물동량 측면에서는 금년 4월까지 중국의 철광석과 석탄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약세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금년 남은 기간 원자재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제기되고 있다.

종합해 보면 금년 건화물선 수요는 철광석과 곡물 물동량 증가세에 힘입어 작년 '1.3%' 증가 대비 크게 높아진 '3.3%'로 예상되는 한편 선복량 증가율 또한 이와 비슷한 '3.0%'로 전망되고 있어 작년보다는 전반적인 수급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어 운임 또한 관망세가 지속되며 당분간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곡물 해상운임 추이와 전망

'Clarkson'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19일 기준 US Gulf/중국 곡물 운임은 톤 당 '$35.0' 수준으로 전월 대비 톤 당 '$7' 가량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인 '$34.0' 선에 근접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7'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서부 지역(PNW) 선적 운임의 경우 톤 당 '$17.0' 선으로 전월 대비 '$4.5' 하락 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 중이며 '상해 항운 교역소'에 따르면 '브라질 Santos/중국' 곡물 운임은 톤 당 '$24.2'선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9. 노선별 곡물 운임 추이

(단위: US$/ton)

구 분	USG	PNW
현 물	35.00	17.00
2017년	36.96	19.02
2016년	27.93	14.94
5년 평균	32.30	11.72
5년 최고	46.00	25.00
5년 최저	19.50	1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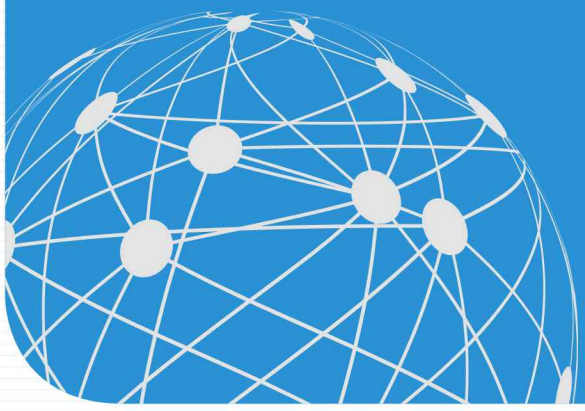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2분기 들어 전반적인 시황 약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곡물을 주로 운송하는 P'max 와 S'max 선형의 용선료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곡물 운임이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연료유가 또한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2분기 시황 조정이 크게 나타나고는 있으나 하반기 시황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고 중국의 철강 생산 강세 지속으로 여전히 철광석 등 철강 원료에 대한 수요는 견조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곡물 수출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곡물 운임 하락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철광석, 석탄,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반등세가 나타날 경우 운임 변동성 또한 높아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또한 필요해 보인다.

Part 2.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의
농업 생산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 89
최근의 국제 정세가 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113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의 농업 생산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1)]

정원호(부산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 서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KRU국가)는 구소련 국가로서 현재는 독립국가연합(CIS)에 속한다.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은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하였고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농업분야는 토지 국유화, 집단 농업, 농산물과 농업 자재의 계획생산, 유통과 가격 통제 등이 이루어졌다. 집단농업은 대부분 생산성이 낮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소련은 곡물과 육류의 만성적인 수입국이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된 후 15개의 국가로 분열되었고 발트 3국을 제외한 12개국이 모여 CIS를 결성하였다. 소련으로부터 독립 직후 KRU국가들은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시장경제로 변화함에 따라 경제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저성장 시기를 겪었다. 농업의 경우 집단농장의 농민들에게 토지가 무상으로 분배되고 농산물 가격이 자유화되었으나 이미 계획생산에 익숙해진 농민들은 스스로 농업경영을 하기 어려웠고 소련 시절에 비해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8년 경제위기 전후로 자원가격과 수입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였고 KRU국가들의 화폐가치가 평가 절하되어 수입 대체를 통해 시장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다. 동시에 KRU국가들은 내부적으로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한 농업 생산구조 개혁을 실시하였다. 개혁이 진행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3개국 모두 최대의 곡물수출국이 되어 미국 등 기존의 주요 곡물 수출국들과 경쟁하고 있다.

2008년 유럽부흥은행(ERBD)과 UN 식량 농업기구(FAO)의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의 곡물 생산량 증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지금까지 3개국들은 적합한 농업 여건과 농업생산 개혁을 통해 농업

1) 본고는 William and Olga(USDA ERS 보고서 FDS17b-01, Feburary 2017)를 중심으로 기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재정리하였음.

* wchung@pusan.ac.kr

생산량이 증대해왔으나 여전히 관개시설 미흡, 농기계 부족, 농업 생산시설의 노후화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선진 기술과 교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의 농업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1990~2000년대에 나타난 농업 생산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생산량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KRU국가들의 농업 발전 전망을 예측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2. 국가별 농업 현황

2.1 KRU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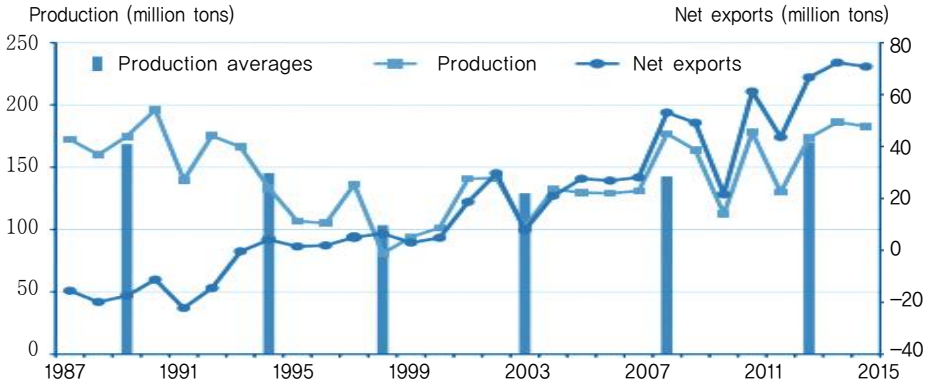
독립국가연합(CIS) 12개 국가들 중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KRU국가)는 3대 주요 농업국가에 속한다. KRU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넓은 경작지를 가지고 있으며 비옥한 토양을 보유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흑해와 맞닿아 있는 남부지역은 최고의 경작지로 손꼽힌다(그림 1 참고). 이러한 농업환경을 바탕으로 주로 밀, 옥수수 등 곡물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밀, 우크라이나는 옥수수와 유지작물이 주력 생산 작물이다.

KRU국가들도 농업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 9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밀, 옥수수 등 곡물을 비롯한 작물의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8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원가격이 상승하고 KRU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평가절하되면서 수입 대체의 가능성을 보였고, 국가 내부적으로 토지 소유권 확립, 토지개혁 등 농업 생산구조 개혁 정책을 통해 2000년대 이후 다시 생산량이 증대할 수 있었다. 점차 잉여분이 생겨 수출하게 되었고 매년 수출량도 증가하고 있다. <그림 2>는 KRU국가들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2000년대까지는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고, 2000년대 이후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현재 KRU국가들은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에 속하며 밀은 미국의 수출량을 넘어섰고 옥수수 수출량도 매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그림 3>은 KRU와 미국의 밀 수출량

비중 변화를 비교한 표이며 2013년부터 세계 밀 시장에서 미국보다 더 많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주요 밀 수입국인 이집트는 2000년 초 러시아, 우크라이나로부터 0.9메트릭 톤, 미국으로부터 2.8메트릭 톤을 수입하였으나 2015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로부터 6.8메트릭 톤, 미국으로부터는 0.7메트릭 톤을 수입하였다.

그림 1.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C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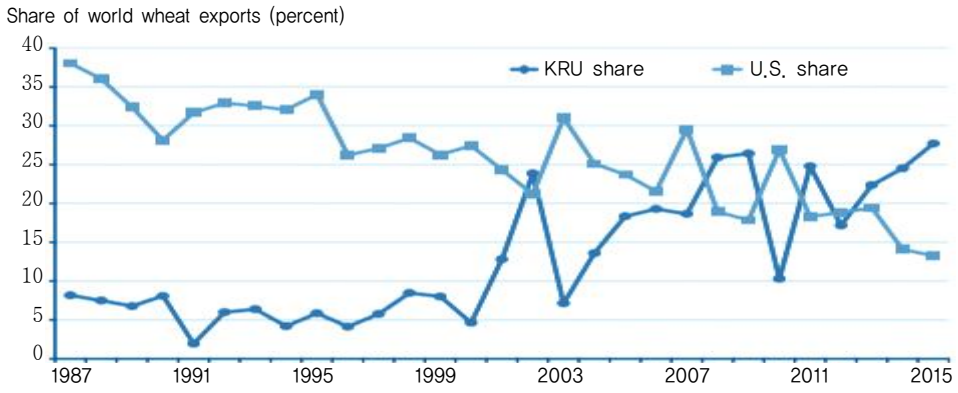
그림 2. KRU국가들의 곡물 재배면적, 생산량과 수출량 변화(1987~2015)



주: The bars give average annual grain production over the periods 1987~1991, 1992~95, 1996~2000, 2001~05, 2006~10, and 2011~15, Negative net grain exports are net imports

자료: State Statistics of Kazakhatan, Russia, and Ukraine (KUR): USDA,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Online.

그림 3. KRU국가들과 미국의 밀 수출량 비중 비교(1987~2015)



주: Exports are gross. Years are grain-marketing years, each of which starts in July and ends in June of the following year. KRU-Kazakhstan, Russia, and Ukraine.
자료: USDA,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online.

2.2. 러시아

지구상에서 가장 영토가 큰 국가인 러시아의 전체 농지 면적은 2011년 기준 1억 9,607만 ha에 달한다. 이 중 경작지는 1억 1,533만 ha이고 7,662만 ha에 작물을 파종하고 있다. 주요 농업 지역은 남부지방과 극동지방이며 특히 남부지역은 흑해 연안으로 러시아 최대 곡창지대가 속해 있어 다른 지역보다 관개시설, 경지정리 등 농업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러시아에서 농업생산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

러시아는 면적이 매우 넓어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를 보이나 전반적으로 매우 춥고 긴 겨울과 짧은 여름을 가지는 대륙성 기후이다. 전반적인 기후조건은 농업하기에 불리하지만 남부 지역과 일부 지역은 온대성 기후가 나타나 농업하기에 적합하다.

러시아의 주요 농산물은 곡물, 해바라기, 사탕무 등이며 곡물과 감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옥수수, 해바라기, 사탕무 등 작물은 세계 5위 내에 속하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 돼지, 양, 우유, 계란 등의 생산량도 세계 5위권 내에 속한다.

<표 1>은 2011년 러시아의 곡물 재배면적과 생산량, 단위면적 당 생산량을 나타낸 표이다. 2011년 기준 러시아 전체 곡물 재배면적은 43,568천 ha이고 이 중 밀이 절반 이상인 25,552천 ha를 차지하고 있다. 총 생산량은 9,390만 톤이며 밀 5,620만 톤, 옥수수 670만 톤, 기타 곡물류와 콩류가 1,410만 톤이다.

표 1. 러시아의 곡물 재배면적, 생산량, 단위면적 당 생산량 추이(2011년)

구분	밀	보리	호밀	귀리	옥수수	쌀	기장	메밀	콩류	기타	총계
재배면적 (천 ha)	25,552	7,880	1,550	3,046	1,715	211	826	906	1,552	330	43,568
생산량 (천 톤)	56,231	16,935	2,969	5,334	6,680	1,049	878	800	2,451	581	93,908
단위면적 당 생산량 (MT/ha)	2.26	2.20	1.95	1.82	4.31	5.07	1.39	0.95	1.67	–	

자료: 배상두(2012), 러시아 곡물산업 동향, 러시아 연방통계청

러시아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점차 축산물 소비량이 증가해왔다. 그러나 축산물 생산량이 소비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축산업은 주로 중앙, 볼가, 시베리아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2>는 2011년 러시아의 축산물 사육 두수를 나타낸 표로 소는 649만 두, 돼지는 997만 두, 말은 27만 두, 가금류는 80,369만 두, 사슴과 순록은 93만 두가 사육되고 있다. 육류 및 유제품 생산량을 나타낸 <표 3>을 보면 2011년 기준 소는 20만 톤, 돼지는 35만 톤 도축되었고 계란은 303억 개, 우유는 1,106만 톤, 벌꿀은 6만 톤 생산되었다.

표 2. 러시아의 축산물 사육두수(2011년)

(단위: 천 두)

구분	소	돼지	말	가금류	사슴/순록
2011	6,489	9,973	277	803,690	932

자료: 배상두(2012), 러시아 곡물산업 동향, 러시아 연방통계청

표 3. 러시아의 육류 및 유제품 생산량(2011년)

(단위: 천 톤, 천 톤, 백만 개, 천 톤, 톤)

구분	소	돼지	계란	우유	벌꿀
2011	204	351	30,372	11,055	61,053

자료: 배상두(2012), 러시아 곡물산업 동향, 러시아 연방통계청

2.3.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인 농업 국가로 동쪽에 중앙아시아, 서쪽에 유럽과 인접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 전 세계 흑토의 30% 이상이

우크라이나에 분포되어 있으며 여기서 생산된 양질의 농산물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기후조건은 흑해 인근의 주요 농업지역인 남부 지역은 온화한 기후이며 북쪽으로 갈수록 낮은 기온을 보인다.

우크라이나의 2011년 기준 전체 농지 면적은 41,557천 ha이고 이 중에서 경작지는 78.2%인 32,497천 ha이며 실제 파종면적은 27,670천 ha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주요 작물은 곡물류(밀, 보리, 옥수수 등)과 콩류, 유지작물(해바라기, 유채) 등이 있다. 유지작물의 경우 KRU국가들 중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곡물류는 2011년 기준 전체 작물 재배면적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밀은 곡물류 전체 면적 중 41%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작물이다.

<표 4>는 1990~2015년간 우크라이나에서 재배되는 주요 곡물류와 콩류의 수확면적을 나타낸 표이다. 2015년 기준 곡물류 수확면적은 1,464만 ha로 1990년 1,452만 ha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곡물류 중 밀이 684만 ha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곡물용 옥수수(408만 ha), 보리(281만 ha) 순으로 나타났다. 콩류는 1990년 141만 ha에 비해 재배면적이 상당히 감소하여 현재는 25만 ha 수준이다. 소련 붕괴 이후 대부분의 식량작물의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0년대 이후 회복하였으나 최근 다소 감소하였다.

표 4. 우크라이나 곡물류 및 콩류 수확면적(1990~2015년)

(단위: 천 ha)

구분	곡물류·콩류							
	전체	밀	곡물용 옥수수	귀리	메밀	보리	호밀	콩류
1990	14,522	7,558	1,223	486	362	2,713	517	1,414
2000	12,587	5,162	1,279	481	529	3,689	638	383
2010	14,576	6,284	2,648	311	199	4,317	279	391
2011	15,321	6,657	3,544	280	286	3,684	279	336
2012	14,792	5,630	4,372	301	273	3,293	298	303
2013	15,804	6,566	4,827	241	168	3,233	279	256
2014	14,627	6,011	4,627	244	137	3,003	185	225
2015	14,641	6,840	4,084	211	128	2,805	151	247

자료: 최지현 외(2016),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농업 현황, 우크라이나 통계청 (http://ukrstat.org), 카자흐스탄 통계청(www.stat.gov.kz)

<표 5>는 1990~2015년간 우크라이나에서 재배되는 주요 곡물류와 콩류의 생산량을 나타낸 표이며 2015년 기준 곡물류와 콩류는 총 6,013만 톤이 생산되고 있다. 생산량 역시 재배면적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구소련 시대인 1990년 5,100만 톤에서 체제 변화 이후 2000년 2,446만 톤으로 생산량이 절반 이상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 다시 생산량이 상승하고 있다.

표 5. 우크라이나 곡물류 및 콩류 생산량(1990~2015년)

(단위: 천 톤)

구분	곡물류·콩류							
	전체	밀	곡물용 옥수수	귀리	메밀	보리	호밀	콩류
1990	51,009	30,374	4,737	1,303	420	9,169	1,260	3,266
2000	24,459	10,197	3,848	881	481	6,872	968	652
2010	39,271	16,851	11,953	459	134	8,485	465	592
2011	56,747	22,324	22,838	506	282	9,098	579	491
2012	46,216	15,763	20,961	630	239	6,936	677	473
2013	63,051	22,279	30,950	467	179	7,562	638	372
2014	63,859	24,114	28,497	613	167	9,046	478	481
2015	60,126	26,532	23,328	489	128	8,288	391	502

자료: 최지현 외(2016),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농업 현황, 우크라이나 통계청 (http://ukrstat.org), 카자흐스탄 통계청(www.stat.gov.kz)

<표 6>은 1990~2015년간 우크라이나의 곡물류 및 콩류의 생산성 변화를 나타낸 표로 2015년 전체 곡물류 및 콩류의 생산성은 41.1첸트너/ha이며 1990년 35.1첸트너/ha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전년(43.7) 대비 다소 감소하였다. 생산성이 가장 높은 곡물은 곡물용 옥수수로 57.1첸트너/ha이고, 메밀이 10첸트너/ha로 가장 낮은 생산성을 보였다. 1990년대와 2015년의 생산성을 비교하면 밀, 귀리, 메밀, 콩류는 생산성이 하락하였고, 곡물용 옥수수와 호밀은 생산성이 증가하였다.

표 6. 우크라이나의 곡물류 및 콩류 생산성(1990~2015년)

(단위: 첸트너/ha)

구분	곡물류·콩류							
	전체	밀	곡물용 옥수수	귀리	메밀	보리	호밀	콩류
1990	35.1	40.2	38.7	26.8	11.6	33.8	24.4	23.1
2000	19.4	19.8	30.1	18.3	9.1	18.6	15.2	17.0
2010	26.9	26.8	45.1	14.8	6.7	19.7	16.7	15.1
2011	37.0	33.5	64.4	18.1	9.9	24.7	20.7	14.6
2012	31.2	28.0	47.9	20.9	8.7	21.1	22.7	15.6
2013	39.9	33.9	64.1	19.4	10.6	23.4	22.8	14.5
2014	43.7	40.1	61.6	25.1	12.2	30.1	25.8	21.4
2015	41.1	38.8	57.1	23.2	10.0	29.5	25.9	20.4

자료: 최지현 외(2016),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농업 현황, 우크라이나 통계청 (http://ukrstat.org), 카자흐스탄 통계청(www.stat.gov.kz)

다음으로 <표 7>은 1990~2015년간 해바라기, 유채 등 유지작물의 수확면적, 생산량과 생산성을 나타낸 표이다. 해바라기와 유채 모두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확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먼저 해바라기는 2015년 517만 ha의 면적에서 1,118만 톤이 생산되었으며 생산성은 15.8첸트너/ha이다. 1990년에 비해 수확면적과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생산성도 증가하였다. 유채는 2015년 67만 ha의 수확면적에서 174만 톤이 생산되었고 생산성은 25.9첸트너/ha이다. 해바라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지속적으로 수확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성은 25.9첸트너/ha로 해바라기(21.6)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표 7. 우크라이나의 유지작물 수확면적, 생산량과 생산성(1990~2015년)

(단위: 천 ha, 천 톤, 첸트너/ha)

구분	수확면적		생산량		생산성	
	해바라기	유채	해바라기	유채	해바라기	유채
1990	1,626	90	2,570	130	15.8	14.5
2000	2,842	157	3,457	132	12.2	8.4
2010	4,526	863	6,772	1,470	15.0	17.0
2011	4,717	833	8,671	1,437	18.4	17.3
2012	5,082	547	8,387	1,204	16.5	22.0
2013	5,091	996	11,051	2,352	21.7	23.6
2014	5,212	865	10,133	2,198	19.4	25.4
2015	5,166	671	11,181	1,738	21.6	25.9

자료: 최지현 외(2016),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농업 현황, 우크라이나 통계청 (http://ukrstat.org), 카자흐스탄 통계청(www.stat.gov.kz)

우크라이나의 축산업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 체제가 전환됨에 따라 위축되었다. <표 8>은 우크라이나의 가축 사육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2015년 기준 가금류가 20,399만 톤으로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으며 단일 가축 중에서는 돼지가 708만 두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90년과 비교하면 모든 가축들의 사육 두수가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소는 2,462만 두에서 375만 두로 돼지는 1,943만 두에서 708만 두, 가금류는 24,610만 두에서 20,399만 두, 양과 염소는 842만 두에서 132만 두로 감소하였다. 2000년과 2010년을 비교할 때 대부분의 가축 사육두수가 감소하였으나 가금류는 오히려 약 50% 증가하였다. 이는 2005년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가 양계산업지원정책을 시행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8. 우크라이나의 가축 사육두수(1990~2015년)

(단위: 천 두)

구분	소	돼지	가금류	양·염소
1990	24,623	19,427	246,104	8,419
2000	9,424	7,652	123,722	1,875
2010	4,494	7,960	203,840	1,732
2011	4,426	7,373	200,761	1,739
2012	4,646	7,577	214,070	1,738
2013	4,534	7,922	230,290	1,735
2014	3,884	7,351	213,336	1,371
2015	3,750	7,079	203,986	1,325

자료: 최지현 외(2016),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농업 현황, 우크라이나 통계청 (http://ukrstat.org), 카자흐스탄 통계청(www.stat.gov.kz)

<표 9>는 1990~2015년간 우크라이나의 육류 및 유제품 생산량을 나타낸 표이다. <표 8>의 가축 사육 두수 감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육류 전체 생산량도 232만 톤으로 1990년 439만 톤에 비해 감소하였다. 육류 전체의 생산량은 2000년에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며 2010년 이후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큰 변화는 없다. 1990년에 비해 소고기, 돼지고기, 양과 염소고기는 생산량이 감소한 반면 가금류 고기는 71만 톤에서 114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우유는 1990년 2,451톤에서 2015년 1,061만 톤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표 9. 우크라이나의 육류 및 유제품 생산량(1990~2015년)

(단위: 천 톤)

구분	육류 전체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고기	양·염소 고기	우유
1990	4,358	1,985	1,576	708	46	24,508
2000	1,663	754	676	193	17	12,658
2010	2,059	428	61	954	21	11,249
2011	2,144	399	704	995	20	11,086
2012	2,210	389	701	1,075	20	11,378
2013	2,389	428	748	1,168	19	11,488
2014	2,360	413	743	1,165	14	11,133
2015	2,323	384	759	1,144	14	10,615

자료: 최지현 외(2016),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농업 현황, 우크라이나 통계청 (http://ukrstat.org), 카자흐스탄 통계청(www.stat.gov.kz)

2.4.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1991년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신생국가이며 농업을 기반 산업으로 하는 국가이다. 곡물산업이 전체 농업생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밀 생산량은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전체 작물 재배면적은 21,495천 ha이고 식량곡물의 재배면적은 작물 재배면적의 7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내륙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의 기후는 대륙성기후이며 겨울의 경우 북부 지역은 춥고 남부는 상대적으로 온난한 편이고 여름의 경우 북부 지역은 서늘하고 남부지역은 무더운 날씨가 나타난다. 이러한 기후를 활용하여 북부지역에서는 봄밀과 보리, 귀리 등 곡물을 재배하고 남부지역에서는 겨울 밀을 재배하는 등 전국적으로 곡물을 재배하고 있다. 특히 북부지역은 유기질이 풍부한 흑토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곡물 재배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토양조건은 좋은 편이나 가뭄이 빈번하고 관개시설이 미흡하여 연간 생산량 변동이 크게 나타난다.

카자흐스탄의 농업 생산 품목은 지역별로 다르며 북부와 남부지역에서는 밀 등 곡물이 주로 생산되고, 동부지역에서는 유지작물 그리고 중부지역에서는 축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표 10>은 카자흐스탄의 주요 농산물 재배면적을 나타낸 표이다. 카자흐스탄의 주요 농산물은 식량곡물, 유지작물, 감자 등이 있으며 2015년 기준 식량곡물(곡물류,

콩류) 재배면적은 1,498만 ha로 전체 재배면적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이 중 밀이 1,177ha로 81%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유지작물의 재배면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4년 66만 ha에서 2015년 201만 ha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10. 카자흐스탄의 주요 농산물 재배면적(2004~2015)

(단위: 천 ha)

	식량곡물	밀	유지작물	감자
2004	14,278	11,957	665	168.2
2005	14,842	12,648	670	168.2
2007	15,428	12,892	673	155.5
2008	16,190	13,476	914	163.7
2009	17,207	14,751	1,186	170.3
2010	16,619	14,262	1,748	179.5
2011	16,219	13,849	1,816	184.4
2012	16,257	13,464	1,854	190.2
2013	15,878	13,089	1,980	184.8
2014	15,292	12,388	2,230	186.8
2015	14,982	11,771	2,010	190.6

자료: 최지현 외(2016),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농업 현황, 카자흐스탄 통계청(www.stat.gov.kz)

표 11. 카자흐스탄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2005~2015)

(단위: 천 톤)

	식량곡물	밀	감자
2005	13,781	11,198	2,521
2006	16,512	13,461	2,362
2007	20,138	16,467	2,415
2008	15,578	12,538	2,354
2009	20,831	17,052	2,756
2010	12,185	9,638	2,555
2011	26,961	22,732	3,076
2012	12,865	9,841	3,126
2013	18,231	13,941	3,344
2014	17,162	12,997	3,411
2015	18,673	13,747	3,521

자료: 최지현 외(2016),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농업 현황, 카자흐스탄 통계청(www.stat.gov.kz)

<표 12>의 주요 작물별 생산성을 보면 2005년과 비교할 때 모든 작물의 생산성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식량곡물은 2005년 10.0첸트너/ha에서 2015년 12.6첸트너/ha으로 증가하였다. 밀은 2015년 기준 11.9첸트너/ha로 낮은 편이며, 이상기후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생산이 불안정하다. 유지작물은 2015년 기준 8.1이고 가장 생산성이 높은 채소는 245.8첸트너/ha로 나타났다.

표 12. 카자흐스탄의 주요 작물별 생산성(2005~2015)

(단위: 첸트너/ha)

	식량곡물	밀	유지작물	채소
2005	10	9.5	7.0	196.0
2006	11.7	11.3	6.6	201.0
2007	13.3	13.0	7.2	211.0
2008	10.1	9.7	5.5	204.0
2009	12.6	11.9	6.5	218.7
2010	8.0	7.3	5.0	214.4
2011	16.9	16.6	6.7	222.9
2012	8.6	7.9	6.1	234.0
2013	11.6	10.8	8.0	238.7
2014	11.7	10.9	7.8	243.0
2015	12.6	11.9	8.1	245.8

주: 첸트너는 독일 등에서 사용하는 중량 단위로 약 50kg임.
자료: 최지현 외(2016),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농업 현황, 카자흐스탄 통계청(www.stat.gov.kz)

카자흐스탄의 축산업은 2013년 기준 전체 농업의 44%를 차지하며 곡물산업과 함께 중요한 산업이며 양, 낙타, 말, 소 등 목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13>은 카자흐스탄의 주요 축산물 사육두수를 나타낸 표이다. 가금류가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3,563만 수이다. 양과 염소는 1,801만 두, 소는 618만 두, 돼지는 88만 두, 말은 2,070두 수가 사육되고 있다. 양과 염소, 소, 말의 사육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돼지는 2010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표 13. 카자흐스탄 주요 축산물 사육두수(2004~2015)

(단위: 천 수, 천 두)

	가금류	양·염소	소	돼지	말
2004	25,606	13,409	5,204	1,292	1,120
2005	26,216	14,334	5,457	1,282	1,164
2007	29,507	16,080	5,840	1,353	1,291
2008	30,148	16,770	5,992	1,347	1,371
2009	32,687	17,370	6,095	1,326	1,439
2010	32,781	17,988	6,175	1,344	1,528
2011	32,870	18,092	5,702	1,204	1,607
2012	33,474	17,633	5,690	1,032	1,686
2013	34,173	17,561	5,851	922	1,785
2014	35,020	17,915	6,033	885	1,938
2015	35,633	18,015	6,184	888	2,070

자료: 최지현 외(2016),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농업 현황, 카자흐스탄 통계청(www.stat.gov.kz)

3. KRU 국가들의 농업 생산구조 변화

앞 장에서는 KRU 국가들의 농업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KRU국가들은 2000년대 이후 곡물과 유지작물의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축산 부문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KRU국가들의 90년대에 농업에 어떤 생산 구조 변화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고, 2000년대 이후 농업 생산이 증대될 수 있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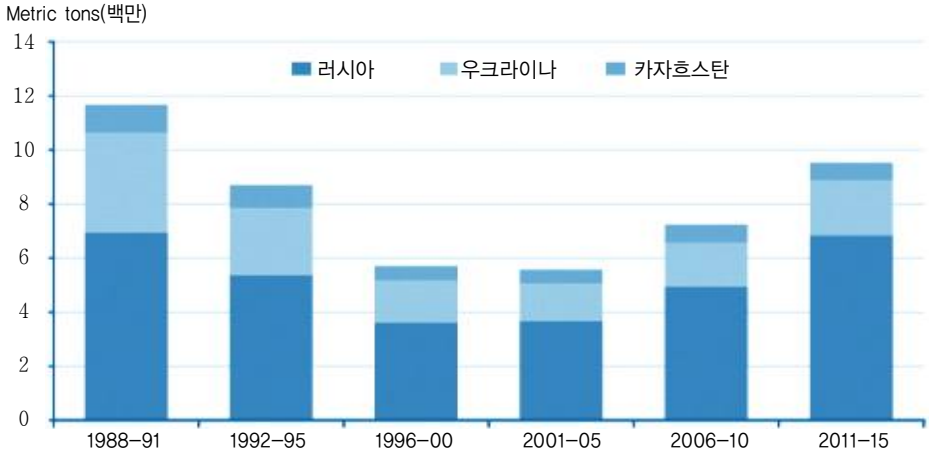
3.1. 1990년대 초 - 계획경제 체제 붕괴

KRU국가들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하루아침에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통제에 따라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던 시스템이 사라지게 되었다. 농업 분야에서는 국영농장이나 집단농장 체제가 붕괴되었고, 계획생산, 유통과 가격에 대한 통제가 사라지게 되어 농촌사회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였다. 집단농장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농장의 농민들에게 농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가 제공되었고 농민들은 이제부터 모든 농업 경영을 스스로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지시와 명령에 따라 행동해온 농민들은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낯설었고

농업을 지속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대부분의 농민들에게 소유권 증서는 종이 한 장에 지나지 않았고, 이를 보드카 한 병과 바꾸는 경우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일부 농민들은 그 소유권 지분증서를 모아서 나중에 농장 소유권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집단농장과 계획생산에 익숙한 농민들을 대신하여 경영능력을 가진 사업가가 집단화된 농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그 당시 KRU국가들은 농지 소유권 문제와 법적 제도적 정비가 불충분한 상황이었다. 또한 사업가가 농장을 인수하여 경영하더라도 생산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자본과 선진 기술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KRU국가들의 집단농장 시스템의 붕괴는 농업 생산의 급격한 감소와 농산물 자급률 감소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농촌사회가 해체되어 많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었다.

농업에서도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부문은 축산 부문이었다. 구소련 시절 정부는 축산을 중요한 분야로 보고 많은 지원을 하였으나 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급격하게 지원이 감축되었다. <그림 4>의 KRU국가의 육류 생산 변화를 보면, 90년대 초에 비해 90년대 말의 가축 생산 두수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우크라이나가 57%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카자흐스탄은 51%, 러시아는 48% 감소하였다.

그림 4. KRU 국가의 육류 생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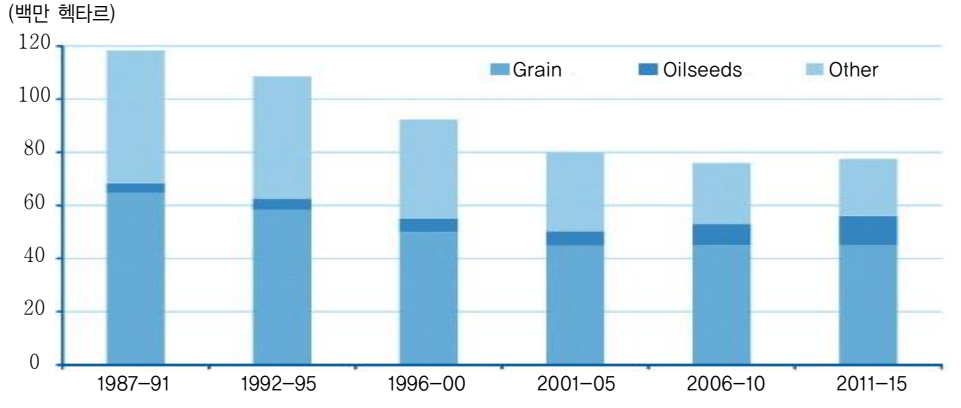


주: The bars give average annual figures over the period. KRU=Kazakhstan, Russia, and Ukraine.
자료: USDA,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Online.

축산분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상당히 축소되었다. 구소련 시절에는 총 GDP의 10%가 농업보조금으로 투입되었으나 붕괴 이후 농업보조금이 거의 사라졌다. 특히 기존에 많은 보조를 받던 축산분야의 타격이 컸으며 축산업이 상당히 위축되었다. 일부 러시아 학자들은 축산물 자급률 감소를 우려하며 부정적 견해를 가졌으나, 몇몇 서구 학자들은 러시아가 축산분야에 비교우위가 없다고 주장하며 경쟁력이 없는 축산업의 축소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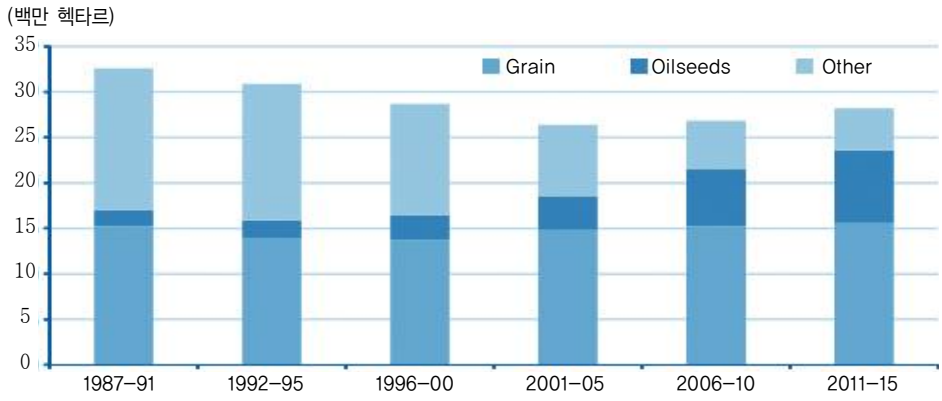
이러한 농축산업의 축소로 인해 1990년대에 걸쳐 KRU국가들의 모든 종류의 작물 재배면적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기타 작물(건초, 옥수수 등 사료작물)의 재배면적이 가장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다. <그림 5~7>은 1987~2015년간 각각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의 작물별(곡물류, 유지작물, 기타 작물) 재배면적 변화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국가별로 보면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곡물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하였고 우크라이나는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모든 작물 재배면적 축소 추세에서도 유지작물의 재배면적은 축소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2000년대 이후 유지작물의 면적이 상당히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1990년 말과 2015년의 유지작물 재배면적을 비교하면 러시아는 2배, 우크라이나는 3배, 카자흐스탄은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의 전체 재배면적에서 유지작물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러시아 14%, 우크라이나 38%, 카자흐스탄 9%이다. 유지작물 면적의 대부분은 해바라기가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대두의 면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5. 러시아 작물별 재배면적 변화(1987~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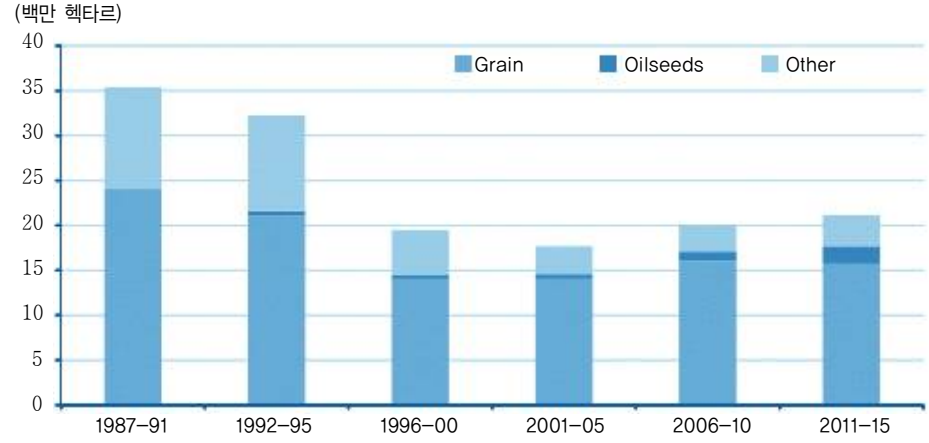
주: The bars show the annual average area planted over the periods specified.
자료: Russian Federal Service of State Statistics.

그림 6. 우크라이나 작물별 재배면적 변화(1987~2015)



주: The bars show the annual average area planted over the periods specified.
자료: Ukrainian State Statistics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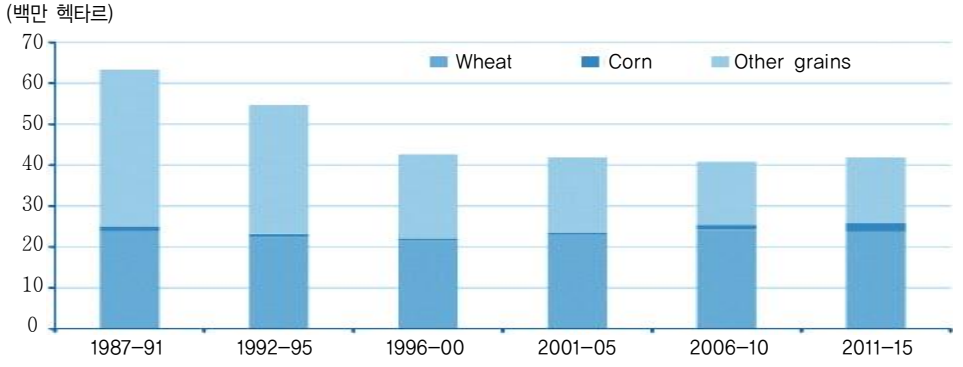
그림 7. 카자흐스탄 작물별 재배면적 변화(1987~2015)



주: The bars show the annual average area planted over the periods specified.
자료: Kazakhstan Republic Statistical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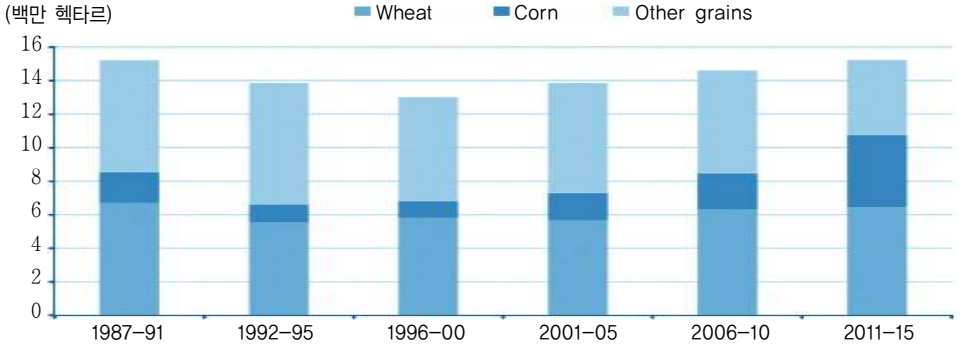
<그림 8~10>은 KRU국가들의 곡물 종류별 재배면적 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밀은 1990년대 에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2000년대 이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재배면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카자흐스탄의 재배면적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옥수수 재배면적은 우크라이나가 독보적인 증가세를 보였는데 90년대 말 98만 ha에서 2015년 440만 ha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림 8. 러시아 곡물류 재배면적 변화(1987~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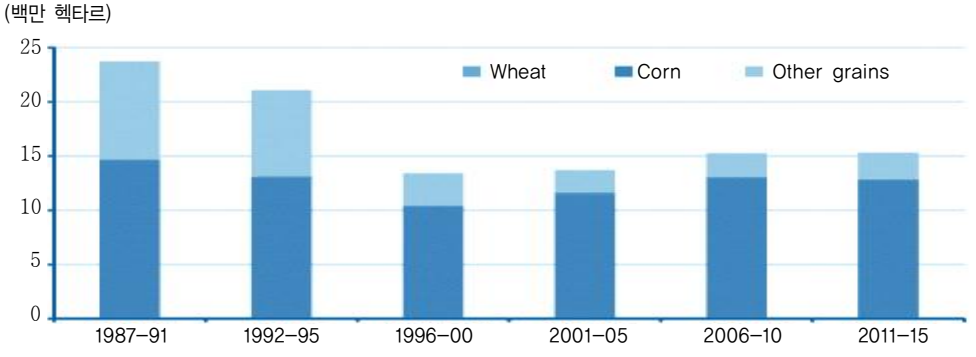
주: The bars show the annual average harvested (not planted) area over the periods specified.
자료: Russian Federal Service of State Statistics.

그림 9. 우크라이나 곡물류 재배면적 변화(1987~2015)



주: The bars show the annual average harvested (not planted) area over the periods specified.
자료: Ukrainian State Statistics Service.

그림 10. 카자흐스탄 곡물류 재배면적 변화(1987~2015)



주: The bars show the annual average harvested (not planted) area over the periods specified.
자료: Kazakhstan Republic Statistical Agency.

3.2. 1990년대 말~2000년대 – 농업 생산구조 개혁

2000년대 이후 KRU국가들이 농업 생산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 외부적 상황과 내부적 개혁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적 상황은 1998년 경제위기 전후로 나타난 변화를 의미한다. 경제 위기 직후 KRU국가들의 화폐가 평가 절하되었고 이는 수입농산물의 가격 상승을 야기하여 수입 대체에 의한 시장 회복의 가능성을 주었다. 예컨대, 러시아의 1998년 12월 소비자가격지수(1997년=100)는 184.4였으나 식료품의 소비자가격지수는 196에 달하였다. 또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KRU국가들의 자국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였고, 농업 생산자들의 판매조건이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90년대까지 악화되던 KRU국가들의 농업 교역조건이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개별 국가들의 농업 기업들의 재무상황이 개선되면서 농기계, 비료 등 사용량이 증가하였다.

국가 내부적으로는 농업 생산구조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큰 변화는 토지소유권과 농가구조의 개혁이다. 현재 KRU국가들의 농업경영주체는 농업회사, 전업농, 생계형 농가로 구성된다. 농업회사는 농업경영에 대해 복합적 영농을 담당하는 법인을 의미하며 농업 주식회사, 지주회사 등이 있다. 1990년대 초 이들 국가의 농업경영 주체를 보면 전업농과 생계형농가가 대부분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농업회사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1990년 이전 농업회사는 5,000개 미만이었으나 2012년 6,179개로 증가하였고 평균 8,000ha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였다. 농업회사 증가의 긍정적인 효과는 농지 소유권 분쟁 등 문제가 발생하여 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투자자 확보와 전문 농업경영인 영입이 가능해졌고, 불분명한 소유권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두 번째로 큰 변화는 토지 및 농가의 법제화 시도이다. KRU국가들은 구체적인 법은 다르지만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이 시기에 토지개혁을 위해 토지법, 토지개혁법 등을 제정하였다. 농가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으며 사실상 토지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독립적인 전업농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초 토지 구조개혁이 가속화되면서 전업농이 확대되었고, 농업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었다.

또한 경쟁력 없는 축산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감소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곡물 생산을 확대하였다. KRU국가들의 곡물 재배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량이 증대하였고

자국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곡물이 남아 사료용 곡물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2000년대 이후 중국 등 여러 국가들의 소득 증가로 인해 육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료용 곡물 수요가 증대하였다. 세계 곡물 수요 증대와 KRU국가들의 곡물 공급 증가 시기가 맞물려 KRU국가들의 농업 생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KRU국가들은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농업 장려정책을 시행하였다. 비료 등 투입요소 확충, 종자 개량, 도로 및 저장시설 마련 등 농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농업 기술의 진보가 시작되었다. 또한 시장 메커니즘 도입과 비효율적인 농업 조직 개선 등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농업이 발전함에 따라 KRU국가들의 곡물과 유지작물의 생산량이 증대할 수 있었다.

4. KRU국가들의 농업 발전 가능성과 향후 과제 2)

1990년대 KRU국가들의 농·축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 엄청난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KRU국가들의 농업이 처한 문제점과 향후 농업 발전 가능성을 살펴본다. USDA는 매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형을 이용하여 작물의 재배면적, 생산량 등을 예측하고 있다. KRU국가들의 향후 농업 발전 가능성은 USDA가 제시한 2025년 재배면적과 생산량 등 농업 성장 예측치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USDA는 카자흐스탄을 독립적 국가가 아닌 구소련에 속하는 9개 국가를 합쳐서 분석하고 있어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는 USDA 예측치를 제외한다.

4.1. 러시아

UN 식량농업기구(FAO)는 2023년이 되면 러시아가 EU와 호주를 제치고 미국과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 곡물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 본 장의 예측 결과는 USDA가 제시하는 자료이고 나머지 장은 KRU국가들이 제공하는 통계 자료를 이용하였다. USDA자료와 KRU국가의 자료는 측정 기준에 있어 차이가 있어 보고서 전반적 내용과 본 장의 예측 자료가 일관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재배면적의 경우 KRU국가는 작물을 식재한 면적을 의미하고, USDA는 작물의 수확면적을 의미한다.

90년대에는 농업 생산이 부진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곡물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하였고 밀 수출로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앞서고 있다. 러시아는 보다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확충, 비료 시비량 증대, 저장 및 가공시설 마련 등 농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기계화, 품종개량 등 선진 농업기술을 도입하고 투자를 증대한다면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 가능성이 충분한 나라라고 판단된다.

<표 14>는 USDA의 2011~2014년 대비 2025년의 러시아 농작물 재배면적과 생산량 예측을 나타낸 표이다. USDA 예측에 따르면 2025년에 곡물 재배면적은 7%, 생산량은 14%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면적 증가율보다 생산량 증가율이 더 높은데 이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량 증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유지작물은 재배면적 26%, 생산량 38%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곡물보다 더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향후 러시아의 곡물과 유지작물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4. 2025년 러시아 작물 재배면적과 생산량 예측치

구분	파종 면적			생산량		
	2011–14	2025 전망	변화율 (%)	2011–14	2025 전망	변화율 (%)
	백만 ha			메트릭 톤(백만)		
총 파종 면적	77.4	na	na	na	na	na
총 곡물	45.0	48.3	7	90.7	103.1	14
밀	27.5	30.1	9	51.4	61.0	19
옥수수	2.2	3.1	41	9.5	15.1	58
총 유지종자	10.7	13.5	26	13.1	18.0	38
해바라기씨	7.1	8.6	21	9.3	12.5	34
대두	1.6	2.6	65	2.0	3.4	73
기타 작물						
사탕수수	1.1	na	na	41.4	na	na
감자	2.2	na	na	31.0	na	na
채소	0.7	na	na	14.9	na	na
사료 및 목초	17.5	na	na	48.0	na	na

주: Fodder includes corn for silage, grass for hay, and alfalfa. The figures for the columns 2011–14 give average annual values over the period. na=not available.

자료: USDA, ERS analysis based on data from Russian Federal Service of State Statistics and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5(2016)

러시아 곡물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은 기후적 제약, 취약한 법·제도, 농업 전문 인력 부족 등이 있다. 먼저 기후적 제약은 러시아의 지리적 위치 상 이상기후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기상이 좋을 때는 곡물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지만 기상이변이 발생할 경우 생산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 <표 15>의 러시아의 곡물 생산 추이를 보면 풍년이 계속되다가도 바로 흉년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으며 예측이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5. 러시아의 연도별 곡물 생산량 변화(1991~2010)

(단위: 백만 톤)

연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생산량	86	102	95	78	61	67	86	46	53	63	82	84	65	75	76	76	79	105	94	60

자료: 미국 농무부(www.fas.usda)

두 번째는 시장경제로 체제가 전환되었으나 아직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다. 예컨대, 토지법은 2001년에 확정되었으나 여전히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으며 대표적으로 법인, 개인으로서 외국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 다만 러시아 현지 법인을 합작회사 형태로 설립할 경우 외국인도 농지소유가 가능하지만 이 또한 관련법에 따라 외국 자본은 49%까지만 출자할 수 있어 법적 보호에 취약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농업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소련 해체 이후 농촌붕괴에 따른 이농현상이 심하게 나타나 농촌에는 대부분 노약계층의 비율이 높고 농업용 중장비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또한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새로운 종자 개발, 가축 개량 등 새로운 농업 기술 개발이 활발하지 못하다. 이러한 생산측면의 문제점들을 보완한다면 앞으로 더욱 농업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2.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흑토의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농업하기에 최적의 여건을 갖춘 국가이다.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국가들이 체제 변화로 인해 농업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농업분야에 있어 성장이 후퇴하던 시기에도 우크라이나는 상대적으로 농업이 덜 축소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이후 대내외적 상황이 개선되면서

본격적으로 곡물과 유지작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주력 품목인 옥수수는 세계 3위 수출국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표 16>은 USDA의 2025년 우크라이나의 작물 재배면적과 생산량 예측치이다. 2011~2014년에 비해 2025년에 곡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8%, 19%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지작물이 재배면적에 비해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러시아의 곡물 예측치와 비교하면 우크라이나가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지작물의 경우 재배면적은 18%, 생산량은 34%로 곡물보다 훨씬 더 성장할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작물 중에서는 현재 주로 생산되고 있는 해바라기보다 대두가 더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16. 2025년 우크라이나 작물 재배면적과 생산량 예측치

구분	파종 면적			생산량		
	2011–14	2025 전망	변화율 (%)	2011–14	2025 전망	변화율 (%)
	백만 ha			메트릭 톤(백만)		
총 파종 면적	27.8	na	na	na	na	na
총 곡물	15.5	16.8	8	57.7	68.6	19
밀	6.3	8.1	28	21.1	25.9	23
옥수수	4.4	4.6	4	25.8	33.3	29
총 유지종자	7.3	8.7	18	14.3	19.1	34
해바라기씨	5.1	5.5	8	9.6	11.7	23
대두	1.2	1.9	58	2.8	4.9	73
기타 작물						
사탕수수	0.4	na	na	15.9	na	na
감자	1.4	na	na	23.3	na	na
채소	0.5	na	na	9.8	na	na
사료 및 목초	2.3	na	na	28.2	na	na

주: Fodder includes corn for silage, grass for hay, and alfalfa. The figures for the columns 2011–14 give average annual values over the period. na=not available.

자료: USDA, ERS analysis based on data from Ukrainian State Statistics Service and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5(2016)

농업을 위한 최고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많은 농업 지역의 관개시설이 열악하고 물류, 저장, 유통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농업을 3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농업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농업 국가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농업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 인프라가 마련되고 정부의 지원이 계속된다면 KRU국가들 중 가장 곡물과 유지작물의 생산량이 증대할만한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3.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독립국가연합(CIS) 중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 번째로 곡물 생산량이 많은 국가이다. 그러나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면서 농업 생산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90년대 후반에는 농업 분야에 막대한 부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000년 이후 농업 발전을 위해 토지와 농장 사유화 제도가 도입되고 2003년부터 경제 다변화정책의 일환으로 농업부문의 예산을 증대하고 농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2004년에는 7년간 농촌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농촌 기반시설의 혁신,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개발 등을 통해 농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였다. 이처럼 법제화와 다양한 농업 정책을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농업 생산량이 증대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농공업 복합단지 건설 등을 추진하여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은 시장규모가 작고, 외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며 숙련된 노동력 이 부족하고 장기적인 투자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문제점들이 있다. 2010년 유럽부흥은행(EBRD)은 카자흐스탄의 소규모 기업의 민영화, 가격 자유화 등은 높게 평가했으나 시장경쟁정책, 금융 분야, 기업구조 개편 등은 다소 비판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앞으로 카자흐스탄의 농업이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통 시설 구축, 물류망 확보, 관개시설 확충 등 인프라가 마련되고 농촌 지역의 주민 교육, 농업 부문의 정부부처 개혁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5. 결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은 독립국가연합(CIS)에 속한 3대 농업 국가들이다. 소련 붕괴 이후 KRU국가들의 농업 성장이 급격하게 축소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화폐가치가 평가 절하되어 수입 대체를 통해 농업 생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KRU국가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 본격적인 농업 생산구조 개혁을 실시하여 각종 제도를 변화시켰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와 농가의 법제화를 통해 전업농이 확대되었고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농업회사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를 확보하고 전문 농업 경영인을 고용하기 용이해졌으며 안정적인 농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축산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곡물 생산에 투자하여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켰다. 급격한 체제 전환 이후 저성장이 지속되었으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통해 작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다시 증가하게 되었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자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아 잉여분을 수출하기 시작하였고 어느새 곡물 수출 대국이 되었으며 경제성장도 상당 수준 회복하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은 비옥하고 넓은 토양을 가졌으며 많은 농업 잠재력을 지닌 나라이다. USDA가 제시한 2025년 작물 생산량 예측치를 보면 러시아는 곡물 14%, 유지작물 38% 증가할 것으로, 우크라이나는 19%, 3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상기후 등 자연적 조건 극복, 관개시설 등 농업 인프라 구축, 선진 농업기술 도입과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 등이 필요하다. 농업 생산 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 세계에서 10위안에 속하는 곡물 생산 대국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된다면 생산량 증대는 물론 상당한 농업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도완, 2013,「러시아 남부지역 농업 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가별 농업자료

배상두, 2012,「러시아 곡물산업 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 주재관 리포트

성진근,「우크라이나의 농업 현안과제 및 한국의 투자진출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가별 농업자료

최민정, 2015,「카자흐스탄 농업현황 및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가별 농업자료

최지현 외, 2016,「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농업 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허주녕, 2003,「러시아, 경제개혁이후 농업성장과 그 요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가별 농업자료

KOTRA, 2016,「2017 우크라이나 진출 전략」, KOTRA 해외시장 보고서

William Liefert and Olga Liefert, 2017,「Changing Crop Area in the Former Soviet Union Region」,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최근의 국제 정세가 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김민수(애그스카우터 대표)*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시점에 외국의 경우에도 심상찮은 바람이 일고 있다. 미국과 브라질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문제로 탄핵 여론이 형성된 반면 브라질 테메르 대통령은 부패 스캔들로 인해 탄핵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과 브라질은 국제 곡물 시장을 이끄는 주요 국가로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곡물을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정치 · 경제적인 변화가 국제 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미국 중심의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마련코자 함에 따라 관련 국가들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밖에 다양한 정책을 통한 개혁 의지 역시 난관에 부딪히면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의 정치적 변화 역시 곡물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한 이후 프랑스마저 대선을 치루면서 극우정당을 중심으로 한 탈퇴 움직임이 있었으나 중도신당의 마크롱 후보가 대선에 승리함으로서 독일과 함께 유럽 통합을 위한 새로운 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우선주의에 대응하며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유럽 국가들의 정치 · 경제적 개혁 노력은 미국과 비교해 상당히 고무적이다.

국제 곡물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크다. 수요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곡물을 수입하는 중국의 경우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에 의한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뉴스가 나왔으며 곡물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상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의 변화가 곡물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국내외 뉴스를 종합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agscouter@naver.com

2. 미국의 보호주의

2.1 NAFTA 재협상

올해 초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무역장벽 완화를 통해 유럽통합의 가속화에 따른 경쟁 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생겨났다. 그러나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대 멕시코 무역적자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 NAFTA 재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멕시코의 미국 수출액은 3164억 달러로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약 50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NAFTA 재협상을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 폭을 줄이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실리를 찾고자 한다. 반면 멕시코의 경우 재협상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부진할 경우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멕시코의 수출 구조는 미국과 캐나다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출 비중은 80%에 이르는 상황이다.

멕시코는 재협상시 미국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재협상 논의 역시 상당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미국의 NAFTA 재협상 제기로 인해 멕시코 페소화가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최근 2년 사이 25% 가까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NAFTA 재협상의 향방에 따라 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NAFTA 재협상에 따른 농업 부문의 피해 역시 우려된다. 미국의 경우 많은 양의 농산물을 멕시코로 수출하고 있으나 재협상으로 인해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옥수수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데 재협상을 계기로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멕시코 역시 미국 중심의 수입 구조에서 벗어나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어 양 국가 간의 농산물 교역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2 반이민 정책과 국경 장벽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전과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슬림 이민자들의 입국을 막기 위해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멕시코에서 유입되는 히스패닉 노동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는 국경 장벽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멕시코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먼저 연방정부 예산을 투입한 이후 향후 멕시코로부터 비용을 상환 받고자 한다. 특히 미국으로 수입되는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20%의 수입관세를 부과해 국경 장벽 건설에 들어간 비용을 보전 받는 방법 또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멕시코는 건설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만일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에 수입관세를 부과할 경우 멕시코 역시 보복관세를 부과함은 물론 주요 수입 품목인 미국산 옥수수와 육류 등의 수입을 제한하고 인근 중남미 국가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멕시코 국민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불매 운동을 벌리는 등 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산 옥수수의 최대 수입국인 멕시코는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로부터의 옥수수 수입을 위해 이들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멕시코는 미국과의 정치적 갈등 및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배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미국 중심의 곡물 공급 시장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3 에너지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가운데 에너지 관련 정책이 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정책들이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교역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문제라면 에너지 정책은 미국 내 곡물 소비와의 관계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1/3 이상을 에탄올용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옥수수 수요는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기간 동안 화석 연료 산업을 키우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셰일 오일 생산을 늘려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

특히 곡물 수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의 바이오연료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은 2000년 대 중반부터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를 시행했으며 곡물 특히 옥수수를 활용한 바이오에탄올

정책의 확대를 추진했다. 올해 초 트럼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화석 연료 에너지 정책의 확대를 강조함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가 바이오연료 확대 정책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루머가 나돌면서 한순간 옥수수 및 대두 가격이 폭등했으나 백악관은 곧바로 부인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화 제도(RFS)에 따라 작년 11월부로 상향 조정된 2017년 에탄올 의무 사용량의 시행을 늦추자 시장에서는 에탄올 의무 사용량 확대 가능성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특별한 조치 없이 이미 정해져 있는 대로 진행됨에 따라 옥수수의 에탄올용 소비량이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사라졌다.

2.4 정책적 불확실성과 탄핵 여론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번째 법안인 미국 건강보험법안(트럼프 케어)이 하원에서의 통과 정족수를 마련하지 못해 철회되었다가 간신히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 역시 파격적인 것이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비용 마련을 위한 예산 편성 역시 야당인 민주당의 거부로 인해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향후에도 트럼프 정부가 내건 여러 정책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시장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새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역시 경제적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이 나오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 주도로 형성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공식적으로 탈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스캔들'이 발생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확대되고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러시아 내통 스캔들과 관련한 수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해 FBI 국장을 해임하면서 탄핵 위기에 몰렸다. 또한 러시아 외무장관과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과 만난 자리에서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 관련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 외교적인 갈등까지 우려된다.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미국 내 경제지표 또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투기 세력들이 곡물을 비롯한 원자재 시장으로 몰리면서 곡물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3. 유럽 통합 강화

작년에는 영국의 유로존 탈퇴(브렉시트) 결정으로 세계 경제 위기감이 확산되어 국제 증시를 비롯한 원자재 시장이 폭락하고 달러화가 급등하는 등 불안정성이 확대되었다. 또한 프랑스 니스 테러 발생으로 대외시장의 여건은 악화된 바 있다.

올해 4월에는 프랑스에서 대선이 치러졌으며 중도신당의 마크롱 후보와 극우정당의 르팽 후보가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펼친 끝에 마크롱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유로존 탈퇴(프렉시트)를 공약으로 내건 르펭 후보의 선전으로 EU 붕괴 우려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마크롱 정부가 들어서며 유럽연합의 통합과 개혁을 강조함에 따라 유로존의 정치 불안이 완화됐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유럽과의 정치적 경제적 연대가 크게 흔들림에 따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유럽 통합을 강화하고 개혁을 통한 체제 결속을 다지는 것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미 유럽연합(EU) 집행위는 2025년까지 유럽 통합을 위한 백서를 발표했으며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곡물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곡물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한다.

4. 브라질의 탄핵 정국

세계 시장에서 주요 곡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브라질마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다. 작년에 부패 혐의로 탄핵된 호세프 전 대통령의 바통을 이은 테메르 대통령 역시 부패 의혹으로 탄핵 위기에 몰렸다. 세계 최대 육가공 업체인 브라질의 JBS社가 지난 3월 썩은 고기 국내외 유통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부패 스캔들로 확산되면서 테메르 정권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JBS社의 최고경영자인 바치스타는 검찰 조사를 통해 1800명이 넘는 브라질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으며 전·현직 대통령도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브라질 헤알화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브라질 증시 역시 폭락하면서 일시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사상 최악의 경제 침체를 보였던 브라질 경제가 이번 부패 스캔들로 인해 다시 침몰할 위기에 처했으며 경기부양을 위해 과감하게 기준금리를 내렸던 브라질 중앙은행 역시 신중한 자세를 취한 가운데 5월 31일자로 기준금리를 종전 11.25%에서 10.25%로 1%p 인하했다. 이로 인해 브라질 헤알화는 급락했으며 올해 브라질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보여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브라질의 국가 신용등급의 강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브라질의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로 브라질 경제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헤알화가 급락함에 따라 브라질 농가의 입장에서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옥수수를 비롯한 대두 등의 곡물 수확 이후 공급량이 확대된 상황에서 달러 대비 헤알화 약세로 인한 브라질산 곡물 가격의 경쟁력 상승은 국제 시장에서 수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미국산 곡물에 대한 가격 경쟁력은 저하되어 국제 시장에서의 미국산 곡물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 상황이다.

5.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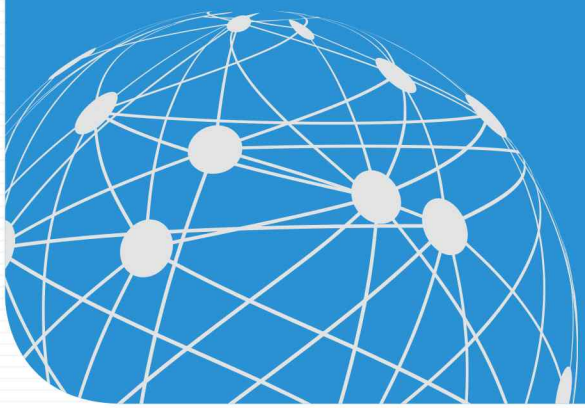
지난 5월 24일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8년 만에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우수 단계에서 양호 단계로 강등했다. 강등 원인은 중국의 부채 증가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향후 중국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무디스는 중국의 향후 5년 잠재성장률이 5% 아래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중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상승세를 나타내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못했다, 외환 시장에서도 큰 영향이 없는 가운데 위안화 가치는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시장의 불안정성은 고조되고 있으며 일본과 호주 등 대중 무역 규모가 큰 국가의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이번 무디스의 중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치로 해외 차입에 의존하는 중국 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GDP 대비 부채 증가율은 위험한 수준으로 향후 상황이 악화될 경우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과 국유기업 구조조정 진행은 긍정적이나 더욱 적극적인 구조 개혁 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단기간에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적지만 성장 둔화에 따른 위험성은 계속해서 상존함에 따라 향후의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곡물 시장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중국 정부의 부채 감축과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한 경제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경착륙에 따른 경제 위기로 주식 및 환율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어 곡물을 비롯한 사료용 원료의 수입 수요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될 경우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축산 및 사료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중국이 대두를 비롯한 사료용 곡물 및 부산물들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제 곡물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Part 3.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FAO 곡물시장 뉴스 123



FAO 곡물시장 뉴스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South Africa considers strategic grain reserve as possible El nino looms
남아프리카공화국, 잠재적인 엘니뇨 영향에 따라 전략적인 곡물 비축 고려

아프리카 최대 옥수수 생산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해 엘니뇨에 의한 가뭄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미래 부족을 대비하여 전략적 곡물 비축량을 완충제로 고려하고 있다고 농업부 장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짐바브웨와 잠비아 등의 주변 국가들은 이러한 곡물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상업적 농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주정부가 농작물을 구매 또는 비축하지 않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상당한 정책 변화가 수반될 것이다.

전략적 곡물 비축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곡물을 구입하고 부족분을 보충할 때까지 저장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다. Senzeni Zokwana 장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곡물 비축이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리고 장관은 가뭄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에 설치된 내각위원회를 언급하면서 “장관급 위원회가 고려해 봐야 할 사항 중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장관은 프로젝트 예산 배분과 같은 세부 사항에 대해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등급 하향 조정을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긴축 재정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곡물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는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있다. 러시아는 최근 몇 년 간 겪어온 금융 위기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농업부가 재고량을 저장하고 현재 재고량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17년 올해에 지난해 수확량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약 1,454만 톤의 옥수수를 수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절한 비가 내린 뒤 두 번째로 큰 수확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남아공의 작물예측위원회(Crop Estimates Committee, CEC)는 밝혔다. 이 곡물 수확량 예측치는 남아공에서 보통 소비되는 약 1,050만 톤의 농작물보다 40% 이상 많은 양이다. 곡물은 ANC의 주요 정치 기반인 저소득 가구의 필수

요소이다. 지난해에는 가뭄으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 및 인플레이션으로 큰 타격을 입었었다.

그러나 2016년 5월 사라진 엘니뇨의 기상 패턴은 남아공의 옥수수 파종 시즌을 앞두고 9월경에 다시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다수의 국가 및 기상청은 밝혔다. 엘니뇨는 또다시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는 이에 적응해야 한다고 장관은 지적했다. 또한 상업적 농민들도 일부 재고를 보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민간 부문과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고, 엘니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축분을 모두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장관은 전했다.

남아공 최대 곡물 생산 그룹인 남아공곡물협회(Grain-SA)는 로이터 통신의 질문에 정부가 전략적 재고를 보유하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시장은 이미 잠재적 엘니뇨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농민들과 다른 시장 참가자들은 급격한 날씨 변화에 따라 가격이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는 채무 및 기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능한 많이 판매해야 할 수도 있다.

7월 흰 옥수수(white maize) 계약은 수요일 1.25% 상승한 톤 당 1,862란드(142달러 상당)에 달했는데, 이는 가뭄을 겪었던 작년 초 최고치를 기록한 톤 당 5,000란드보다 약 65% 낮았다.

엘니뇨는 몇 년마다 발생하는데 동부 및 중부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글로벌 결과를 초래한다. 아프리카에서는 동부에서 폭우가 내리는 반면에 남부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옥수수가 피해를 입는다(2017.4.27).

Egypt wheat reserves at 2.6 months, to buy 3.8 million tonnes from local harvest
이집트, 2.6개월 분의 밀 비축량 보유 및 지역 밀 수확량 380만 톤을 구매 예정

알리 모셀하이(Aly Moselhi) 이집트 조달부(Ministry of Supply and Internal Trade, MSIT) 장관은 지역 수확의 시작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이집트 정부는 2.6개월분에 달하는 전략적 밀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농민들로부터 약 380만 톤의 밀을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인 이집트는 이번 시즌에는 농민들로부터 약 400~450만 톤의 밀을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수억 달러 손실을 입히고 있는 밀수를 단속할 것이라고 한다.

조달부 장관은 월요일 조달 수치를 조금 낮추었다.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농업 지역인 Beni Suef의 밀밭에서 장관은 "항상 370~380만으로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집트의 지역 밀 수확은 4월 중순 경 시작되어 7월까지 이어진다. 이집트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 밀 조달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구입한 5백만 톤의 밀 가운데 2백만 톤 이상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곡물 업계 전문가 및 이 문제를 조사한 의원은 전했다. 조달부 장관은 국영 수입업체(General Authority for Supply Commodities, GASC)가 전략 비축량을 6개월분까지 늘리기 위하여 수확 시기에도 해외 밀 수입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밀 2.6개월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의 목표는 4개월 치의 비축분을 보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확 시즌이 시작되면서 약 4백만 톤이 될 것이다. 그러면 6개월 상당의 비축분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고 장관은 밝혔다. 모셀하이 장관은 2.6개월 수치는 GASC가 계약한 밀 수량은 포함하지 않지만, 아직 수입량이 도착하지 않았고, 미지불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비축량 수치는 과거에 도착하지 않은 수입품도 포함하였으며, 상인들은 국가의 전략 비축량을 부풀려 말하였다. 모셀하이 장관은 정부의 빵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사용되는 GASC의 월간 밀 소비는 월 80만 톤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밀 수확에 이르는 몇 달 동안 이집트의 GASC는 빠르게 밀 수입을 진행 하였다. 평소보다 높은 빵 소비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였다고 상인들은 전했다. 로이터 데이터에 따르면, GASC는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에 종료하는 2016~17 시즌 동안 560만 톤의 밀을 구입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구매한 450만 톤보다 대략 25% 정도 증가하였다고 한다 (2017.4.26).

India - Maize prices to stay put on plentiful supply
인도, 옥수수 가격이 풍부한 공급량을 유지할 것

시장원리(market fundamentals)을 고려할 때 현재 가격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옥수수 시장은 지루한 단계(an unexciting phase)를 겪고 있는 중이다. 여름작물인 kharif 및 겨울 작물인 rabi 시즌을 포함하는

2016~17년의 기록적인 수확으로 전분과 동물 사료 등 올해 곡물 가용성이 증가하였다. 적절한 국내 공급으로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수출 및 수입 활동은 가격 불균형으로 인해 다소 둔화될 것이다. 확실히 옥수수는 최근 몇 년 간 인도 농업의 성공 사례 중 하나이다.

2006~07년(1,510만 톤)부터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4~15년에는 2,420만 톤을 기록하였다. 엘니뇨에 의한 강수량 감소로 다음 해에는 2,260만 톤으로 수확량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골고루 잘 분산된 남서계절풍(south-west monsoon) 덕분에 올해 생산량은 2,615만 톤에 이른다. 연간 목표치인 2,450만 톤을 초과하였다. 인도의 상황은 대체로 전 세계 상황을 반영한다.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수확량 반등 덕분에 2016~17년에 신기록인 1억 5,400만 톤을 기록하였다. 올해 브라질의 옥수수 수확량은 전년도보다 40% 증가하면서 9,350만 톤의 신기록을 세웠다.

세계 옥수수 무역은 지난해 기록인 1억 4,500만 톤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역은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 옥수수 수출은 세계 무역의 35~40%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글로벌 재고는 신기록인 2억 2,3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수출 가격은 약세로 돌아섰다. 미국은 톤 당 160달러에 제공하고 있지만, 흑해 연안 지역 특히 우크라이나에서는 톤 당 170달러에 공급하고 있다. 수입업자들은 보편적인 소비자 친화적인 요금의 이점을 이용하고 싶어 한다. 가축 부문은 옥수수의 주요 소비 분야이며, 미국과 같은 생산국가에서 곡물은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기도 한다.

현재 인도 로컬 가격은 톤 당 16,000루피로 국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인도에서 옥수수 수출 가능성은 없다. 논리적으로, 세계 가격은 옥수수 수입을 인도로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51%의 수입 관세 때문에 현실화 가능성은 없다. 확실히 Non-GM 옥수수만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농산물은 우크라이나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Non-GM 옥수수는 인도 항구에 도착하는 것을 기준으로 톤 당 200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특정 수입 관세를 부과하면 Non-GM 옥수수 사업은 실현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위탁은 advance licensing scheme에 따라 들어올 수 있다. 면세이지만 수출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전분제조산업(starch industry)은 저렴한 옥수수를 수입하고 파생 상품을 재수출한다. 시장원리(market fundamentals)를 고려할 때, 국내 옥수수 가격은 향후 몇 개월간 현재 수준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가금류 산업(poultry industry)의 수요가 적절하게 충족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일시드 추출과 같은 사료 대체제도 역시 저렴하다. 또한 옥수수 가격 상승 가능성을 제한한다.

2017~18년의 전망은 남서계절풍에 따라 다르다. 남서계절풍의 방향과 강도가 공간적 및 시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는지에 달려있다. 콩 재배와는 달리, 옥수수 재배 농민들은 일반적으로 최소지원가격인 퀸틀 당 1,365루피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다. 다가오는 kharif 시즌에 옥수수 파종 지역은 약 800만 헥타르 또는 약간 늘어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생산량 증가의 열쇠는 단수 증가이다. 현재 평균 2.5톤의 수확량을 3톤까지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특히, kharif 시즌에 개선된 투입재 관리(improved input management) 및 재배방법(agronomic practices)을 통해 단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 옥수수 생산량은 2016~17년에 신기록인 2,615만 톤에 도달하면서 목표치인 2,450만 톤을 넘어섰다(2017.4.24).

Considerable transport problems' cut Australian wheat export hopes
심각한 운송 문제가 호주 밀 수출 희망을 꺾어

콩 및 카놀라(Canola)에 대한 강한 수요에서 출발한 '심각한 운송 문제'가 이번 시즌 호주의 소맥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7~18년 실제 수출량은 수출 예측치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미 농무부(USDA) 호주 캔버라(Canberra) 지국은 2016년 7월 ~ 2017년 6월 기준의 호주 소맥 수출 추정치를 22.0m 톤으로 축소하였다. 이는 USDA 자체를 포함해 다른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다. USDA캔버라 지국은 남반구 최대 소맥 수출국인 호주의 내년 소맥 수출을 18.0m 톤으로 추정하였다. 캔버라 지국의 예측치는 호주 농업자원경제국(ABARES)가 예상한 수치보다 290만 톤 낮았다.

캔버라 지국이 발표한 전망치는 호주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호주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일부 반영하였다. 이는 올해 기록적인 생산량에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2017~18년 수확량은 현재 시즌 최고치에서 30% 이상 줄어든 2,400만 톤으로 내려갔다.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을 기준으로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USDA에 따르면, 농민들이 세계 시장에서 소맥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카놀라와 같이 대체 작물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라보은행

(Rabobank)은 대체 작물의 가격 상승으로 총 소맥 파종 면적은 평균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코멘트는 이 같은 라보은행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카놀라 및 콩 파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그러나 캔버라 지국은 선적 컨테이너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상인들은 소맥 수출을 위해 선적 컨테이너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해운회사들은 대두 및 오일시드를 운반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우회하였다는 보도가 났던 2016년 하반기부터 소맥 수출에 방해가 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호주 농업자원경제국(ABARES)은 "수출은 단위 당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선박회사들에게 우선순위가 높다. 그리고 화주들은 피크 기간 동안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였다"고 전하였다. "그 결과 2016년 하반기부터 소맥 수출에 상당한 물류 및 운송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전통적인 밀 수입국인 동남아시아로의 수출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코멘트는 곡물 무역업체 니데라(Nidera)의 호주 사무소는 '호주 수출업자들의 명성은 글로벌 컨테이너 운송 업체의 책임 부족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있다"는 경고를 따랐다. 이러한 내용들은 해운 회사들이 더 많은 운임을 받는 콩 화물을 우선시하면서 동남아시아로의 소맥 선적이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선적 라인이 2분기의 운송료가 크게 증가되어 왔고, 컨테이너 화물까지 늦춰지면서 피크 시즌 추가 운송료까지 부과되고 있다. 원래는 2월에 선적될 예정이었지만 많은 소맥 수출분이 4월까지 출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추가 운송료가 부과되고 있다. 수입업자들의 소맥 선적 지연으로 인한 문제와 더불어, 처벌(penalty) 금액이 처음 수출 협상을 할 때 수출로 달성하기를 원했던 마진보다 훨씬 커지고 있다고 Nidera 호주 창업 매니저인 Peter McMeekin이 전하였다.

컨테이너 부족 현상은 지난해 연간 1억 톤 이상의 화물을 수송하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 중 하나인 한진해운의 파산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로 인해 악화되어 왔다. 더욱이 보조금을 받은 크리스마스 이전 수입이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이전보다 적은 숫자의 컨테이너로 호주를 떠났다. 그리고 호주 물류 체인이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40피트 규격의 큰 사이즈 컨테이너가 남아있다. "40피트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호주 업체는 많지 않으며, 적재 중량 제한으로 인하여 절반만 채울 수 있다. 아시아 전역의 많은 도착지에는 대형 컨테이너를 관리할 만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2017.4.24).

Brazil's safrinha harvest could leave 'huge piles' of maize without storage
브라질, 저장할 곳 없는 상태로 이모작종 옥수수 수확이 이루어질 수 있어 우려

곡물 애널리스트인 Michael Cordonnier 박사는 브라질의 이모작종 옥수수(safrinha)의 수확이 시작되는 6월이 오기 전에 농민들이 대두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수백만 톤의 브라질 옥수수가 노지에 쌓여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애널리스트는 "브라질은 곡물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만성적인 저장 공간 부족을 겪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의 농민들은 기록적인 양의 대두를 생산하였고, safrinha 옥수수 작물 또한 기록적인 양을 수확하게 될 수 있다. 풍작이 예상되면서 사람들은 저장 공간이 충분한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널리스트는 예상되는 옥수수 수확량만으로도 저장 공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농민들이 대두 수확 기간에 판매를 늦추면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한다. 브라질 농업컨설팅사(AgRural)의 전망에 따르면, 3월 말 농민들은 대두 보유분 가운데 49%만 판매하였다고 한다. 농민들이 가격이 상승하기를 희망하면서 대두 판매를 연기하면서 7년 만에 판매 속도가 가장 느린 상황이다.

브라질의 옥수수와 대두 가격은 브라질 헤알(Real)화 강세와 풍부한 옥수수 공급, 부진한 국제 곡물 시장의 영향을 받아왔다. 또한, 애널리스트는 "대두와 옥수수 가격이 생산비 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곡물을 판매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많은 농민들이 즉각적으로 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건들을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브라질 중부 마토 그로소(Mato Grosso) 지역에서는 대두 수확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safrinha 옥수수 수확은 6월에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만약 그전까지 대두를 옮기지 않으면, 옥수수는 곡물 엘리베이터(Grain Elevator)에 저장되지 못하고, 바깥에 쌓아 저장해야 할 것이다"고 전망하였다(2017.4.19).

Europe's wheat reserves shrinking to lowest in more than decade
유럽 소맥 재고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

유럽은 13년 만에 가장 적은 비축량으로 소맥 시즌을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Strategie Grains report를 발행한 Tallage SAS에 따르면, 유럽연합에서 보유한 소맥 재고량은 6월 말 37.1% 감소한 1억 10만 톤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흉작 및 소비 강세, 예상보다 높은 수출로 비축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다음 시즌에도 재고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프랑스Tallage Moret sur Loing의 회장 Andree Defois는 전화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이번 시즌과 2017~18년에 소맥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고 하였으며, "EU가 균형을 이루고 세계 재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주요 수출국에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럽의 생산량은 유럽연합 최대의 소맥 생산국인 프랑스와 독일의 흉작 이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 거래소의 소맥 선물은 올해 4년 연속 하락하면서 톤 당 164.75유로로 1.9% 하락했다.

Andree Defois 회장은 "다음 시즌에는 내수와 수출의 증가가 생산 증가를 상쇄할 것이기 때문에 재고가 타이트한 상황이 유지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Tallage는 이번 시즌 EU 소맥 수출 추정치를 30만 톤 증가한 2,350만 톤으로 높였다. 터키가 러시아 밀에 규제를 가한 이후 유럽 곡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출은 전년 대비 840만 톤 감소한 수준이었다. Tallage 전망에 따르면, EU 총 곡물 생산량은 이번 시즌 하락에서 반등하여 7월부터 시작되는 시즌에 3% 증가한 3억 520만 톤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다음 시즌 연질밀(Soft wheat) 생산량은 6% 증가한 1억 4,380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듀럼밀(Durum wheat) 생산량은 10% 줄어든 89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Tallage는 전월과 비교하여 EU 작물 생산량 추정치를 수정하지 않았다. 유럽 대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건조한 겨울이 진행되면서 특정 지역의 수질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Tallage는 말했다. 만약 일부 지역에서 건조한 기후가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 초기 옥수수 생장을 저해할 수 있다.

Tallage의 Benoit Fayaud 애널리스트는 전화를 통해 "현재까지는 모든 작물 상황은 정상으로 풍작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러나 4월 말까지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특히 밀과 보리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벨기에, 헝가리, 불가리아 등의 국가들은 평균 이하의 강수량을 기록하였으며, 유럽연합 4번째 생산국인 스페인은 강우 부족을 겪고 있다. 애널리스트는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스페인의 생산량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전했고, "스페인은 중요한 수입국이며 생산량이 감소할수록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2017~18년 주요 내용 : EU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 15만 톤 줄어든 6,040만 톤으로, 불가리아, 프랑스, 스페인 면적 감소. EU 보리 추정치는 6,130만 톤으로 거의 변동 없음(2017.4.13).

China National Cereals, Oils and Foodstuffs Corporation (COFCO) imports Russian wheat
중국 국영 곡물기업 코프코(COFCO), 러시아 소맥 수입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수출입 관련 협정을 체결하면서 중국 국영 곡물기업인 코프코(COFCO)가 러시아로부터 소맥을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 4월 초, 러시아산 봄밀(Spring wheat) 500톤이 중국 만주리(Manzhouli)에 도착하였다. 시장 지향적으로 내륙항을 통해 러시아산 소맥이 중국에 도착한 첫 번째 대량 선적이다.

COFCO 부회장 Peng Anqiao는 'Belt and Road' 이니셔티브를 수정하고 실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도로 간주하였으며, 'Belt and Road'를 따라 발자국을 넓히기 위한 속도를 높이고, 러시아와의 농산물 무역 협력 확대 및 해외 곡물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Krasnoyarsk) 지역에서 재배된 봄밀의 운송은 COFCO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따라 엄격한 품질 검사를 받아야 했다. COFCO에 따르면, 단위중량(unit weight), 글루텐 함량 및 안정성을 포함한 주요 품질 지수가 우수함 판정을 받아, 중간-우수 등급의 특수 밀가루로 가공하는데 적합하다고 한다. COFCO Corporation의 COFCO Agri의 러시아 소재 자회사는 자체 해외 곡물 공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밀을 조달하였다. COFCO Trading은 중국 시장에 수입 및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가 안정적인 품질과 지속적인 밀 공급을 보장한다면, 향후 러시아와 중국 간 밀 무역 규모는 새로운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COFCO는 밝혔다.

러시아의 새로운 소맥 선적은 COFCO가 설립된 이후 가장 최근의 수입 활동이다. 3월에 회사는 카자흐스탄에서 2,200톤의 밀을 수입하였다. 2013년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중국 주석 시진핑은 연설에서 'Silk Road Economic Belt' 건설을 제안하

였고, 그 이후 'Belt and Road'의 대규모 전략을 발표하였다. 현재 중국은 카자흐스탄 최대 무역 파트너라고 COFCO는 밝혔다. 양국 간 밀 무역은 농산물 교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COFCO Corporation과 카자흐스탄의 관련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양국 간의 밀 무역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COFCO Trading의 밀 담당 부서(Wheat Department)의 총괄 매니저인 Ma Lijun은 카자흐스탄의 밀 수송은 COFCO Corporation이 'Belt and Road' 국가들 중 곡물 조달 및 저장 시설을 설립한 이래 가장 최근 성과 중 하나라고 밝혔다. COFCO Corporation 소유의 창고에서 Nidera가 직접 공급한 카자흐스탄 밀을 내륙 항구로 운송하는데 거대 컨테이너가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덕분에 카자흐스탄 밀의 운송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간 밀 무역의 주요 채널이자 리더, 개척자인 COFCO는 카자흐스탄 밀 수입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수입밀에 대한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며, 카자흐스탄 밀 수입 사업의 지속적이고 급격한 성장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판매 경로를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COFCO는 'Belt and Road'를 따라 54개국과 농산물 무역을 실시하였고,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 추세를 유지하였다. 'Belt and Road' 지역의 창고 및 항구, 물류 시설과 같은 전략적 자원을 확보한 이후, COFCO는 루마니아 최대 곡물 수출국이자 우크라이나 최대 곡물 수출국 중 하나가 되었으며, 우크라이나 DSSC grain port에서 가장 최신의 농산물 수출입항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COFCO는 'Belt and Road'를 따라 많은 국가에 기술 설계, 금융 및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17.4.13).

Against the grain, traders go gluten free
상인들 곡물 대신에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은 농산물로 눈을 돌려

최근 밀과 옥수수 대두 시장에서 매입과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부 상인들이 이윤을 창출하고자 잘 알려지지 않은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농민들이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많은 곡물을 재배하면서 대규모 곡물을 취급하는 경제활동의 수익이 감소하여 왔다. 독일의 BayWa AG와 같은 주도 기업들은 수익이 높은 토마토와 유기농 곡물과 같은 틈새시장을 찾고 있다. 다른 기업들은 고가의 가공식품 성분이나 글루텐 프리(gluten-free) 제품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Lambert Commodities의 설립자이자 컨설턴트 관리 파트너인 Jean-Francois Lambert는 "농산물과 관련된 일반적인 무역 여건은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2년 동안 사례가 있었고, 올해는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계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가격 역시 상승하던 지난 10년간의 호황기를 겪어오던 상인들에게는 불길한 징조이다. 대규모 곡물을 거래하는 큰 기업들은 틈새시장에서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소 규모 상인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의 수요와 수익성이 더 높은 유기 곡물 및 퀴노아(quinoa) 등과 같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탈리아 레지오 에밀리아(Reggio Emilia)에 위치한 중개 회사인 Grain Services Srl의 글루텐 프리, 유기농 제품, 퀴노아, 쌀, 아마란스(amaranth), 렌틸(lentils)과 같은 틈새 제품 등이 매출의 약 30%를 차지한다. Andrea Cagnolati 전무 이사는 회사가 취급하는 150만 톤의 작물 중에 위에 언급한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Kiev)에서 지난주 열린 'Black Sea Grain conference'에서 Cagnolati가 발표한 프레젠테이션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로 글루텐 프리 및 유기농 식품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라고 한다. 글루텐 프리 제품 산업은 연간 약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2020년까지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컨퍼런스 인터뷰에서 Cagnolati 는 "제품은 많지 않지만 수익률은 좋은 편이다. 전통적인 곡물 시장의 수익은 매우 낮다. 미국도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거래 단위(trading unit)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곡물사업부분을 촉진하였던 독일 농산업 기업인 바이바(BAYWA)사는 유기농과 온실(greenhouse)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다. 바이바는 아랍에미리트에서 프리미엄 토마토를 재배하고 거래하기 위한 벤처 기업을 설립하였다. 유럽 곡물 최대 구매자인 프랑스의 Groupe Soufflet는 대두를 늘리고 즉시 섭취할 수 있는 렌틸콩 생산에 투자하고 있다.

글렌코어(Glencore plc), 벙기(Bunge Ltd)와 같은 대기업들도 지난 2년간 이 분야에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Bunge 는 터키 올리브 오일 회사를 인수하였고, 글렌코어는 마드리드 사무소에서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분야가 대기업의 주요 곡물사업부문처럼 큰 규모는 아니다. UN 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콩, 렌틸, 병아리콩 등 콩의 전 세계 수입량은 2013년 총 소맥 수입량의 6%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스위스 로잔(Lausanne)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Amsterdam Commodities NV의 CEO인 Erik Rietkerk 는 "아직까지 대기업들은 틈새시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주류 시장은 아니다"고 전했다. 대기업들에게 더 좋은 사업 전략은 생산 공급망을 감소하여 고가의 가공 제품 판매를 늘리는 것일 수도 있다. Bunge 는 미국에서 대두 가공 공장을 건설하여 대두박(Soymeal)과 콩기름(soybean oil)을 공급할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 Cargill사는 동물 영양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Archer-Daniels-Midland Co의 초콜릿 사업을 인수하였다. 프랑스 최대 곡물 협동조합인 Axereal 역시 앤트워프(Antwerp)에 있는 보리 맥아 공장을 세계 최대의 맥주 공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은 가격이 4년 연속 하락세를 지속한 2017년에 옥수수와 소맥 시세가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곡물을 재배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 ED&F Man Holdings Ltd는 흑해 연안 지역과 중국에서 곡물 거래를 확대하고 있으며, Glencore는 미국을 주목하고 있고, Bunge는 캐나다에 진출하는 중이다. 중국 코프코(COFCO)와 같은 일부 기업은 주의 깊게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현재 확실한 목표를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사막 15헥타르(37에이커)의 온실에 토마토를 재배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독일 바이바(BAYWA)사는 중동 지역의 높은 수요를 이용하고자 한다. 폴란드 바르샤바(Warsaw)에 위치한 InfoGrain의 컨설턴트이자 전 곡물 트레이더인 Miroslaw Marciniak는 "대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거나 경쟁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신흥 시장에서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은 생산 규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거래를 유지할 것이다"고 전했다(2017.4.12).

Turkish wheat stocks plummet, amid economic uncertainty
터키 경제적 불확실성 가운데 소맥 재고량 급격히 감소

미국 관계자들은 터키 경제의 불확실성과 러시아 수입 금지 조치로 터키의 밀 재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다음 시즌 종료까지 공급이 2주치 미만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터키는 세계 최대 밀가루 수출국이며 제분 산업은 고단백질 밀의 무관세 수출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 하락과 정세 불안으로 인해 민간 부문의 주식 보유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정부 곡물 단체는 적극적으로 재고를 줄이고 있다고 미 농무부(USDA) 터키 앙카라 지국은 전했다.

USDA앙카라 지국은 2016~17년 수입량을 80만 톤 감소한 4.0m톤으로 줄였다. 통화 불안정, Turkish Grain Board(TMO)의 매출 증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재고를 늘리기를 원하는 민간 부문의 경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밀가루와 파스타 수출업체의 고품질 밀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덕분에 2017~18년에 수입은 45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수입 증가가 재고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2017~18년 말까지 재고량은 648,000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한 경제가 지속되고 재고가 감소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1960년 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다.

앙카라 지국 예측에 따르면, 재고는 타이트한 상황인 3.7%로 겨우 2주 미만 소비 수준이라고 한다. 2016년은 정치, 안전, 경제 불안정성으로 터키의 곡물 시장 부문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수입업자들에게 있어 터키 통화 가치의 하락 역시 이슈가 되었다. 터키 통화는 2015~17년에 달러 대비 약 3분의 1정도 하락하였다.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밀 수입을 더 비싸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변동성도 투자와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

분명한 것은 민간 부문은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 재고를 늘리기를 꺼려하고 있다. 이는 모든 상품의 낮은 기말 재고량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동시에, 터키 곡물 위원회(Turkish Grain Board)는 적극적으로 재고를 줄이고 있으며, 수입 수요를 억제하고 터키의 총 곡물 재고를 감소하고 있다. 또한, 수입은 옥수수 및 기타 제품 외에도 러시아의 밀 수입 금지 조치로 타격을 받고 있다. 금지 조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며, 현 단계의 곡물과 사료 부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불분명하다. 업계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한다.

시장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연간 300만 톤 이상의 밀을 수입하고 있는 밀가루 수출업자들은 러시아의 고단백질 밀과 비슷한 가격의 대체재를 찾아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의 밀 수출 금지가 지속된다면, 터키의 밀가루 수출은 둔화될 것이라고 지국은 경고하였다. 터키의 밀 수입 대부분은 다른 밀 수입품에 적용되는 높은 관세를 면할 수 있는 밀가루 산업에 공급된다. 이 정책은 고품질 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고, 최근 몇 년 동안 터키가 세계 최대 밀가루 수출국이 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2017.4.12).

Saudi Arabia to become major player in world maize market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옥수수 시장에서 선두 주자로 부상

사우디아라비아가 옥수수 시장의 주요 선두주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는 동물 사료를 보리에서 옥수수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며, 소맥 수입 역시 상승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직면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Riyadh)에 위치한 미 농무부(USDA) 지국은 2017~18년 사우디아라비아 곡물 공급과 수요에 관한 첫 번째 전망에서 옥수수 수입이 40만 톤 증가한 430만 톤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5년 생산량이 4백만 톤에 달했던 국내 green forage(생초) 생산 억제로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전통적으로 이용했던 사료용 보리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지국에 따르면, 시즌이 6년 만에 최저치인 8.0m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료용 보리 소비 감소의 주된 이유는 가격 경쟁력 및 영양성분을 고려해 가공 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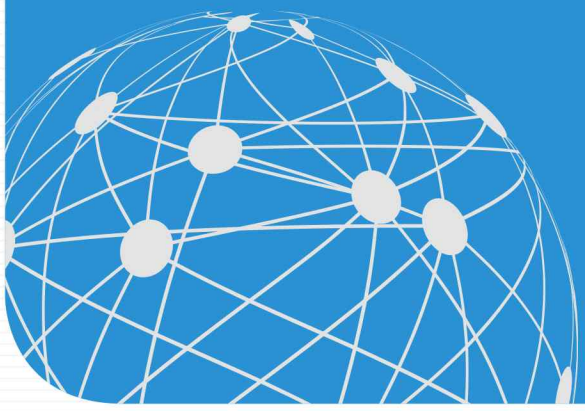
보리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으며, green forage역시 단계적으로 생산이 중단되고 있는 시점에서 옥수수와 사료용 밀과 같은 대체재의 소비가 이득을 얻을 것이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앞으로 수년 안에 국내 사료 가공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세계 옥수수 시장에서 선두 주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옥수수는 특히 국내 가금류 사료의 60%를 구성하는 육계 산업(broiler industry)이 성장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옥수수는 상업용 사료 가공업체와 국내 낙농가가 사용하는 주요 사료 곡물이기도 하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자원 보존 정책으로 자체 생산은 불가능하고, 늘어나는 인구에 따라 수입 제분밀 역시 증가하게 되면, 사료용 밀에 대한 파급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리야드 지국은 총 밀 수입은 20만 톤 증가하여 370만 톤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경질밀(Hard Wheat) 원산지인 독일과 리투아니아 등에서 수입되며, 그 중 대다수는 제분용이다. 그리고 지난해 우므라 순례(Umrah Ritual)를 위해 Mecca Al-Mukarama 지역에 약 8백만 명의 순례자를 끌어들이는 이슬람 관광 유치에 성공한다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1,500만, 2030년에는 3,000만 명까지 우므라 순례를 오는 종교 관광객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순례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몇 년 동안 밀가루와 다른 식품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1인당 평균 밀 소비량은 일일 239gm, 연간 87kg 이다(2017.4.6.).

Part 4. 세계 농업기상 정보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141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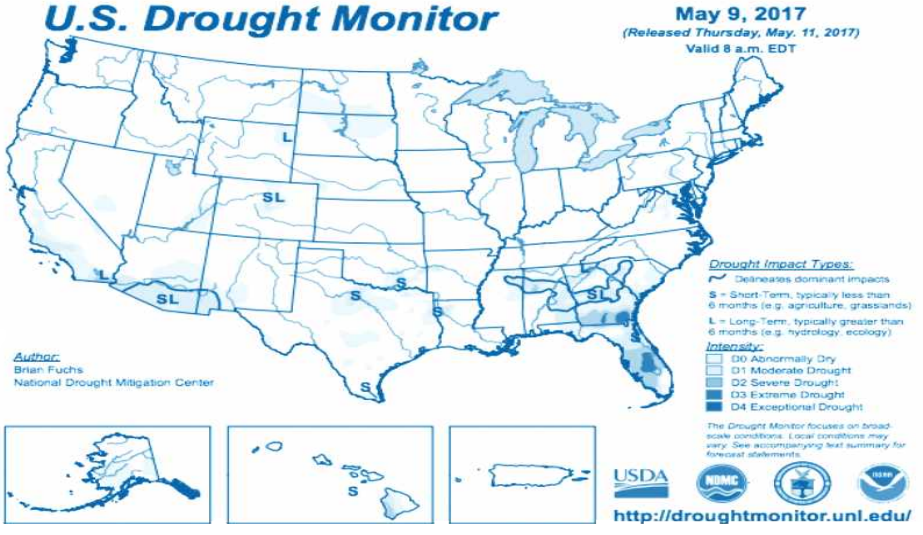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1. 미국

▮ 5월

5월 초순, 중부, 중남부 및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불안정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대서양 연안 북부 일대에서도 비가 내리면서 지난 해 말부터 이어져 온 가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비가 조금 내리기도 했지만, 농작업은 대체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북부와 중부 평원에서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고, 기온은 평년에 비해 5~10°F 이상 높았다. 북동부와 오대호 인근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F 정도 낮았다. 지난 5월 7일부터 9일 사이에 오대호 인근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추위가 찾아왔다. 남동부 저지대에서는 비가 조금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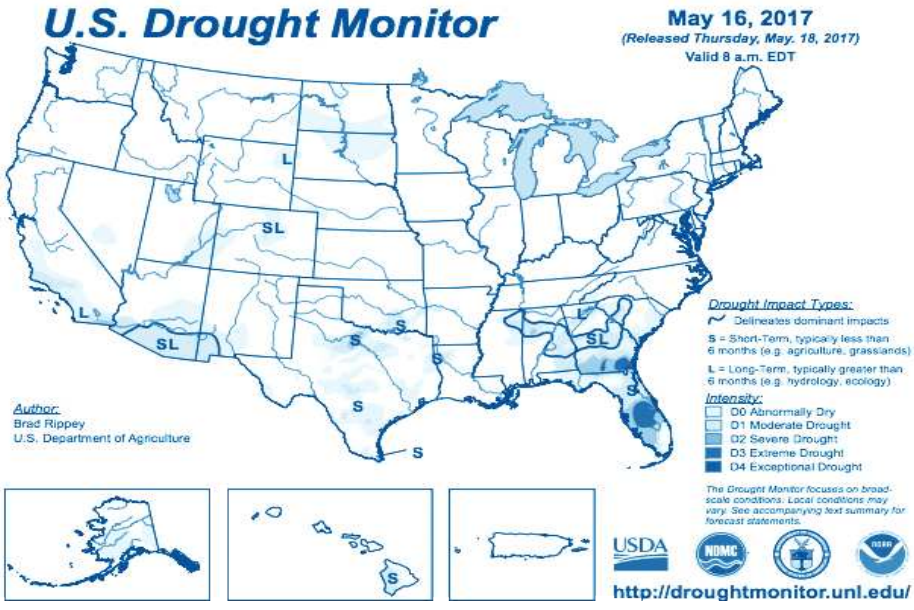
그림 1. 가뭄 모니터



자료 :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4(No. 20), May 11. 2017.

5월 중순, 중서부 전역에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지역에 따라서는 2~4인치 이상의 비가 내리기도 했으며, 미시시피 강 일대에서부터 대서양 연안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10°F 이상 높았다. 5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반짝 더위가 찾아와 낮 최고기온이 90°F 이상 오르기도 했다. 반면, 지난 주 영하권의 날씨를 보였던 북서부 평원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F 정도 낮았다. 로키산맥 중부와 북부에서는 1~3 feet 내외의 눈이 내리기도 했다. 북서부에서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기도 했고, 남서부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농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중부와 남부 평원에서도 천둥번개가 치는 등 불안정한 대기가 지나가는 가운데 비가 내렸다. 중서부 북부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5월 16~17일 사이에 발생했다. 대서양 연안 남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이 심화되었다.

그림 2. 가뭄 모니터



자료 :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4(No. 21), May 18, 2017.

2. 유럽

▮ 5월

5월 초순, 북부에서는 2~2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남부의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는 3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프랑스 북부와 독일 일대에 내린 비는 봄 가뭄을 해소해 주었다. 잉글랜드 남동부에서는 3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렸고, 지난 90일간 누적 강우량은 평년의 50~60% 수준에 그쳤다. 영국에서는 5월 15일 비가 내렸다. 스페인에서부터 프랑스 남부, 이탈리아 등에서는 해바라기 등의 생육 상황이 양호한 편이다.

5월 중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느리게 움직이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스페인 북부에서부터 프랑스 및 영국 등에는 10~6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스페인 북부에서는 봄 가뭄이 계속해서 이어져온 탓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프랑스와 영국에서 내린 비는 시의 적절했다. 독일에서는 1~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동유럽의 1/3이상의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5°C 정도 높은 날씨가 이어졌고, 늦여름 작물의 파종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폴란드 서부와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이탈리아에서는 Po River 주변으로 2~3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3. 구 소련(서부)

▮ 5월

5월 초순, 우크라이나 남부에서는 2~2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북부와 중부에서는 10~2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북부와 중부 일대에서는 지난 90일간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50% 미만으로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의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4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러시아 남서부에서도 10~4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북부의 절반 이사의 지역에서는 밤 동안 기온이 영하 1~3°C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5월 중순, 몰도바,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서는 10~3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반면, 우크라이나 북부와 중부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90일간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50~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러시아 남서부에서는 25~8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남서부에서도 10~3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4. 동아시아

▮ 5월

5월 초순, 중국 북동부와 남부에서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Heilongjiang, Jilin, Liaoning 등에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남부의 양쯔강 일대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양쯔강 일대에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내린 비의 양이 평년에 비해 많은 편이다. 반면, 내몽고 일대에서는 일시적으로 가뭄이 이어졌다. 한반도 일대와 일본에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기온은 대체적으로 평년에 비해 높은 편이다.

5월 중순, 중국 북동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양쯔강 일대에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보다 남부에서는 25~100mm 내외의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북동부의 서쪽 지역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도 평년에 비해 높은 편이며 낮 최고 기온은 35℃까지 오르내렸다. 일본과 한반도 일대에서도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다.

5. 호주

▮ 5월

5월 초순,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의 해안지역에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남동부 일대의 보리, 캐놀라 재배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파종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서호주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주요 밀 재배지의 중부와 서부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밀 재배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5월 중순, 지난주 후반에 내린 비는 주 초반에도 이어져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와 중부, 빅토리아 북부, 남호주 동부 및 서호주 등에서는 5~30mm 내외, 곳에 따라서는 5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의 그 밖의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고, 면화 등의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이들 지역은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였다.

6. 아르헨티나

▮ 5월

5월 초순, 북동부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Corrientes, Entre Rio 북부 등에서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Chaco, Buenos Aires 북부 일대에서도 5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Cordoba, Santiago del Estero, La Pampa 북부와 Buenos Aires 중부에서도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지만, 옥수수와 대두의 수확작업 및 겨울작물 파종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남부 전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고 밀 파종작업이 계속해서 진행 되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5월 11일 기준 옥수수, 대두의 수확률은 각각 35%, 56%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p 이상 앞서는 수치이다.

5월 중순, 북부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Salta에서부터 Jujuy, Cordoba 등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기온은 평년수준을 유지했다. 낮 최고기온은 20℃ 중반까지 오르내렸다. 남부의 La Pampa, Buenos Aires 등에서는 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곳에 따라서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이번 비로 이들 지역의 옥수수 및 대두의 수확작업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5월 18일 기준 옥수수, 대두의 수확률은 각각 41%, 71%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빠른 편이다.

7. 브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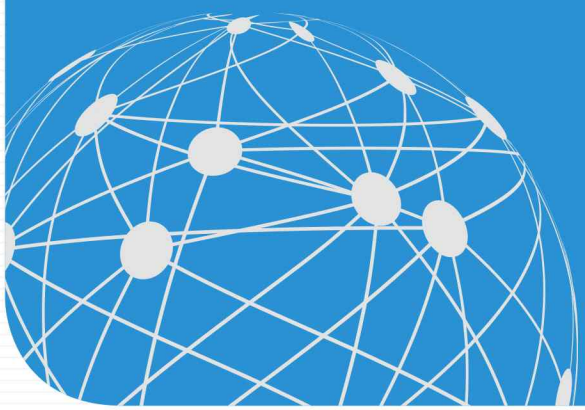
▮ 5월

5월 초순, 중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맑고, 평년에 비해 다소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다. Mato Grosso 동부에서부터 Bahia에 이르는 지역과 남동부의 Sao Paulo, Parana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날씨가 맑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에 비해 3°C 정도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30°C 중반까지 올랐다. 특히 남동부의 맑은 날씨 덕에 사탕수수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5월 8일 기준 Parana의 밀 파종률은 40%를 기록했다. 반면, Rio Grande do Sul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5월 중순, 주요 옥수수 및 면화 재배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Mato Grosso, Goias, Mato Grosso do Sul 등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낮 최고기온은 30°C 초반에서 중반까지 오르내렸다. 북동부 내륙의 Tocantins, Bahia 서부 등에서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렸다. 보다 남부의 Minas Gerais, Rio Grande do Sul 등에서는 50~150mm 내외의 비가 내렸는데, 이번 비로 사탕수수의 수확작업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5월 15일 기준 Parana의 밀 파종률은 55%를 기록했다.

Part 5. 부 록

세계 곡물 통계 141
주요 국가별 보리 통계 145



세계 곡물 통계

▢ 쌀(정곡)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144,736	318,034	10,311	11,485	306,817	97,702	3.23
1986/1987	144,797	316,033	10,686	13,063	308,053	103,305	3.21
1987/1988	141,442	315,135	10,452	11,572	312,060	105,260	3.29
1988/1989	146,584	332,083	11,701	14,015	323,383	111,646	3.35
1989/1990	147,811	345,264	10,589	11,484	335,411	120,604	3.45
1990/1991	146,981	351,376	10,593	12,115	343,817	126,641	3.53
1991/1992	147,550	353,253	12,028	14,453	350,797	126,672	3.54
1992/1993	146,441	353,878	12,954	14,876	355,479	123,149	3.58
1993/1994	145,327	354,685	16,138	15,837	359,214	118,921	3.62
1994/1995	147,335	364,108	19,380	21,058	363,790	117,561	3.66
1995/1996	148,352	368,791	18,127	19,820	366,582	118,077	3.69
1996/1997	150,200	380,390	16,666	19,110	375,773	120,250	3.75
1997/1998	151,743	387,440	24,232	26,646	377,546	127,730	3.79
1998/1999	153,313	394,919	25,219	25,633	388,227	134,008	3.83
1999/2000	155,860	409,305	20,263	22,831	397,681	143,064	3.91
2000/2001	152,780	399,244	22,073	23,988	393,708	146,685	3.89
2001/2002	151,645	399,456	25,969	26,982	412,194	132,934	3.92
2002/2003	147,663	378,182	26,297	28,659	405,744	103,010	3.81
2003/2004	149,521	392,483	25,012	27,436	411,412	81,657	3.92
2004/2005	151,442	400,799	25,973	28,252	406,186	73,991	3.94
2005/2006	154,214	417,865	26,537	29,646	412,259	76,488	4.04
2006/2007	154,284	420,090	28,585	31,326	418,460	75,377	4.05
2007/2008	154,976	433,631	30,027	31,432	426,711	80,892	4.15
2008/2009	158,489	449,948	27,415	28,956	436,125	93,174	4.23
2009/2010	155,765	440,107	28,263	31,328	435,044	95,172	4.21
2010/2011	158,249	450,031	33,073	35,146	443,169	99,961	4.24
2011/2012	160,126	467,397	35,519	39,924	456,374	106,579	4.35
2012/2013	158,689	472,524	36,753	39,362	462,623	113,871	4.44
2013/2014	161,395	478,306	38,717	43,019	473,878	113,997	4.42
2014/2015	160,580	478,411	41,596	43,526	475,447	115,031	4.44
2015/2016	158,893	471,828	38,265	40,524	468,907	115,693	4.43
2016/2017 (추정치)	161,480	481,540	38,384	41,419	475,637	118,561	4.45
2017/2018 (전망치)	161,830	481,298	39,850	42,167	477,770	119,772	4.44

▢ 밀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229,825	494,837	80,505	82,452	482,770	178,639	2.15
1986/1987	227,895	524,082	86,488	89,274	508,745	191,190	2.30
1987/1988	220,087	498,710	112,247	111,565	531,449	159,133	2.27
1988/1989	217,878	495,282	102,384	105,151	516,536	135,112	2.27
1989/1990	226,333	533,133	98,797	103,419	526,734	136,889	2.36
1990/1991	231,004	588,781	99,003	103,843	549,658	171,172	2.55
1991/1992	222,791	543,434	108,361	109,948	551,375	161,644	2.44
1992/1993	222,175	562,620	108,810	110,039	545,542	177,193	2.53
1993/1994	221,055	558,570	98,561	103,717	547,337	183,270	2.53
1994/1995	213,352	523,137	99,877	98,215	543,365	164,704	2.45
1995/1996	216,739	537,523	97,188	99,197	543,624	156,594	2.48
1996/1997	227,101	581,316	98,254	106,943	563,944	165,277	2.56
1997/1998	226,396	610,192	103,533	104,400	575,633	198,969	2.70
1998/1999	219,192	590,497	99,635	101,319	577,307	210,475	2.69
1999/2000	212,673	587,474	106,718	113,435	580,915	210,317	2.76
2000/2001	215,367	582,806	99,344	101,195	585,182	206,090	2.71
2001/2002	214,253	583,894	106,234	105,783	587,114	203,321	2.73
2002/2003	213,416	569,690	103,712	105,341	602,226	169,156	2.67
2003/2004	207,953	555,712	101,107	108,519	581,524	135,932	2.67
2004/2005	215,781	626,769	110,440	111,081	605,591	156,469	2.91
2005/2006	217,525	618,825	111,572	117,394	616,153	153,319	2.85
2006/2007	212,315	596,663	113,934	111,559	618,854	133,503	2.81
2007/2008	216,878	611,913	113,512	116,390	614,307	128,231	2.82
2008/2009	224,072	683,953	137,701	144,121	636,520	169,244	3.05
2009/2010	225,594	687,236	133,576	136,764	649,633	203,659	3.05
2010/2011	216,847	649,460	132,222	133,038	653,296	199,007	3.00
2011/2012	220,979	697,320	150,263	157,661	690,028	198,901	3.16
2012/2013	215,897	658,600	145,337	138,063	687,170	177,605	3.05
2013/2014	219,655	715,080	158,639	165,870	690,761	194,693	3.26
2014/2015	221,521	727,978	159,175	164,154	700,185	217,507	3.29
2015/2016	225,078	736,996	169,953	172,854	709,182	242,420	3.27
2016/2017 (추정치)	222,105	753,090	175,451	179,744	735,866	255,351	3.39
2017/2018 (전망치)	222,235	737,826	178,533	178,347	735,076	258,287	3.32

▢ 옥수수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130,997	479,086	53,470	55,302	417,728	177,672	3.66
1986/1987	131,861	475,451	52,484	55,077	445,668	204,862	3.61
1987/1988	126,862	450,997	57,323	59,128	456,354	197,675	3.56
1988/1989	126,109	400,439	66,465	68,461	450,862	145,256	3.18
1989/1990	127,346	461,717	73,603	72,176	475,535	132,865	3.63
1990/1991	129,066	481,854	58,547	58,389	473,475	141,402	3.73
1991/1992	132,519	492,834	63,107	62,053	494,237	141,053	3.72
1992/1993	133,156	535,695	60,289	63,263	509,172	162,740	4.02
1993/1994	130,744	475,923	56,973	58,861	507,337	129,438	3.64
1994/1995	135,199	559,615	68,911	66,126	538,490	153,348	4.14
1995/1996	135,057	516,714	65,702	70,422	532,059	133,283	3.83
1996/1997	141,490	592,887	64,846	65,572	559,129	166,315	4.19
1997/1998	136,252	574,147	63,206	63,347	573,126	167,195	4.21
1998/1999	138,951	605,811	66,556	66,938	581,253	191,371	4.36
1999/2000	138,836	608,089	70,859	75,541	600,374	194,404	4.38
2000/2001	137,116	591,658	74,862	76,722	608,963	175,239	4.32
2001/2002	137,094	601,833	71,441	74,579	622,452	151,482	4.39
2002/2003	137,735	604,080	75,650	76,746	627,613	126,853	4.39
2003/2004	141,641	627,988	76,809	77,135	649,862	104,653	4.43
2004/2005	145,336	716,815	75,927	77,659	688,718	131,018	4.93
2005/2006	145,467	700,984	80,115	80,971	707,691	123,455	4.82
2006/2007	150,464	716,066	90,173	93,933	727,058	108,703	4.76
2007/2008	160,221	795,231	98,236	98,917	775,738	127,515	4.96
2008/2009	158,800	800,197	82,491	83,721	782,852	143,630	5.04
2009/2010	158,563	826,406	90,479	96,618	822,879	141,018	5.21
2010/2011	164,869	837,282	93,432	91,557	856,908	123,267	5.08
2011/2012	172,348	891,588	100,603	116,948	870,532	127,978	5.17
2012/2013	178,100	872,634	99,581	95,422	871,607	133,164	4.90
2013/2014	180,720	993,748	125,461	131,416	946,128	174,829	5.50
2014/2015	179,793	1,018,534	125,467	142,402	967,018	209,410	5.67
2015/2016	178,022	968,064	140,563	119,948	985,718	212,371	5.44
2016/2017 (추정치)	183,055	1,065,114	137,932	158,578	1,032,939	223,900	5.82
2017/2018 (전망치)	180,639	1,033,664	144,785	151,912	1,055,172	195,265	5.72

▢ 대두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51,991	97,006	27,325	26,061	92,635	23,575	1.87
1986/1987	51,577	98,049	29,071	28,552	102,119	20,024	1.90
1987/1988	54,062	103,654	28,143	30,114	101,095	20,612	1.92
1988/1989	55,659	95,857	23,901	23,558	97,620	19,192	1.72
1989/1990	58,355	107,192	26,562	27,275	104,154	21,517	1.84
1990/1991	54,419	104,290	25,546	25,392	104,625	21,347	1.92
1991/1992	54,944	107,297	28,220	28,098	109,293	19,391	1.95
1992/1993	56,595	117,206	30,047	29,296	115,900	21,448	2.07
1993/1994	60,258	117,582	28,178	27,729	120,823	18,656	1.95
1994/1995	62,150	137,646	32,762	31,982	132,407	24,675	2.22
1995/1996	61,063	124,699	32,462	31,643	131,699	18,494	2.04
1996/1997	62,431	131,943	35,631	36,764	134,013	15,291	2.11
1997/1998	68,528	157,951	38,164	39,314	145,100	26,992	2.31
1998/1999	71,299	159,820	38,550	37,928	158,696	28,738	2.24
1999/2000	71,876	160,308	45,522	45,634	159,310	29,624	2.23
2000/2001	75,577	175,792	53,089	53,814	171,503	33,188	2.33
2001/2002	79,618	184,922	54,357	53,015	183,960	35,492	2.32
2002/2003	81,605	196,898	62,885	61,318	191,039	42,918	2.41
2003/2004	88,568	186,745	54,037	56,049	188,972	38,679	2.11
2004/2005	93,327	215,827	63,561	64,754	204,695	48,618	2.31
2005/2006	93,032	221,229	64,100	63,851	215,942	54,154	2.38
2006/2007	94,781	235,706	69,046	71,137	224,671	63,098	2.49
2007/2008	90,934	218,964	78,682	78,320	229,683	52,741	2.41
2008/2009	96,407	211,974	77,903	77,212	222,546	42,860	2.20
2009/2010	102,564	260,491	87,502	91,440	238,904	60,509	2.54
2010/2011	103,426	264,380	89,786	91,705	252,349	70,621	2.56
2011/2012	102,886	240,331	94,552	92,186	260,074	53,244	2.34
2012/2013	109,816	268,451	97,192	100,797	262,737	55,353	2.45
2013/2014	112,339	282,474	113,068	112,777	276,473	61,645	2.51
2014/2015	118,209	319,557	124,361	126,127	302,070	77,366	2.70
2015/2016	120,349	313,050	133,402	132,215	314,528	77,075	2.60
2016/2017 (추정치)	121,108	348,038	140,904	144,595	331,285	90,137	2.87
2017/2018 (전망치)	126,601	344,676	147,764	149,561	344,210	88,806	2.72

주요 국가별 보리 통계

▢ 한국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237	571	0	571	0	2.41
1986/1987	190	453	0	453	0	2.38
1987/1988	206	516	0	516	0	2.51
1988/1989	195	780	17	797	0	4.00
1989/1990	179	715	32	747	0	3.99
1990/1991	160	576	47	623	0	3.60
1991/1992	127	485	76	561	0	3.82
1992/1993	103	449	55	504	0	4.36
1993/1994	171	450	67	517	0	2.63
1994/1995	85	324	121	445	0	3.81
1995/1996	90	403	52	455	0	4.48
1996/1997	95	412	81	493	0	4.34
1997/1998	69	266	65	331	0	3.86
1998/1999	83	157	113	270	0	1.89
1999/2000	77	336	106	442	0	4.36
2000/2001	68	229	85	314	0	3.37
2001/2002	91	383	102	485	0	4.21
2002/2003	81	305	65	328	42	3.77
2003/2004	65	230	67	302	37	3.54
2004/2005	63	262	63	325	37	4.16
2005/2006	61	280	41	305	53	4.59
2006/2007	58	214	53	279	41	3.69
2007/2008	56	245	24	289	21	4.38
2008/2009	56	251	49	277	44	4.48
2009/2010	54	230	38	274	38	4.26
2010/2011	51	156	46	201	39	3.06
2011/2012	42	153	73	227	38	3.64
2012/2013	31	122	73	206	27	3.94
2013/2014	33	109	79	203	12	3.30
2014/2015	38	154	67	205	28	4.05
2015/2016	34	111	62	190	11	3.27
2016/2017 (추정치)	35	125	75	195	16	3.57
2017/2018 (전망치)	35	126	60	195	7	3.60

▢ 러시아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7/1988	16,621	26,101	2,940	115	25,494	3,432	1.57
1988/1989	15,866	19,418	1,670	195	22,928	1,397	1.22
1989/1990	14,660	22,201	2,190	105	24,508	1,175	1.51
1990/1991	13,210	27,235	3,055	70	30,530	865	2.06
1991/1992	14,630	22,174	809	105	23,454	289	1.52
1992/1993	14,050	26,989	1,159	100	27,357	980	1.92
1993/1994	14,910	26,900	83	185	26,824	954	1.80
1994/1995	15,750	27,000	564	2,031	24,087	2,400	1.71
1995/1996	12,530	15,800	666	800	17,566	500	1.26
1996/1997	10,540	15,932	474	149	16,400	357	1.51
1997/1998	11,860	20,786	168	1,502	16,550	3,259	1.75
1998/1999	7,110	9,797	335	115	12,900	376	1.38
1999/2000	7,450	10,602	839	91	11,400	326	1.42
2000/2001	8,460	14,078	413	573	12,700	1,544	1.66
2001/2002	9,710	19,533	201	2,593	14,250	4,435	2.01
2002/2003	9,490	18,738	251	3,132	15,500	4,792	1.98
2003/2004	9,250	18,003	439	2,318	18,600	2,316	1.95
2004/2005	9,570	17,180	272	1,089	16,500	2,179	1.80
2005/2006	8,700	15,791	189	1,726	15,500	933	1.82
2006/2007	9,600	18,155	246	1,547	16,400	1,387	1.89
2007/2008	8,360	15,663	199	1,046	15,050	1,153	1.87
2008/2009	9,440	23,148	56	3,444	17,100	3,813	2.45
2009/2010	7,720	17,881	8	2,657	16,650	2,395	2.32
2010/2011	4,970	8,350	408	267	9,500	1,386	1.68
2011/2012	7,695	16,938	369	3,544	14,300	849	2.20
2012/2013	7,631	13,952	262	2,237	12,100	726	1.83
2013/2014	8,024	15,389	198	2,709	12,700	904	1.92
2014/2015	8,803	20,026	39	5,336	14,100	1,533	2.28
2015/2016	8,042	17,083	61	4,241	13,600	836	2.12
2016/2017 (추정치)	7,955	17,547	50	2,900	14,000	1,533	2.21
2017/2018 (전망치)	8,000	17,000	50	3,600	14,000	983	2.13

▢ 중국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1,748	4,714	325	0	4,960	1,126	2.70
1986/1987	1,913	4,803	518	0	5,145	1,302	2.51
1987/1988	1,941	5,096	332	0	5,399	1,331	2.63
1988/1989	2,022	5,166	256	0	5,415	1,338	2.56
1989/1990	1,848	4,852	581	0	5,417	1,354	2.63
1990/1991	1,809	4,903	915	0	5,652	1,520	2.71
1991/1992	1,618	4,622	1,009	0	5,714	1,437	2.86
1992/1993	1,526	4,665	647	0	5,673	1,076	3.06
1993/1994	1,355	4,327	1,318	0	5,743	978	3.19
1994/1995	1,395	4,411	1,365	1	5,854	899	3.16
1995/1996	1,283	4,089	1,399	0	5,550	837	3.19
1996/1997	1,300	4,000	2,036	7	5,700	1,166	3.08
1997/1998	1,300	4,000	1,176	0	5,575	767	3.08
1998/1999	904	2,656	1,955	6	5,209	163	2.94
1999/2000	868	2,970	2,244	1	5,200	176	3.42
2000/2001	791	2,646	2,305	1	4,900	226	3.35
2001/2002	770	2,893	1,913	0	4,500	532	3.76
2002/2003	914	3,322	1,792	4	4,900	742	3.64
2003/2004	913	3,250	1,519	2	5,200	309	3.56
2004/2005	785	3,222	2,049	3	5,350	227	4.11
2005/2006	831	3,444	2,217	3	5,400	485	4.14
2006/2007	832	3,130	1,127	49	4,300	393	3.76
2007/2008	773	2,785	1,091	81	3,800	388	3.60
2008/2009	794	2,823	1,551	17	4,300	445	3.56
2009/2010	626	2,318	2,341	13	4,500	591	3.70
2010/2011	580	1,972	1,656	9	4,050	160	3.40
2011/2012	511	1,637	2,541	4	3,800	534	3.20
2012/2013	490	1,626	2,183	1	4,000	342	3.32
2013/2014	466	1,700	4,891	0	6,300	633	3.65
2014/2015	469	1,810	9,859	0	11,600	702	3.86
2015/2016	447	1,870	5,869	0	7,900	541	4.18
2016/2017 (추정치)	500	2,000	5,900	0	7,900	541	4.00
2017/2018 (전망치)	520	2,100	4,500	0	6,900	241	4.04

▢ 호주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3,284	4,868	0	3,661	1,321	84	1.48
1986/1987	2,313	3,611	0	2,211	1,413	71	1.56
1987/1988	2,384	3,477	0	1,639	1,690	219	1.46
1988/1989	2,231	3,306	0	1,364	1,600	561	1.48
1989/1990	2,310	4,121	0	2,579	1,777	326	1.78
1990/1991	2,556	4,184	0	2,500	1,955	55	1.64
1991/1992	2,744	4,606	0	2,107	1,732	822	1.68
1992/1993	2,982	5,460	0	2,416	2,834	1,032	1.83
1993/1994	3,424	6,956	0	4,436	3,034	518	2.03
1994/1995	2,470	2,913	66	1,144	2,142	211	1.18
1995/1996	3,111	5,823	18	3,375	2,323	354	1.87
1996/1997	3,366	6,696	9	3,950	2,746	363	1.99
1997/1998	3,521	6,482	36	3,005	3,041	835	1.84
1998/1999	3,167	5,987	13	4,240	2,130	465	1.89
1999/2000	2,596	5,032	15	2,565	2,560	387	1.94
2000/2001	3,454	6,743	0	3,967	2,200	963	1.95
2001/2002	3,707	8,280	0	4,676	2,800	1,767	2.23
2002/2003	3,864	3,865	0	1,984	2,700	948	1.00
2003/2004	4,477	10,387	0	6,398	3,050	1,887	2.32
2004/2005	4,646	7,740	0	4,261	3,500	1,866	1.67
2005/2006	4,406	9,483	0	5,267	3,500	2,582	2.15
2006/2007	4,182	4,257	0	1,851	4,000	988	1.02
2007/2008	4,902	7,159	0	3,386	3,100	1,661	1.46
2008/2009	5,015	7,996	0	3,234	4,000	2,423	1.59
2009/2010	4,422	7,865	0	3,915	4,500	1,873	1.78
2010/2011	3,681	7,995	0	4,664	4,200	1,004	2.17
2011/2012	3,718	8,221	0	5,377	3,300	548	2.21
2012/2013	3,644	7,472	0	4,484	3,000	536	2.05
2013/2014	3,814	9,174	0	6,217	2,800	693	2.41
2014/2015	4,078	8,646	0	5,219	3,000	1,120	2.12
2015/2016	4,105	8,593	0	5,744	3,300	669	2.09
2016/2017 (추정치)	4,000	13,000	0	8,700	3,300	1,669	3.25
2017/2018 (전망치)	3,500	8,000	0	6,000	3,100	569	2.29

▢ 유럽연합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99/2000	14,780	59,378	177	9,708	53,347	11,691	4.02
2000/2001	14,112	60,061	370	7,162	55,942	9,018	4.26
2001/2002	14,148	58,928	1,351	4,151	55,146	10,000	4.17
2002/2003	14,041	58,339	1,096	5,214	55,574	8,647	4.16
2003/2004	14,096	55,923	679	2,607	58,167	4,475	3.97
2004/2005	13,776	64,265	297	3,207	54,790	11,040	4.67
2005/2006	13,835	54,902	81	3,257	54,266	8,500	3.97
2006/2007	13,893	56,430	245	3,394	55,943	5,838	4.06
2007/2008	13,857	57,765	337	3,760	54,450	5,730	4.17
2008/2009	14,564	65,759	301	3,569	57,270	10,951	4.52
2009/2010	14,000	62,393	101	1,123	56,770	15,552	4.46
2010/2011	12,530	53,691	178	4,873	56,610	7,938	4.29
2011/2012	11,949	51,883	456	3,008	51,200	6,069	4.34
2012/2013	12,526	54,875	66	4,966	51,000	5,044	4.38
2013/2014	12,408	59,674	44	5,741	53,400	5,621	4.81
2014/2015	12,422	60,609	88	9,547	50,937	5,834	4.88
2015/2016	12,248	62,095	292	10,786	51,375	6,060	5.07
2016/2017 (추정치)	12,373	60,000	400	5,400	55,400	5,660	4.85
2017/2018 (전망치)	12,400	59,500	400	7,000	53,800	4,760	4.80

▢ 우크라이나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7/1988	4,077	12,190	230	1,655	10,817	848	2.99
1988/1989	3,658	8,751	1,160	1,345	8,578	836	2.39
1989/1990	3,234	10,090	550	1,090	9,677	709	3.12
1990/1991	2,729	9,168	500	350	9,307	720	3.36
1991/1992	3,190	8,047	435	275	8,306	621	2.52
1992/1993	3,451	10,106	325	180	10,319	553	2.93
1993/1994	4,215	13,550	0	275	11,729	2,099	3.22
1994/1995	5,092	14,508	0	410	13,722	2,475	2.85
1995/1996	4,413	9,633	1	875	10,834	400	2.18
1996/1997	3,426	5,725	0	325	5,500	300	1.67
1997/1998	3,704	7,407	0	540	5,767	1,400	2.00
1998/1999	3,567	5,870	0	975	5,545	750	1.65
1999/2000	3,475	6,425	12	776	5,650	761	1.85
2000/2001	3,690	6,872	29	1,016	5,800	846	1.86
2001/2002	3,921	10,186	94	2,802	7,000	1,324	2.60
2002/2003	4,153	10,364	262	2,883	7,400	1,667	2.50
2003/2004	4,601	6,833	133	1,517	6,400	716	1.49
2004/2005	4,515	11,084	7	4,312	6,500	995	2.46
2005/2006	4,350	8,975	61	3,959	5,300	772	2.06
2006/2007	5,236	11,341	14	5,103	6,300	724	2.17
2007/2008	4,088	5,981	49	1,044	5,000	710	1.46
2008/2009	4,167	12,612	4	6,371	5,900	1,055	3.03
2009/2010	4,994	11,833	11	6,232	5,600	1,067	2.37
2010/2011	4,317	8,484	37	2,794	6,000	794	1.97
2011/2012	3,684	9,098	42	2,463	6,300	1,171	2.47
2012/2013	3,293	6,935	0	2,134	5,100	872	2.11
2013/2014	3,233	7,561	14	2,476	5,000	971	2.34
2014/2015	3,200	9,450	0	4,456	4,700	1,265	2.95
2015/2016	3,000	8,751	5	4,412	4,700	909	2.92
2016/2017 (추정치)	3,050	9,900	5	5,500	4,400	914	3.25
2017/2018 (전망치)	2,600	7,400	5	3,600	4,100	619	2.85

▢ 미국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4,691	12,850	136	429	10,818	7,125	2.74
1986/1987	4,846	13,249	145	2,909	10,288	7,322	2.73
1987/1988	4,029	11,354	246	2,634	9,296	6,992	2.82
1988/1989	3,090	6,314	229	1,727	7,532	4,276	2.04
1989/1990	3,364	8,800	285	1,937	7,923	3,501	2.62
1990/1991	3,047	9,192	293	1,739	8,299	2,948	3.02
1991/1992	3,405	10,110	534	2,058	8,734	2,800	2.97
1992/1993	2,948	9,908	248	1,748	7,916	3,292	3.36
1993/1994	2,733	8,666	1,556	1,438	9,053	3,023	3.17
1994/1995	2,698	8,162	1,434	1,442	8,726	2,451	3.03
1995/1996	2,541	7,824	887	1,359	7,635	2,168	3.08
1996/1997	2,714	8,544	801	671	8,459	2,383	3.15
1997/1998	2,508	7,835	876	1,619	6,879	2,596	3.12
1998/1999	2,369	7,655	649	621	7,195	3,084	3.23
1999/2000	1,851	5,922	602	613	6,571	2,424	3.20
2000/2001	2,104	6,919	636	1,258	6,407	2,314	3.29
2001/2002	1,729	5,407	521	575	5,661	2,006	3.13
2002/2003	1,669	4,940	402	659	5,179	1,510	2.96
2003/2004	1,913	6,059	449	409	4,990	2,619	3.17
2004/2005	1,627	6,091	264	506	5,672	2,796	3.74
2005/2006	1,323	4,613	117	606	4,570	2,350	3.49
2006/2007	1,194	3,923	264	441	4,596	1,500	3.29
2007/2008	1,417	4,575	636	902	4,324	1,485	3.23
2008/2009	1,528	5,205	632	288	5,102	1,932	3.41
2009/2010	1,260	4,934	361	123	4,589	2,515	3.92
2010/2011	998	3,924	207	165	4,536	1,945	3.93
2011/2012	907	3,370	354	193	4,170	1,306	3.72
2012/2013	1,325	4,768	507	193	4,638	1,750	3.60
2013/2014	1,230	4,719	408	311	4,775	1,791	3.84
2014/2015	1,011	3,953	513	311	4,235	1,711	3.91
2015/2016	1,278	4,750	403	235	4,406	2,223	3.72
2016/2017 (추정치)	1,035	4,339	261	109	4,637	2,077	4.19
2017/2018 (전망치)	886	3,462	327	109	4,094	1,663	3.91

▢ 캐나다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4,750	12,387	6	3,592	7,653	3,304	2.61
1986/1987	4,829	14,568	0	6,528	8,172	3,172	3.02
1987/1988	4,993	13,916	0	4,374	9,007	3,707	2.79
1988/1989	4,191	10,326	0	2,608	8,625	2,800	2.46
1989/1990	4,727	11,784	3	4,234	8,297	2,056	2.49
1990/1991	4,529	13,441	0	4,656	8,195	2,646	2.97
1991/1992	4,217	11,617	2	3,312	8,338	2,615	2.76
1992/1993	3,792	11,032	3	2,454	7,925	3,271	2.91
1993/1994	4,159	12,972	1	3,564	9,304	3,376	3.12
1994/1995	4,093	11,692	5	2,934	10,319	1,820	2.86
1995/1996	4,363	13,033	10	2,564	10,550	1,749	2.99
1996/1997	4,888	15,562	19	3,360	11,051	2,919	3.18
1997/1998	4,700	13,527	20	2,218	11,789	2,459	2.88
1998/1999	4,272	12,709	39	1,134	11,336	2,737	2.98
1999/2000	4,069	13,196	33	1,709	11,419	2,838	3.24
2000/2001	4,468	13,229	38	1,971	11,618	2,516	2.96
2001/2002	4,150	10,846	105	1,164	10,405	1,898	2.61
2002/2003	3,342	7,468	247	427	7,711	1,475	2.24
2003/2004	4,397	12,164	31	1,854	9,714	2,102	2.77
2004/2005	3,841	12,557	81	1,175	10,130	3,435	3.27
2005/2006	3,634	11,678	44	2,232	9,636	3,289	3.21
2006/2007	3,223	9,573	43	1,232	10,182	1,491	2.97
2007/2008	3,963	10,910	55	3,046	7,842	1,568	2.75
2008/2009	3,504	11,786	42	1,483	8,949	2,964	3.36
2009/2010	2,922	9,528	36	1,309	8,717	2,502	3.26
2010/2011	2,394	7,627	44	1,207	7,464	1,502	3.19
2011/2012	2,402	7,892	16	1,299	6,916	1,195	3.29
2012/2013	2,751	8,012	19	1,432	6,811	983	2.91
2013/2014	2,652	10,237	9	1,561	7,718	1,950	3.86
2014/2015	2,136	7,119	136	1,517	6,471	1,217	3.33
2015/2016	2,354	8,226	161	1,193	6,968	1,443	3.50
2016/2017 (추정치)	2,220	8,800	75	1,400	7,100	1,818	3.96
2017/2018 (전망치)	2,000	7,600	50	1,100	7,250	1,118	3.80

▢ 아르헨티나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137	130	0	5	145	26	0.95
1986/1987	94	140	0	12	128	26	1.49
1987/1988	131	282	0	35	235	38	2.15
1988/1989	139	329	0	105	206	56	2.37
1989/1990	162	365	0	50	290	81	2.25
1990/1991	149	327	1	52	272	85	2.20
1991/1992	233	573	0	100	390	168	2.46
1992/1993	229	583	0	150	400	201	2.55
1993/1994	199	459	0	125	330	205	2.31
1994/1995	149	345	8	25	333	200	2.32
1995/1996	218	386	17	11	379	213	1.77
1996/1997	250	536	127	250	407	219	2.14
1997/1998	323	926	7	140	550	462	2.87
1998/1999	212	538	7	109	425	473	2.54
1999/2000	185	420	10	32	475	396	2.27
2000/2001	248	722	0	211	475	432	2.91
2001/2002	246	530	0	89	475	398	2.16
2002/2003	251	550	0	102	475	371	2.19
2003/2004	334	1,005	0	191	625	560	3.01
2004/2005	275	895	0	316	625	514	3.26
2005/2006	267	799	0	353	550	410	2.99
2006/2007	355	1,330	0	531	825	384	3.75
2007/2008	453	1,600	0	911	825	248	3.53
2008/2009	633	2,110	0	1,018	895	445	3.33
2009/2010	503	1,356	0	482	990	329	2.70
2010/2011	750	2,950	0	1,614	1,135	530	3.93
2011/2012	1,160	4,500	0	3,616	1,200	214	3.88
2012/2013	1,500	5,000	0	3,581	1,300	333	3.33
2013/2014	1,270	4,750	0	2,891	1,700	492	3.74
2014/2015	900	2,900	0	1,552	1,500	340	3.22
2015/2016	1,250	4,940	0	3,077	1,600	603	3.95
2016/2017 (추정치)	870	3,300	0	1,900	1,500	503	3.79
2017/2018 (전망치)	895	3,400	0	2,000	1,500	403	3.80

▢ 터키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3,350	6,500	48	18	6,680	1,000	1.94
1986/1987	3,200	6,300	0	1	6,199	1,100	1.97
1987/1988	3,200	6,000	71	103	6,368	700	1.88
1988/1989	3,300	7,000	80	400	6,380	1,000	2.12
1989/1990	3,350	4,900	473	9	6,164	200	1.46
1990/1991	3,400	6,600	91	44	6,036	811	1.94
1991/1992	3,400	6,800	12	1,390	5,900	333	2.00
1992/1993	3,440	6,500	96	580	5,841	508	1.89
1993/1994	3,550	7,300	158	534	6,074	1,358	2.06
1994/1995	3,500	6,500	54	1,022	6,300	590	1.86
1995/1996	3,550	6,900	62	100	6,505	947	1.94
1996/1997	3,650	7,200	20	375	6,475	1,317	1.97
1997/1998	3,700	7,300	148	955	6,684	1,126	1.97
1998/1999	3,600	7,500	150	1,241	6,800	735	2.08
1999/2000	3,550	6,600	63	134	6,700	564	1.86
2000/2001	3,600	7,400	47	139	6,900	972	2.06
2001/2002	3,500	6,900	29	548	6,600	753	1.97
2002/2003	3,550	7,200	29	509	6,800	673	2.03
2003/2004	3,450	6,900	223	17	7,100	679	2.00
2004/2005	3,500	7,400	59	0	7,300	838	2.11
2005/2006	3,600	7,600	53	541	7,300	650	2.11
2006/2007	3,600	7,500	53	375	7,300	528	2.08
2007/2008	3,600	6,000	187	0	6,100	615	1.67
2008/2009	3,400	5,700	178	0	5,700	793	1.68
2009/2010	3,400	6,500	178	781	5,900	790	1.91
2010/2011	3,350	5,900	57	23	6,000	724	1.76
2011/2012	3,200	7,000	39	103	6,750	910	2.19
2012/2013	3,300	5,500	259	0	6,200	469	1.67
2013/2014	3,330	7,300	86	6	6,950	899	2.19
2014/2015	3,400	4,000	792	9	5,350	332	1.18
2015/2016	3,400	7,400	129	0	6,900	961	2.18
2016/2017 (추정치)	3,400	4,750	200	20	5,500	391	1.40
2017/2018 (전망치)	3,300	5,000	250	5	5,400	236	1.52

Ⓔ 11-2017-06 해외곡물시장 동향 2017 제 6권 제6호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17년 6월 5일
발 행 2017년 6월 5일
발행인 김창길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팩시밀리 061-820-2211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61-332-7120 팩시밀리 061-333-2247
E-mail: dongyt@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